

# 속초문화

THE SOKCHO CULTURE JOUR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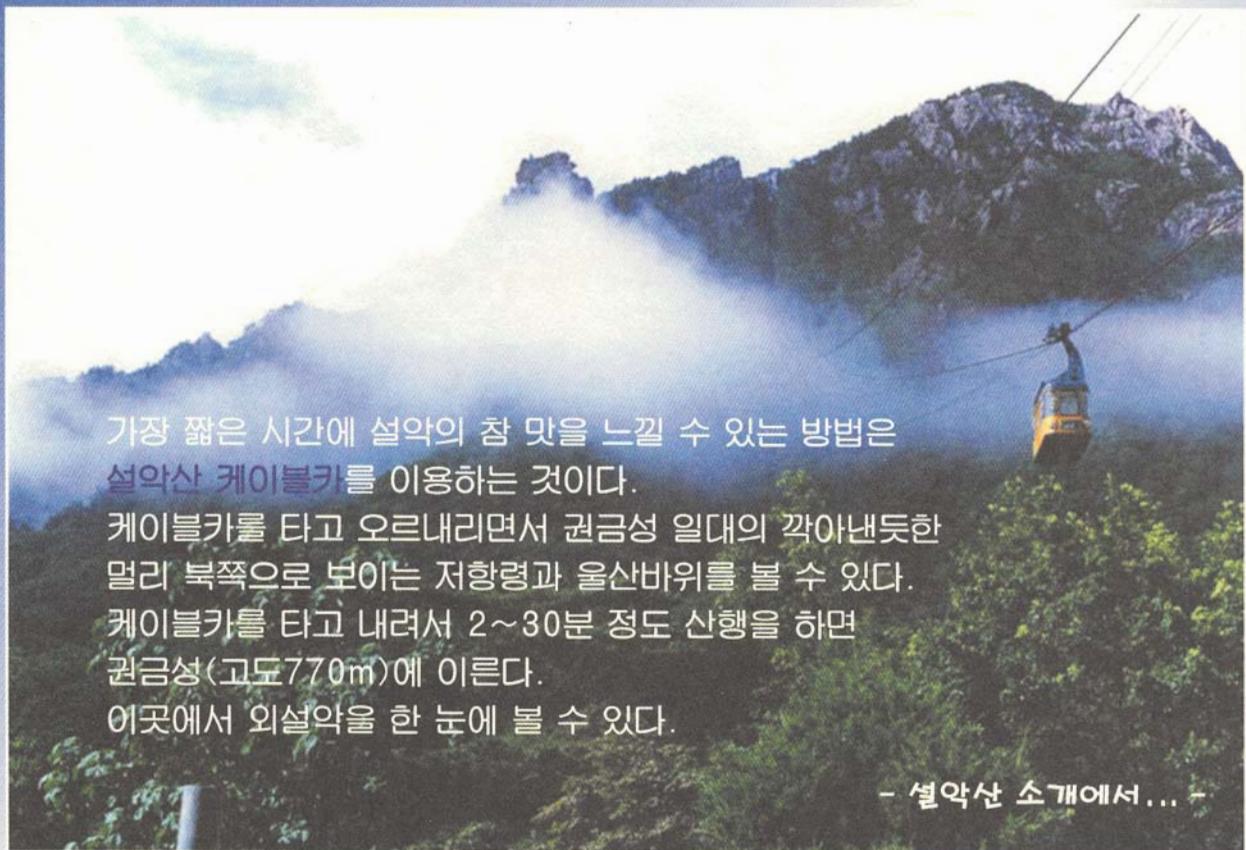
2002 · 제18호  
ANNUALLY



속초문화원  
[www.sokcho-culture.com](http://www.sokcho-culture.com)

그 동안 성원에 감사드리며....  
"2003年 7月 20日"  
보다 좋은 서비스와 쾌적한 환경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설악관광(주) 케이블카



가장 짧은 시간에 설악의 참 맛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은  
설악산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이다.

케이블카를 타고 오르내리면서 권금성 일대의 깍아낸듯한  
멀리 북쪽으로 보이는 저항령과 울산바위를 볼 수 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서 2~30분 정도 산행을 하면  
권금성(고도770m)에 이른다.

이곳에서 외설악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 설악산 소개에서 ... -

### 설악케이블카 운휴안내

평소 베풀어 주신 성원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건물 및 시설이 노후되고,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전면적인 개·보수를 위해 휴업합니다.

기 간 : 2002. 12. 2 ~ 2003. 7. 20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완공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 치 : 설악산 소공원내  
문 의 : (033) 636-7362  
홈페이지 : <http://www.sorakcablecar.co.kr>

## 소중한 자료집 소개

책 I



펴낸곳 : 속초문화원  
초판 : 2001년 12월  
국판 338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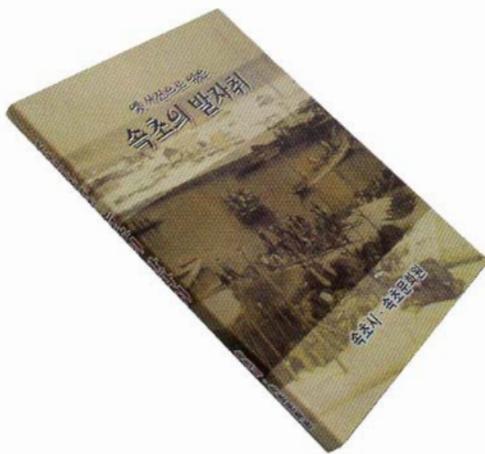
### 《 옛 文獻 속의 束草 》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토대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료들을 공유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대한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20여권의 고서에서 속초에 관련된 기록을 발췌한 사료집으로 원문과 해석문을 함께 달아 놓은 향토사료집이다.

#### contents

- |           |            |
|-----------|------------|
| 1. 연혁(沿革) | 6. 관방(關防)  |
| 2. 산천(山川) | 7. 고적(古蹟)  |
| 3. 지명(地名) | 8. 풍속(風俗)  |
| 4. 호구(戶口) | 9. 설화(說話)  |
| 5. 물산(物產) | 10. 한시(漢詩) |

책 II



펴낸곳 : 속초시 · 속초문화원  
초판 : 2001년 12월  
국판 196면

### 《 옛 사진으로 엮은 속초의 발자취 》

속초의 옛 모습과 주민의 생활상을 담은 자료집으로 해방전후 속초의 옛 모습과 한국전쟁이후 변모하는 도시의 모습을 담아 속초시의 현대사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사진자료집이다.

#### contents

1. 도시의 변천
2. 주요건물
3. 어촌생활
4. 농촌생활
5. 설악산의 옛 모습
6. 사건사고
7. 행사일반

THE SOKCHO CULTURE JOURNAL

# 속초문화

ANNUALLY · 2002 제18호

속초문화원

주소 /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570-5 ☎ 217-010

전화 / (033)632-1231, 639-2439

전송 / (033)632-1241

<http://www.sokcho-culture.com/>

E-mail : scl241@sokcho.org

■ 발행인 / 최용문

■ 편집인 / 박영도 · 한정규

■ 권두휘호 /	한정희 • 5
■ 권두시 / 새희망의 뜻을 달고	최명길 • 6
■ 발간사 / 새로운 시간창출, 함께하는 문화	최용문 • 7
■ 속초시가 / 문예진흥선언	• 8
■ 시민현장	• 10
■ 관광도시 속초(로고)	• 11
■ 동해아침	최낙민 • 12
■ 천불동계곡	• 14
■ 마등령	• 15
■ 태풍 “루사”	• 16
■ 불교미술작품전시회	• 18
■ 문화원 동정	• 19
■ 우리 제례문화 다시 보기	이만식 • 42
■ 문화행정의 방향	최재도 • 51
■ 설악, 그 ‘빈 산이 젖고 있다’	최재도 • 53
■ 김광수 화백 추모	박종성 • 55
■ 5박 6일간의 중국(中國) 문화답사	장은선 • 57
■ 2박 3일간의 일본 문화체험	한정규 • 63

발행일 / 2002년 12월 20일

편집 / 열린마당 인쇄처 / 강원일보사 출판국

《속초문화》 제작비 일부는 도 문예진흥기금을 받고 있음.

이 책에 실린 글과 사진의 임의 전재·복제를 금함.

비매품

■ 편집위원 / 이인철. 노광복. 이기을. 오윤근. 김광수. 윤의구. 최현식

■ 유정충 선장이 남긴 위대한 유산	황을문 • 68
■ 故 劉禎忠 船長의 銅像을 對接하자	최용문 • 74
■ 지역문화의 자생력과 경쟁력	장세호 • 76
■ 중국, 다양성과 정체성의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장규호 • 79
■ 지방정부간 상호협력의 길	사득환 • 82
■ 속초에서, 원산에서, 동해안 길을 오가며...	동훈 • 92
■ 雪嶽山 國立公園 管理의 現況	이형우 • 97
■ 제13회 속초시 문화상	• 101
■ 도의원 / 시의원 소개	• 107
■ 2002년 한국예총 속초지부 주요사업 현황	• 111
■ 영북민속연구회 갯마당	• 121
■ 묵향	• 122
■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 130



### ◎ 표지 사진 설명

【 1930년대 후반 동명항 인근 전경 】

돛을 내린 어선과 바쁜 일손을 놀리는 어민들, 레일은 속초항 방파제 築造를 위해 영금정에서 채취한 岩盤을 운반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 청구문화 장학재단

♣ 설립이사(19명) ♣ 김용현, 김종욱, 박정일, 조수웅, 최동웅, 이우섭, 이강한, 반세인, 이일랑, 김무유, 이희모, 김주익, 최영수, 이주한, 김희철, 박상규, 김요영, 차설환, 노광복(간사)



초대이사장  
김 용 현



2대이사장  
박 대 식



3대이사장  
조 수 웅



청구장학재단 부부일동

## ♣ 연 혁 ♣

- 1967~1990년까지 이 지방 출신 속초중·고 제9회 동창생이 재단 설립을 위하여 3억원의 기금 조성.
- 1991년 8월 3일 이사회 구성, 재단명칭을 "청구문화장학재단"이라 칭함.
- 동년 12월 24일 문교부와 내무부의 심의를 거쳐 법적 인 등기를 필한 후 도교육청으로부터 장학재단 설립 인가됨.
- 1992년 1월 20일 속초세무서에 법인 설립 신고.
- 1992년 3월 10일 속초, 고성 중·고생 52명에게 제1회 장학금 수여식 거행 15,668,250원 지급. (설립전 중·고생 31명에게 18,620,000원 지급)
- 1993년 3월 5일 중·고생 42명에게 18,306,500원 지급.
- 1994년 3월 10일 중·고생 43명에게 21,424,850원 지급.
- 1995년 3월 5일 중·고생 28명에게 16,500,000원 지급.
- 1996년 3월 10일 중·고생 23명에게 15,116,000원 지급.
- 1997년 3월 4일 중·고생 20명에게 17,638,600원 지급.
- 1998년 3월 12일 대학 1명 외 고등학생 23명에게 18,619,600원 지급.
- 1999년 3월 13일 대학 1명 외 고등학생 23명에게 22,200,000원 지급.
- 2000년 3월 15일 고등학생 22명에게 18,500,000원 지급.
- 2001년 3월 15일 고등학생 17명에게 15,000,000원 지급.

총 계 : 197,593,800원 지급

- 이사 15명, 감사 2명으로 임원 구성.
- 사무실은 중앙동 468-20번지 조수웅 법무사에 두고 있음.  
전화 (033) 631-9222, 632-8907

권두 휘호



“손에서 책을 놓을 사이가 없이  
항상 열심히 글을 읽는다.”



희운 / 한정희

- 한·중 서예 교류전 입상(1982, 83, 84年)
- 전국서예대전 최우수(1985年, 86年)
- 한국문화 서화대전 특선(2002年)

권두시

## 새희망의 뜻을 달고

최명길 / 시인

새해가 왔다.

희망의 새해가 이 화엄 천지에 와  
해를 친다.

지난 묵은해는

이제 침묵속에 잠들었다.  
고통과 눈물과 불신과 투쟁은  
저 역사의 수레바퀴가 깔아뭉갰다.

그리고 새날의

오 새해가 왔다.  
두둥실 두둥실 춤추며  
임오년 둥그런 둥그런 새해가  
우리 곁으로 왔다.

보아라 새날의 새해가 와

네와 나는 깨끗해졌거니.  
새해 새빛살의 새강물에 복을 하면  
새벽 이슬을 머금은 풀강유리보석알처럼  
우리 마음 맑아질 것이어니.

그 맑아진 마음으로

새희망의 뜻을 높이 올리자.  
두 손 모아 어서야 뜻을 올리자.

어린이는 기쁨의 뜻

젊은이는 투혼과 용기의 뜻

장년은 지혜와 절제의 뜻

노인은 안식과 혜안의 뜻

그리고 연인은, 아 그 연인들에게는  
사랑과 축복의 뜻을 올리게 하고  
만경창파에 배를 띄우자.

조금 모자란들 어떠랴

조금 늦은들 어떠랴

조금 가난한들 어떠랴

노 저어 가다보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  
꽉 막혔던 일들도 기적처럼 풀리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 향기로운 마음으로 가자.

수평선 멀리 하늘과 바다가 맞붙은 저곳까지

오 새날의 새해가 떴다.

임오년 희망의 새해

해치는 소리 시방-

광활한 이 해안에 가득하구나



- 1940년 출생
- 1975년 월간지 "현대문학" 문단데뷔
- 1999년 강원도 문화상 수상
- 작품 "화첩사"
  - "풀피리 하나만으로"
  - "반만 올리는 피리"
  - "명상시집" 외 다수

## 발간사

# 새로운 시간 창출, 함께 하는 문화

속초문화원장 최용문



2002년 임오(壬午)년은 월드컵 개최와 4강 진출, 태풍"루사", 지방선거를 비롯 우리에게 화합과 시련,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 해였다.

모든 만물들이 눈으로 하얗게 뒤 덮혀도 그 속에 희노애락은 언제나 흐르는 강물처럼 시간이 되고 마는 것이다.

문화라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경주하여 현재의 자리까지 마련,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더 없는 질주를 해 왔다.

내일의 계미년은 속초시 승격 40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새해 새아침에는 동해의 떠오르는 해를 맞이하여 보자.

그 장엄한 모습은 어제의 일도, 오늘 아니 내일의 희망 또한 묻어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의 영위와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더 없는 영광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기원한다.

속초문화원에서 발간하는 "속초문화"지가 이제 지령 18호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발을 놓았다. 그 모진 세월속에 숨어있는 문화의 모습이 서서히 제자리를 잡아 우리들의 시간과 함께하게 될 것이다.

더하여 통일이라는 새로운 시간 창출로서 한 민족이 하나되는 시대로 꿈꾸어보자.

어제의 둘은 오늘과 내일은 하나로서 웅크린 모습을 기지개를 펼쳐 세계속에 도약하는 한민족의 혼을 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의 세기로 빛들인지 3년의 과정은 체계를 확고히하는 계기 마련이었다고 판단해 본다.

여기가 종착역이 아니듯 우리 함께 진정한 문화가족의 가치를 되살려 함께하는 사회, 함께하는 문화로서 내일의 밝은 태양을 함께 마셔보자.

# 속초시가

J = 92-96

이성선 작사  
우동희 작곡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six staves of music for voice and piano. The vocal part uses a treble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B-flat). The piano part uses a bass clef and a key signature of one flat. The tempo is indicated as J = 92-96. The lyrics are written below each staff.

1st Staff (Vocal):

설 악 산 른 뜻 받 아 가슴에 새 기 고  
동 해 바 다 푸 른 물 결 누리에 멀 치 네

2nd Staff (Vocal):

정 성 과 보 랍 으로 다 쳐 온 이 터 전

3rd Staff (Vocal):

우 뚝 솗 아 빛 나 네 하늘 아래 제 일 이 라

4th Staff (Piano):

가 자 배 를 젖 자 산 으로 바 다 향 해

5th Staff (Vocal):

f 우 리 얼 깃 든 곳 여기 가 내 고 향

6th Staff (Piano):

# 文藝中興宣言文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造力이다.

藝術이 創造力を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을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증명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產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을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盲目的인 復古傾向을 警戒하고 分別없는 模倣行爲를 배척하며 천박한 頹廢風潮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 꽂 피우고 우리 文化를 特特한 主體性에 뿌리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荣光된 겨레의 來日를 위하여 價值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을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殿堂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信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們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루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 시민헌장

동해의 푸른 파도와 설악의 수려한 기상을 안고 옛부터 미풍양속을 지녀온 우리 속초시민은 동족 상잔의 쓰라린 고난을 극복하고 줄기찬 노력을 기울여 오늘의 번영된 속초시를 이룩하였다.

이 자랑스러운 위엄을 거울삼아 우리는 스스로 성실하게 인격을 도야하고 상부상조하는 생활양식을 실천하며 내고장을 아끼고 가꾸는 일에 열성을 바친다.

능력에 따라 노력한 만큼 누구나 잘사는 사회를 건설하고 시민 다수에 의한 자율적이고 공개적인 의사선택 결정이 존중되는 시정을 이룩하려 사리를 버리고 공익을 앞세워 법과 질서를 지키며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체육보건 복지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배양하며 빼어난 자연경관과 유서깊은 문화재를 보존하고 휴양을 위한 쾌적한 공간과 시설을 제공하여 국내외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친절과 사랑으로 맞이한다.

올바르고 건실한 젊은 세대의 육석없이는 우리의 밝은 앞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개성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에 진력함으로써 우리 모두 선진도시 문화창조의 역군이 되자.

1990년 10월 11일

속초시민일동

# 관광 도시 속초 Sokcho

## 심 볼 마 크



속초의 다양한 청정 관광자원을 상징적이며 독창적으로 표현하였으며 따뜻하고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아늑하고 즐거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설악산, 일출, 속초의 청정한 바다, 자연그대로의 호수에서 물고기를 상징화하여 다채로운 관광소재를 구상하였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인해 관광객들에게 뚜렷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캐 릭 터



속초시의 특산물인 오징어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역동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머리, 이어지는 시선 끝에 일출을 상징하는 해의 모양을 담고 있는 캐릭터의 모습은 귀엽고 친근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때문지 않은 동심이 묻어나는 속초캐릭터의 얼굴에서 우리는 속초시의 푸른자연, 그 영속성과 함께 밝고 희망찬 미래를 한껏 느낄 수 있다.

## 시 목



### 은행나무

은행나무의 곧게 뻗어 올라가는 줄기는 시민의 기상을, 넓게 펴지는 가지는 지역발전을 의미하고 시가 오래도록 보존되고 발전하기를 기원하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 시 화



### 국화

국화는 번식률이 극히 강하여 힘차게 뻗어가는 우리시의 진취성을 나타내고 가을에 만개하는 국화는 풍요와 번영, 안정과 통일을 희구하는 시민정서를 대변하고 매사의 난관을 극복하며 영원히 지탱하는 시민의 지구력을 뜻한다.

## 시 조



### 비둘기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하며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군서생활을 하는 유조로서 시민의 화합된 단결을 대변하는 속초시의 염원을 담고 있다.





# 동 해 여 정



최낙민 | 崔洛珉 | Choi Nag Min

- 1998年 寫眞映像의 해 南北山河 寫眞展(世宗文化會館)
- 1999年 錦繡江山國立公園 寫眞大展(國會會館1層)
- 1999年 行政自治部 長官賞 受賞
- 2001年 大韓民國 寫眞大展 入選
- 2002年 鐵鋼寫眞 公募展 銀賞 受賞 等 多數  
韓國寫眞作家協會 江陵支部 事業幹事

# 천불동계곡

## 千佛洞溪谷



비선대(飛仙臺)에서 대청봉(大青峰)에 이르는 설악산(雪嶽山)의 가장 대표적인 골짜기. 협곡을 이룬 계곡 양쪽의 기암 괴봉들이 마치 천불(千佛)이 꽂 들어차 있는 듯한 경관을 연출하고 있다. 설악을 대표하는 절경들이 거의 이 골짜기에 밀집되어 있다. 비선대(飛仙臺)에서 대청봉(大青峰)으로 올라가면서 오른편(서쪽)으로 토막골, 설악골, 잣은 바위골, 용소(龍沼)골, 왼편(동쪽)으로 칠선골, 염주(念珠)골, 죽음의 계곡이 갈라진다.

《 속초의 옛 땅이름 》 4.재,령 中에서

# 마등령

## 馬登嶺



마등령(馬登嶺)은 높이가 1,327m의 준봉으로 마치 말의 등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나 옛 기록에는 마등령(馬等嶺)으로 되어 있다.

마등령은 설악산(雪岳山) 대청봉(大青峯)까지 공룡 능선(恐龍稜線)이라 부르는 암릉의 기점이다. 북쪽의 미시령(彌矢嶺, 826m), 남쪽의 한계령(寒溪嶺, 1,004m)과 함께 태백산맥을 가로지르는 주요 통로였다. 지금은 북한강의 지류인 북천 백담 계곡(百潭溪谷)과 동해로 흐르는 천불동 계곡(千佛洞溪谷)의 비선대(飛仙臺)를 잇는 대표적 등산로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의 중심부이며 이곳에서 바라보는 대청봉(大青峰)의 조망이 일품이다.

《 속초의 옛 땅이름 》 4. 재, 령 中에서

# 제 18호 颱風 “루사”의 위력은 실로 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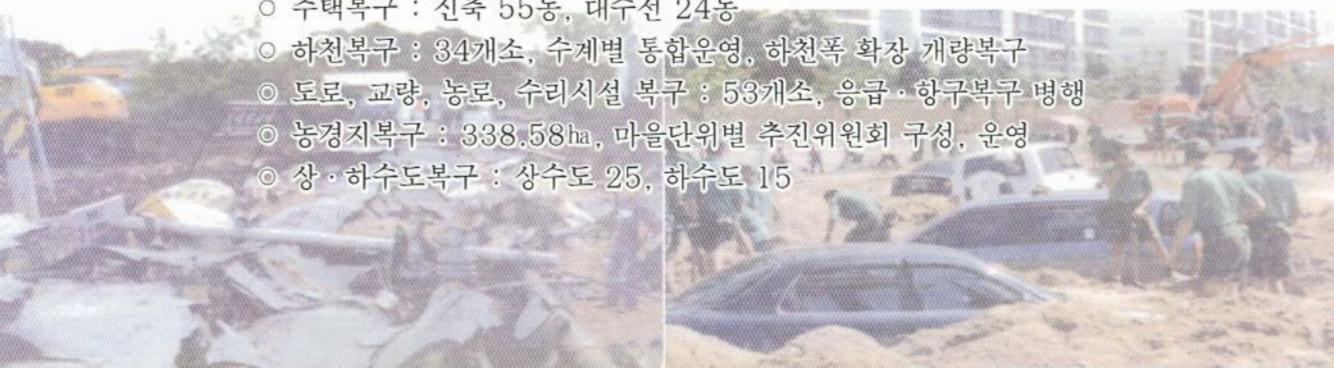
태풍 제18호 “루사”는 속초시로 승격된 이후 최대의 재난으로 물적 · 인적 피해가 사상유래 없는 기록을 남겨두게 되었다. 금번 태풍은 시내 및 설악산의 회선과 정전으로 미측정된 422미리와 595미리라는 기록이 실 750~900미리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실감케 했다. 피해로는 20여명의 사상자와 1,800억원이라는 재산피해를 주었지만 민·관·군의 혼연일체로 빠른 피해극복을 위한 노력과 전국각지의 뜨거운 성원, 자원봉사의 온정이 연이어져 새로운 삶의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수해복구를 위해 헌신하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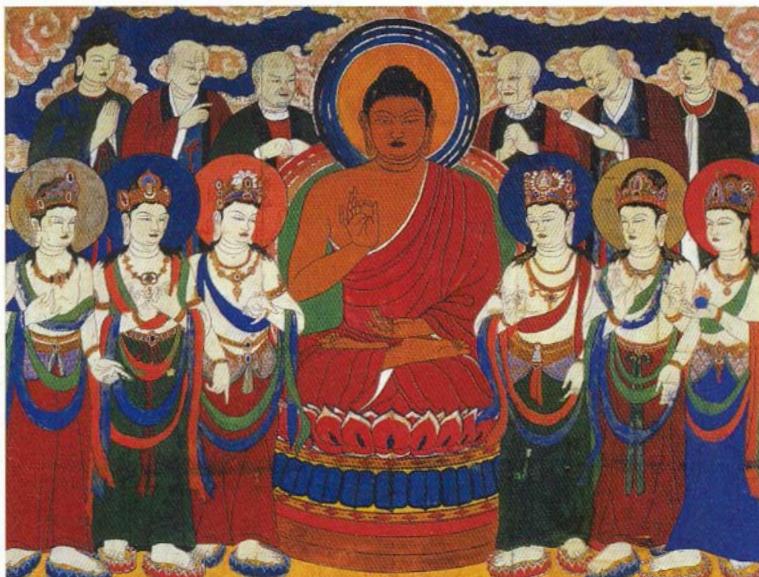


### 태풍 「루사」 피해 항구복구 추진 : 1,438억원

- 주택복구 : 신축 55동, 대수선 24동
- 하천복구 : 34개소, 수계별 통합운영, 하천폭 확장 개량복구
- 도로, 교량, 농로, 수리시설 복구 : 53개소, 응급·항구복구 병행
- 농경지복구 : 338.58ha, 마을단위별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
- 상·하수도복구 : 상수도 25, 하수도 15



# 『아름다움과 깨달음』 佛教美術作品展示會 開幕式



吳之湖 | 아미타후불탱화(阿彌陀後佛搆畫) | 1954 | 인조건 | 144x192cm | 광주 원효사 소장

- 일 시 : 2002년 11월 22일 (금) 16:00
- 장 소 : 속초문화관 전시실
- 주 관 :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스님)

사단법인 불교문화사업기획단(이사장 도후스님)의 출범을 기념하는 『아름다움과 깨달음 : 한국 근현대미술에 나타난 불교사상』전(展)이 11월 22일~12월 2일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있었다.

우리나라 근현대기 불교미술작품 40여점(탱화, 불교회화, 조각품 등)이 전시, 불교의 깨달음과 그 관련성을 조명하여 이 시대 만인(萬人)들이 조성한 문화불사(佛事)를 기대하게 하는 자리였다.

2002

사진으로 / 보는  
문화원 / 동정





## 2002년도 문화학교(제10기생)

2002년 3월 16일 문화사랑방

④ 217-010 속초시 영랑동 570-5  
TEL : 632-1231 FAX : 632-1241

향토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속초문화원 향토문화학교가  
2002년에도 시민들의 적극 참여와 열린문화 공간으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98년 문화관광부로부터 한국문화학교로 지정되면서  
명실상부한 교육기관으로 자리 정착,  
지역주민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  
내 고장의 문화 전수를 수행하였다.

2003년 새해 3월초 6개 강좌로 11기생을 맞이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 한국문화학교로부터 지정문화학교로 선정

## 속초문화원 문화학교



강좌명	요일 / 시간
장구교실 (초급)	월·목 / 10:00 ~ 12:00
사물교실 (초급)	월 / 13:00 ~ 15:00
사물교실 (고급)	목 / 13:00 ~ 15:00
서예교실	화·금 / 10:00 ~ 12:00
노래교실	화·금 / 14:00 ~ 16:00
전통요리교실	토 / 10:00 ~ 12:00



장구·초급반  
사물·초급반  
사물·고급반



노래교실

# 속초문화원 한국문화학교



서예 교실

붓은 단순한  
필기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정신이다.

요리 교실

아름다운 여성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저녁을 짓고 있는 모습보다  
더 아름다운 정경은 없다.



## ■ 졸업생을 위한 강연회 및 공연

- “문화랑 졸업생이랑 함께하는 문화여행”
- 11월 16일, 속초문화회관 대강당

속초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9백여명이 참석, 동문성 시장과 지역출신 황금찬 시인의 강연을 비롯 각 고등학교에서 준비한 우리들의 공연 “힙합댄스” 공연이 있은 뒤 국내의 유명 락 그룹인 “블랙홀” 공연이 이어져 대중음악을 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인으로 첫걸음을 축하해 주었다.



## ■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 수료식 및 발표, 전시회

- 12월 7~8일
- 속초문화회관 소강당 및 전시실,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

속초문화원 부설 한국문화학교 수료식이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토문화학교장의 표창장과 향토문화학교 및 문화관광부 지정 한국문화학교의 수료증을 수여했다. 향토문화학교 학생들의 발표에는 장구초급, 노래, 사물놀이 초·고급반 수강생들이 그동안 배우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뽐내었으며, 서예교실은 전시실에서 50여점의 작품전시를, 문화사랑방에서는 전통요리 수강생들이 30여가지의 음식을 만들어 선보여 이 자리에 참석한 문화학교 수강생 및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 새출발! 힘찬 도약! 2002 첫 해오름

제3회 2002 속초해맞이축제

새출발! 힘찬도약! 2002 첫 해오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02년 1월 1일 김빛은 속초바다에서 솟아오르는 장엄한 일출,  
일출만보고 간다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속초에서 뜻깊고 재미있는 이벤트행사들을 준비했습니다.  
2002년 1월 1일 속초 앞바다에서 새해 첫 소망을 기원하십시오.

• 일 시 : 2002년 1월 1일(화) 06:00~08:00  
• 장 소 : 속초해수욕장 및 설악해맞이공원

속초시

밝아오는 새해 새아침에  
속초에서 큰 복을 받아 가십시오!

새해 첫 아침을 여는 그 장엄한 순간...  
이제 이곳 한반도 동쪽 끝 푸른 동해바다  
속초에서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서설이 내려 눈부신 영산 설악을 배경으로  
새해 첫 아침의 해오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관광속초에서 한빛의 큰 축제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나간 한해를 되새겨보고 그리고 새해를  
맞아 희망의 꽃과 비둘기를 날리면서,  
그리고 수평선 너머로부터 찾아오는 북  
소리와 침찬 춤사위 등 가슴뛰는 감격을  
주는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하였습니다.

부디 속초에 오셔서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감격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장  
속초문화원장



◎ 일 시 : 2002년 1월 1일(화)  
06:00~08:00

◎ 장 소 : 속초해수욕장 및  
설악해맞이공원

◎ 주 최 : 속초시

◎ 주 관 : 속초문화원

◎ 행사내용

- 대북공연
- 창작무용
- 오케스트라 및 성악
- 불꽃놀이
- 오색풍선 날리기
- 종이 꽃 및 종이 비둘기  
날리기
- 유명 악그룹(시나위) 공연
- 새해소원빌기(촛불배부)



제7회  
**설악눈꽃축제**  
7th Sorak Snow Festival

설악의 설경이 펼쳐지는  
설악산에서  
가족단위로 참여하여  
즐길 수 있는  
관광이벤트 한마당!

아름다운 설악에서 느끼는  
솜사탕같은 달콤한 사랑을...

### 하양산 길 걷기

- 일시 : 2002.1.27(일), 08:00~17:00
- 장소 : 설악산
- 참가대상 : 일반인 및 관광객  
(어린이, 가족단위, 동호회원)
- 코스:  
종합운동장(차량이동)▶ 미시령(도보)  
▶ 신선봉 대간능선 ▶ 샘터 ▶ 신선대 능선  
▶ 신선대 ▶ 화암사(차량이동)  
▶ 종합운동장(약 4~5시간 소요)
- 집결 : 오전 08:00, 종합운동장(노학동)
- ※ 연락처 : 설악산악연맹 (033-637-1708)

### 빙벽 등반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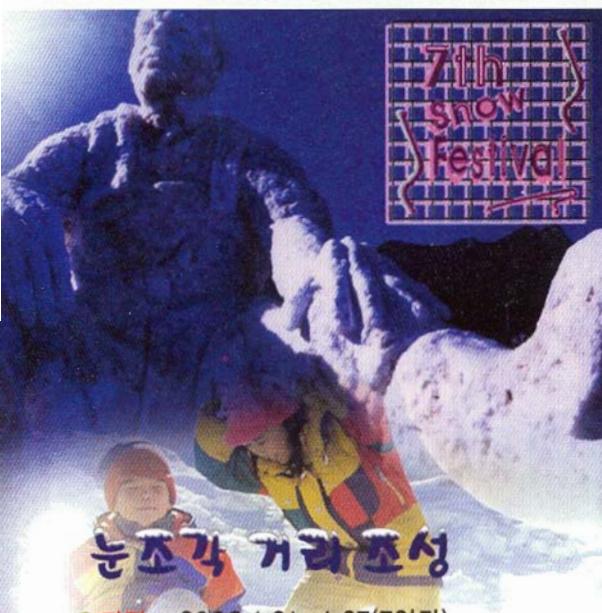
- 기간 : 2002.1.26~1.27(2일간)
- 장소 : 설악산 토왕성 폭포
- 참가대상 : 빙벽등반 유경험자

※ 연락처 : 설악산 적십자구조대(033-636-84

### 설악산 죽고봉 등반대회

- 일시 : 2002.1.27(일), 06:00~16:00
- 장소 : 설악산
- 코스:  
속초소방서(차량이동)▶ 오색매표소(도보)▶  
설악폭포 ▶ 대청봉 ▶ 죽운각대피소  
양폭산장 ▶ 비선대 ▶ 소공원(약 8~9시간 소요)
- 집결 : 오전 06:00, 속초소방서
- ※ 연락처 : 설악산악연맹 (033-637-1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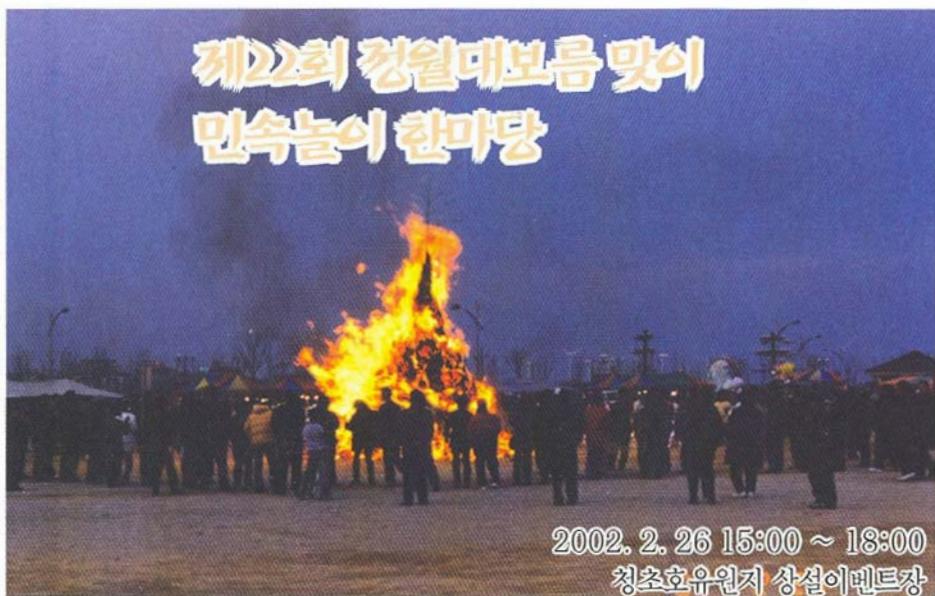
- ◆ 행 사 명 : 2002년 제7회 설악눈꽃축제
- ◆ 일 시 : 2002. 1. 26 ~ 27 양일간
- ◆ 장 소 : 설악산
- ◆ 주요행사 : 개·폐막식 등 공식행사, 하얀산길걷기, 등벽등반대회, 설악산 최고봉 등반대회, 눈조각 거리조성
- ◆ 주 최 : 설악눈꽃축제 위원회
- ◆ 협 찬 : (주) 진로
- ◆ 후 원 : 문화관광부, 강원도, 속초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관리사무소, 한국관광공사,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KBS속초방송국, 강릉문화방송(주), 설악신문



- 기간 : 2002.1.21~1.27(7일간)
- 장소 : 설악동 상가지역
- A코스 : 설악교~C지구 상가지역~  
설악파크호텔 앞 (1.5Km)
- B코스 : 켄싱턴호텔~  
설악산관광호텔(500m)
- 참여 : 호텔, 모텔 등 숙박업소, 식당, 상가



## 제22회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



2002. 2. 26 15:00 ~ 18:00

청초호유원지 상설이벤트장

- ◆ 주 최 : 속초문화원
- ◆ 주 관 : 농협, 새마을금고 연합회, 수협, 신협(속초), 축협, 보광사  
풍물패 갯마당
- ◆ 후 원 : 속초시, 강원도 속초교육청
- ◆ 종 목 : 연날리기, 제기차기, 투호, 윷놀이, 장기대회, 널뛰기,  
지신밟기, 달짚태우기



속초문화원이 전통문화 전승보전과 시민화합을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월대보름 맞이 민속놀이 한마당이 2월 26일 (음력 1월 15일) 청초호 유원지 상설이벤트장에서 1만여 시민의 참여속에 성대히 개최되었다.



장기대회



널뛰기



윷놀이



투호



지신밟기

# 문화교류 자매결연지역 방문

- 대전5개문화원과 강원도 동부권 4개문화원(속초·고성·양양·인제) -



기 간 : 2002년 4월 15일~16일

장 소 : 대전

참가인원 : 12명(속초3, 고성3, 양양3, 인제3)

내 용 : 상호견례 및 문화교류 우호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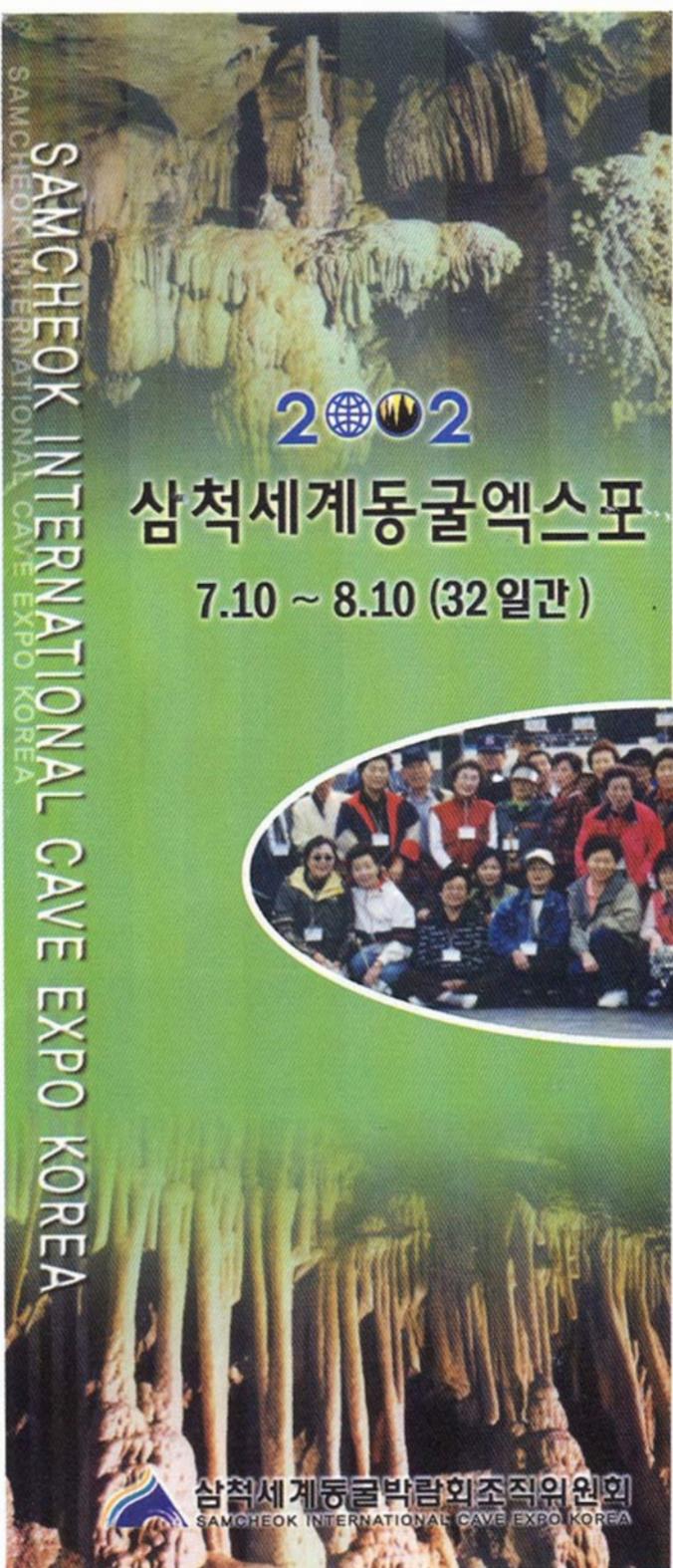
(대전시청방문, 대전동물원, 뿌리공원, 월드컵경기장, 정부대전청사)



# 제7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 ◎ 일 시 : 2002년 7월 1일
- ◎ 장 소 : 인제군 실내체육관
- ◎ 주 죄 : 전국문화원연합회 강원도지회
- ◎ 내 용 : 강원도 18개 시·군 문화원 문화학교 주부사물놀이 경연대회
  - 속초문화원 두두리패(2001 대상) 시연, 사물놀이 초급반 8명 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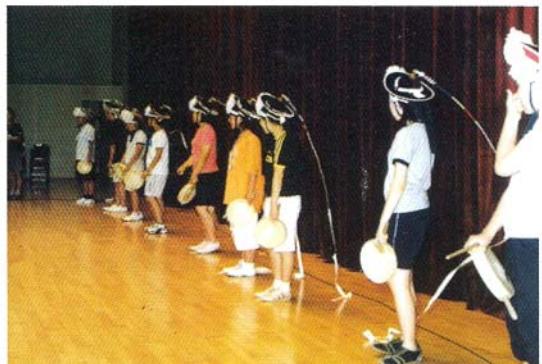


7월 12일 속초문화원 회원  
40명이 삼척세계동굴엑스포  
행사장을 다녀왔다.

유난히 더운 날씨속에서도 주  
행사장을 비롯 신비롬을 더하  
는 환선굴까지 관람을 하여 참  
석자 모두에게 탄성을 자아내  
게 하였다.



# 제6회 강원도 청소년 여름풍물학교



- ◆ 일 시 : 2002년 7월 22일 ~ 27일
- ◆ 장 소 : 속초시 청소년수련관
- ◆ 주 최 : 속초문화원
- ◆ 주 관 : 갯마당

9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여름풍물학교는 강원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을 이용 우리 가락을 교육하는 행사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6일간 80여명이 청소년 수련관에서 합숙을 하며 우리의 전통문화 맥을 잇는 체험 교육의 장이 되었다.

# 속초해양 Festival

은빛 모래와 쪽빛바다,  
Fresh 속초에서 시원한 여름을!



◆ 기간 : 2002년 7월 22~26일

◆ 장소 : 청초호유원지 및  
속초해수욕장

◆ 주최 : 속초시

◆ 주관 : 속초문화원

◆ 내용 : 4개축전

- 신명나는 해변축전

- 젊음이 넘치는 해양레포츠축전

- 수준높은 무대공연의 문화축전

- 온몸으로 즐기는 해양체험축전





### 〈청초호유원지〉

개·폐막식, 청소년한마당축제, 자매도시 민속 예술공연, 한여름밤의 해변영화제, 스포츠댄싱 시범 및 대회



### 〈속초해수욕장〉

비치발리볼 시범 및 대회, 조개파기 한마당, 모래조각전

### 〈장사항〉

오징어맨손잡기, 물속줄다리기, 해변노래방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 작은 콘서트



- 주 최: 속초시
- 주 관: 속초문화원
- 행사장소: 설악해맞이 공원 야외공연장

일정별

행사진행시간: 19:00~22:00

6. 29 7. 13 8. 3 8. 10 8. 17 8. 24 9. 7

- 전통상설공연 (갯마당)
- 힙합댄스
- 색소폰과 함께
- 락그룹과 함께
- 풍물동아리
- 품바타령

7. 20 8. 11 9. 28 10. 5 10. 12

- 전통상설공연 (갯마당)
- 힙합댄스
- 통기타와 함께
- 색소폰과 함께
- 풍물동아리
- 품바타령

7. 27 8. 4 8. 18 8. 31

- 전통상설공연 (갯마당)
- 힙합댄스
- 청소년밴드와 함께 (속초상고 관악부 30명)  
African Symphony · Miami Beach Rumba · Sunflower · El Condor Pasa  
Air For Winds · Shalom Alechem · My Way · Chorale And Shaker Dance
- 통기타와 함께
- 품바타령

## 행사진행

19:00 ~ 20:00

### 전통생활공연

- 갯마당 공연  
(사물놀이, 설장구, 판굿)

20:05 ~ 20:20

### 羞涩댄스

- 전통힙합

20:21 ~ 20:50

### 동기타와 함께

### 작고증과 함께 경주행사

- 포크송 · 즉석신청곡 · Metal & Moody

20:51 ~ 21:05

### 색소폰과 함께

- 색소폰의 감미로운 소리로  
동해바다와 한 마음을

21:06 ~ 21:17

### 동물동아리

- 속초문화원 주부사물놀이페  
(삼도풀물굿)

21:18 ~ 21:50

### 풀마리파발

- 각설이 타령



설악의 밤과 함께하는 작은콘서트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3년을 맞았다.

전국제일의 관광문화도시 “속초”를 홍보하는 홍보도우미 역할을 담당하며, 여름 관광 시즌이 시작되는 7월부터 단풍이 극치를 달하는 10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행사를 실시하여 16회의 공연을 가졌다. 시민과 관광객이 하나되는 체험형 관광상품으로 속초팔경 중의 한곳에서 행사를 개최하여 관광지를 홍보하고, 야간 볼거리행사로 속초를 찾는 이들의 마음에 즐거움을 선사하였으며, 16회 공연을 실시하면서 1만여명의 관람객이 함께하여 다시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로서 이미지를 제고 시켰다.

# 수해극복 시민위안 향연

## ‘2002 속초사랑 相生千年



### ❖ 삼신합동제 및 태풍 “루사” 희생자 합동 위령제

- 일시 : 2002년 11월 2일(토) 오전 11시
- 장소 : 수복기념탑

### ❖ 시민위안 행사

- 일시 : 2002년 11월 2일(토) 오후 2시
- 장소 : 속초시 문화회관 대강당
- 내용 : \* 속초시민을 위한 음악회
  - 양숙희무용단 창작무용
  - 사물놀이(갯마당)
  - 강릉윈드오케스트라
  - 지역가수 초청
  - 품바공연

❖ 주최 : 속초문화원

❖ 후원 : 문화관광부 · 속초시



# 2002 속초사랑 相生千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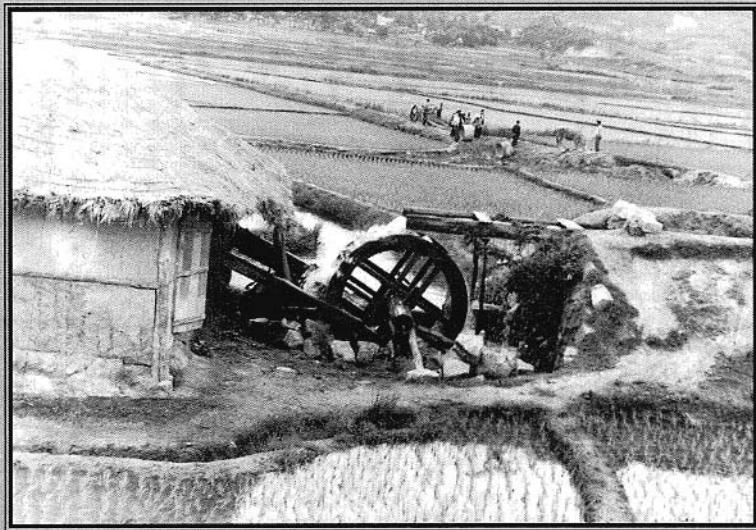


# 2002 찾아가는 문화학교



기  
장  
주  
주  
행사내용 :  
간 : 2002년 10~11월  
소 : 관내 초·중학교  
최 : 속초시·속초문화원  
관 : 갯마당  
전통 민속공연,  
신나는 전통놀이와 함께,  
전통 민속춤 배우기

속초문화원은 올해 속초시와 함께 찾아가는 문화학교를 주최하여 관내 11개 초·중학교 학생 총 2,806명에 우리전통문화 교육을 실시했다. 하루 3시간 교육활동은 풍물놀이, 소고춤, 탈춤, 제기차기, 줄넘기, 널뛰기 등 우리전통민속놀이 마당으로 펼쳐져 우리 전통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제공으로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수준 높은 공연 관람으로 문화적 감성을 키우는 체험의 장이 되었다.



## 기획특집

- 우리 제례문화 다시 보기
- 문화행정의 방향
- 이성선 시인 시비(詩碑) 건립되다
- 김광수 화백 추모
- 5박6일간의 중국(中國) 문화답사
- 2박3일간의 일본 문화체험
- 유정충 선장이 남긴 위대한 유산
- 故 劉禎忠 船長의 銅像을 對接하자
- 지역문화의 자생력과 경쟁력
- 중국, 다양성과 정체성의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 지방정부간 상호협력의 길
- 속초에서, 원산에서, 동해안 길을 오가며…
- 雪嶽山 國立公園 管理의 現況

## 우리 제례문화 다시 보기

이 만 식

경동대학교 교수 / 시인 / 필명 李夏



우리의 제례 문화는 그 가치나 진정한 의미를 검증 받기 전에, 미신이다. 가정의례 준칙으로 정비되어야 할 허례다, 구태의연한 양반 상놈하는 문화의 잔재다 하는 오해가 많았고, 핵가족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 점차 소홀히 하는 문화가 되고 있다. 이 글도 고리삭은 문화 운운하는 것쯤으로 여겨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진정 그 가치를 탐구하여 알고 나면 소중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만큼 우리는 후세에게 적어도 우리 문화에 대하여 편견없는 실체를 일러줄 의무가 있다 하겠다.

### 1. 몇 가지 단상

몇 해 전에 추석과 설날 풍경을 소재로 “명절의 사회 문화적 가치”를 논하는 글을 쓴 적이 있다. 요지는 매번 이천만여 명에서 삼천만여 명 내외로 흡사 연어떼 회귀하듯 본능적인 구성길에 들어서고, 이에 따른 소위 귀성교통전쟁이라 할만 큼 사회적 문제가 많고 이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 등에 따른 연휴 개선의 목소리가 있지만 쉽게 동의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다.

오히려 필자는 이삼백 년 뒤에도 공중 정체까지 빚어지는 귀성 전쟁이라는 표현이 살아있을 때 한국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상징적인 한 단면이라도 살아있다 여기고 나의 영혼은 기쁠 것이라 했다. 어느 명절, 마을에서 가장 일찍 불끄는 창을 지닌 부모님

이 되게 한다는 것은 편의주의적 관행에 물들은 자식들의 더없는 불효요 스스로의 욕됨이라 했다. 효행은 외로움을 덜어주는 아주 작은 기쁨에서부터 있고 명절 문화의 계승은 봉건시대로의 회귀가 아니라 휴머니즘 그 자체라는 거였다. 덧붙여 한 나라의 문화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올곧게 간직하는 일이며 더욱이 경제적 잣대로 저울질하여 존폐를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였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서구화된 의식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젊은이들은 더욱 그러하다. 우리 문화에 대하여 그저 과거 회귀적인 기성 의식이나 국수주의적인 보수 정도로 여기는 철부지들도 있는 게 사실이다.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인심이 말랐다 하나, 아직 명절 때면 온 동네가 한 가족처럼 반기고 즐긴다. 평화와 사랑이 집집마다

다 골목마다 동리마다 넘쳐흐른다. 차례를 지내고 이웃 어른도 찾아뵙는다. 동창도 만나고 일가 친지에게 문안 인사도 한다. 거기에는 회귀 본능보다 훨씬 원형적인 민족 문화의 유전인자가 존재한다. 그런대로 아직 명절은 복잡한 현대 문명 생활과 짜든 사회생활에 일정한 휴식기를 제공하는 기능 까지 지니고 있어 잘 지켜지고 보존되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 보면 명절은 생활문화의 원형을 더 이상 손실되지 않게 하는 마지막 보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 손실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생활 문화 중 그 가치를 재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들 중에서 가장 우선 순위에 두고 소중히 보존해야 할 문화는 어떤 문화일까? 여기에서 필자는 우리의 제례 문화를 단연 으뜸으로 여긴다. 왜냐면 우리의 제례 문화는 그 가치나 진정한 의미를 검증 받기 전에, 미신이다. 가정의례 준칙으로 정비되어야 할 허례다. 구태의연한 양반 상놈 하는 문화의 잔재다 하는 오해가 많았고, 학가족화에 영향을 많이 받아 점차 소홀히 하는 문화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도 고리삭은 문화 운운하는 것쯤으로 여겨질지 모르겠다. 그러나 진정 그 가치를 탐구하여 알고 나면 소중하지 아니한 것이 없는 만큼 우리는 후세에게 적어도 우리 문화에 대하여 편견 없는 실체를 일러줄 의무가 있다 하겠다.

## 2. 제사의 현대적 가치

(1) 조상이 베풀는 것은 도깨비보다 한步 아래다.

제사는 왜 지내는 걸까?

제의를 서양적 관점에서 동양문화를 해석 할 때 다분히 주술적 기능을 많이 내포하고 있어 우리의 조상 제례 또한 근대에 들어와서 그렇게 오해된 적이 많았다. 한국의 조상 제례는 샤머니즘이나 토템 또는 우상신에 대한 제례와 성격 자체가 다르다. 우상의 신과 조상신의 근본적 차이는 기적을 수행하는 능력에서부터 다르기 때문이다. 우상신은 기적을 일으키지만 우리 조상신은 조물주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 조상신이 내리는 복이란 후손들의 인과에 의한 발복이지 숭배에 의한 기적의 부여가 아닌 것이다.

우리나라 설화에서 기적을 행하는 부분은 모두 조상이 아닌 신의 영역으로 행한다. 말하자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주는 것은 산신령이나 옥황상제 또는 용왕 등이다. 하다못해 도깨비라도 뚝딱 금은보화를 쏟게 하지만 우리 조상신은 그럴 능력이 없다. 그러기에 흔히 대하는 이야기 중의 하나가 혼몽을 통한 사건들이다. 가령 꿈에 나타나 산삼 있는 곳이나 알려 주는 따위다. 없는 산삼을 만들어 낸 기적이 아닌 것이다.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얻는 범주 또는 개연성이 있는 신적 능력을 보여 줄 뿐이다. 그러므로 조상 제례는 우상숭배가 아니요 기적적인 발복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조상에 대한 제사는 어떠한 행위인가? 인간은 애초 신으로부터 혼을 받았지만 그 혼은 부모의 몸에서 길러져 생명이 되어 탄생하고 양육되었다. 따라서 나를 낳으신 부모와 또 그 위의 부모에게 감사하고 은혜를 되새기는 보본감은報本感恩의 사상에서 비롯된다. 말하자면 공경하고 봉양하고자 하는 효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것은 우리민족의 휴머니즘의 출발이요 근본이었다. 이십여 년 전부터 천주교에서는 이러

한 조상 제례를 미풍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다. 기독교에서도 단선적인 배격화에서 벗어나 추도식이나 기도조찬 등 고유성과 종교적 의례가 융합된 형태로 의례화 되고 있다. 이 모두 전통 문화의 바른 이해와 참된 해석의 결과로 나타난 바람직한 예라 하겠다.

## (2) 6촌이 거의 사라진다

그러한 제사도 옛날과 같지 아니하다.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전승이 소홀해지고 편의주의에 의해 잘못 변형되고 사라지고 있는 처지이다. 제사란 전통계승적인 문화로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적인 의미에서도 제사가 제공하는 시간과 공간의 가치는 매우 크다. 요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6촌 형제의 이름을 다 알거나 안면 있는 친분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보면 의외로 심각하다. 매년 계촌법 강의를 하면서 알아보면 해마다 그 수가 늘어 4, 5년 전 50% 내외에서 이제는 85% 내외의 학생이 6촌 형제가 있음에도 그들을 모른다. 증조부의 직계 자손끼리 안면조차 없다니 소위 50년대 사변동이들은 그 자손들에게 어떠한 문화유산의 가치와 가문 정신을 물려주고 있는지를 곰곰이 돌아볼 때가 된 것이다.

현대에서 드물게 행하는 시제나 묘제 등을 제외한 최소한의 제례 참여가 존중되었더라도 그 6촌 형제자매는 증조부와 증조모의 기제사, 설날과 추석 차례로써 일년에 네 번은 상봉했을 것이다. 사촌이라면 조부, 조모까지 6번은 만날 것이다. 만약 서로 떨어진 원거리라면 적어도 일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가능한 일이기에 무성의와 계으름에 원인이 있는 것이지 달리 이유가 있다

면 궁핍할 것이다. 제사는 근본적으로는 보본감은의 의식에서 행해지는 하나의 형식적 의례이지만, 이외에도 사회적 의미나 가족사에서도 실로 그 의의는 커던 것이다.

## (3) 가문의식을 키우는 교육의 장 이었다

제사의 가치는 이렇게 제사라는 매개를 통해 혈연을 확인하고 가족 공동체의 유대와 존속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그 첫째가 된다. 지금은 핵가족화되어 친족이 많지 아니하다. 그럴수록 친족 유대는 귀한 가치를 지닌다. 물질에 종속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의 가족의 유대는 사회로부터의 소외를 차단하는 것이요, 인간애를 확산시키는 일이다.

둘째, 제사를 계기로 해서 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문중질서門中秩序와 교류단결交流團結을 확립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이것이 때로 일시 배타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바 있으나 문중화목門中和睦과 상부상조相扶相助라는 내적인 가치로 발전한 바가 오히려 크다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어린 종손이지만 종부를 중심으로 한 가문지도자로서 그 권위가 존중되고 종가宗家를 구심점으로 합치合致되는 모습을 아직은 많이 볼 수 있다. 또 제사가 든 날 친지가 모여 서로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와주는 계기가 마련될 뿐만 아니라 위선사업(爲先事業: 가문과 선조를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동기가 되는 자리이기도 했다.

셋째, 가문의식家門意識과 조상보우祖上保佑의 의식이 생성되고 정립되는 자리였다. 자정이 될 때까지 아녀자는 아녀자끼리, 사랑에서는 남자끼리 친지 얘기와 살아가는 얘기로 이야기꽃을 피운다. 거기에는 매년 반복되는 웃어른의 조상 자랑은 빼지

지 않는 단골 이야기 보따리다. 졸면서 지루해 하면서 때로는 총총한 눈빛으로 행적과 일화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가문에 대한 궁지와 자부심이 형성되어 간다. 궁정적인 가문의식 家門意識이 자리잡음으로써 가문의 명예를 존중할 줄 알게 되는 것이다. 절대 올바른 가문의식은 배타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가문에 대한 경애 敬愛이며 이로 인한 타인에 대한 존중의 예禮가 존재할 뿐이다.

또한 조상보우는 이러한 의무와 책무를 지킬 줄 아는 자에게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상은 무조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는 존재이니 스스로 경계하고 자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는 사회생활에서 바른 인간 생활을 영위케 하였고 견인차가 되게 하였다. 이것이 나아가 나라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고 그것은 홀륭한 유품으로 또 계승되어 가문의 영예로 이어졌던 것이다.

넷째, 제사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우리의 사상과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수 천년 전통의 민족문화유산이다. 그것을 우리 세대는 잘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 3. 알고 보면 뜻이 있는 제례 의식

우리의 제례는 비록 《주자가례》가 기준이 되어 정립되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우리 생활 문화가 융합되어 있다. 좋은 예로 차례 茶禮를 들 수 있겠다. 차례의 어원은 여럿 해석되나 “차茶를 올리는 예禮”로 사전적인 풀이 할 수 있겠는데, 중국에서는 보름날 사당 참례 參禮를 행할 때 차茶를 올림

으로 이와 관련된 어원을 우선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자연수가 좋았던 우리나라는 생수를 데우는 정도였던 승능이면 그만이었으므로 실제로 차를 올리지는 않는다. 실제로 제사 말미에 진다進茶라 하여 차를 올리는 순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차대신 승능을 올린다. 국을 내보내고 물을 올리면서 밥을 조금씩 세 번 맬아 놓는데 이는 승능을 뜻하는 우리 민습이 반영된 것이다.

우리 문화에 대하여 옛날과 같이 맹목적인 계승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왔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전통이야”하는 방식은 이제는 곤란하다. 우리 문화의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그 가치나 의미를 일깨우면 왜곡되거나 소홀하지 않게 전승될 것이며 더욱 창조적인 발전을 할 것이다. 요즘 젊은 세대는 무조건적인 답습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고 과거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는 사고가 강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더 중요하게 경계해야 할 것은 전통이라면 고루한, 비합리적인, 더나아가 현대사회와 국제화로의 발전에 저해되는 폐단쯤으로 인식하는 태도이다. 정작 그렇게 보는 이들이 추종하다시피 하는 서구는 자기네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고수하고 세계화된 문화상품으로까지 수출하고 발전시키는데 말이다.

앞서 제사의 현대적 기능과 의의를 살펴본 바와 같이 기적을 바라는 발복이 아닌 보본감은의 효행의 하나인 제사가 주는 공간적 시간적 의미를 새기면 참으로 홀륭한 문화유산임을 재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잘못 알고 있었던 몇 가지 사실도 알고 나면 더욱 그러한 생각이 들 것이다.

#### (1) 제사는 왜 자정에 지내나?

차례는 명절제로 아침에 지낸다. 밝으니 제사상에 촉대燭臺를 두지 않는다. 돌아가신 날 지내는 기제사忌祭祀는 자정에 지내니 촛불을 켠다. 이 또한 현실적인 의례임을 알 수 있다.

사실 제사는 첫닭이 울기 전에 지내면 되므로 자정 정각에 지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공경정성恭敬精誠의 태도 때문에 자정 정각(현대 시각으로 24:00)이 되면 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성의 극치에서 나온 것이다. 만약 저녁에 지낸다면 어떨까? 출근해서 돌아오면 피곤하다. 하루 종일 보기 좋지 않은 것도 볼 수 있다. 또 거슬리는 얘기도 듣겠고 말하기도 할 것이며, 자신이 요기할 것은 다 할 것이다. 그런 후에 조상을 대접한다는 것은 정성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가장 정갈한 몸과 마음으로 조상님부터 맞이하려고 하다보니 돌아가신 첫 시각에 봉행하게 된 것이다. 어찌 공경과 정성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농경 생활과는 달리 현대 직장 생활에서는 자정에 지내는 것이 불편하기도 하다. 보통 시간을 앞 당겨 늦은 저녁 정도에 지내고 내일을 위함도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전통은 현실화된 변화가 예견된다. 그러나 한번쯤 정신적 가치가 충분한 것은 의도적으로 준수하여 그 문화를 유지시킬 필요도 있다.

만약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저녁에 제사를 모신다면 유념해야 할 것은 자칫 기일 전날(입제일, 入祭日)에 지내는 것은 아닌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 즉 기일(파제일, 罷祭日)에 지내야하므로, 당겨서 지낸다는 것이 그만 돌아가시기 전날 곧 살아 계신 날을 제삿날로 행한 것이니 불경이라 하겠다. 요즘 흔히

대하는 오류이기도 하므로 기일을 잘 따져 알아보고 봉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편리함을 추구하여 자정 제사를 기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정성의 옛 뜻도 새기고 가족이 모여 오순도순 부족한 대화도 나누고, 가문의 업적이나 뿌리를 알아보는 2세 교육과 더불어 화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는 그만한 가족 행사도 없을 것이다.

### (2) 여자는 제사에 참석 못한다?

결론적으로 옛 문헌이나 가르침에 여자가 제사에 불참한다는 사실은 없다. 전통이 왜곡된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제사의 경우 장자의 첫 잔 드리기(초헌) 후, 둘째 잔 드리기인 아현亞獻은 맘며느리가 드리는 잔이므로 오히려 위상을 인정하고 있다. 부부공체夫婦共祭가 예로부터 올바른 전통이었다. 그렇다면 왜 잘못 알려졌을까? 원형적 의미는 사라지고 현상만 남아 잘못 전승되고 해석되어졌기 때문이다. 퇴계 이황 선생의 말을 빌어 그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퇴계 선생은 경敬을 매우 중요시한 성리학자이니 만큼 예를 소중하게 여겼는데 형식적인 예를 배격하기도 한 분이다. 그는 “제수를 마련하는데 분주하여 부엌에 있다하더라도 제사에 참여한 것과 마찬가지이니 편한 대로 하라” 한 바 있는데 이는 번거로움을 감안하고 정성에 초점을 둔 가르침이었다. 그런데 언젠가 이러한 의미는 잊혀지고 점차 여자가 참여하지 않은 현상만 남아 “여자는 제사에 참석하지 않더라”라고 무지하게 해석하여 전승되어진 것이라 하겠다.

### (3) 여자는 왜 4번 절할까?

제례에서 남자는 2번 절하지만 여자는 4

번 절한다. 간혹 이를 두고 남녀불평등 차원으로 이해하는 짚은이들이 있다. 절의 수는 성리학의 음양陰陽 원리에 따른 것일 뿐이다. 남녀로 볼 때 남자는 양(홀수)이며, 여자는 음(짝수)이다. 그리고 조상은 이승에 있지 아니하니 음(짝수)이다. 그러하니 남자는 양(1)이 음(2)에 배례하니 2가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2)이 음(2)에게 배례하는 것이니 4가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음양의 원리가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준 사상이니 일리 있는 일이었다. 현대에는 사라진 것으로 보여져 굳이 지키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그러한 전통의 의미를 바로 새겨 알아보지 않고 스스로 가치를 평가 절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 (4) 의미를 부여하기 좋아한 조상의 지혜

제사장에 올리는 것은 대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우리 선조들이 사물 하나에도 생명 또는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한 모양이다.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이 지녀온 만물상 生萬物相生의 태도는 비생명체까지도 애정이나 의인擬人 의식이 있었는데 이러한 의식이 더욱 상징성을 찾게 했는지도 모르겠다.

제사장에 올리는 과일에도 다 뜻을 두었는데 사실에 근거하여 그렇게 쓰여지기 시작한 파일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혼한 천산물에 그 의미를 역으로 불인 것이 아닌가도 한다. 아무튼 파일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일러주면서 상차림(진설)해 보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겠다.

· 대추(조, 椸) : 자손의 번창함을 뜻한다고 한다. 암수 한 몸의 나무이고 꽃이 편 곳에 반드시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 풍성하니 다산多產을 상징할 만하다. 또 일설에는 씨

가 하나인 통씨여서 절개를 뜻하거나 한 혈통을 의미한다 하기도 한다. 민속적으로는 사악함도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 밤(율, 栗) : 밤나무는 다 자라고 난 뒤에도 뿌리에는 그 씨를 매달고 있다 한다. 처음 싹을 틔웠던 밤풀이 그대로 남아있으니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근본에 대한 은혜를 간직하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 배(이, 梨) : 오행에서 황색은 우주의 중심을 나타내고 있고 배의 속살이 밝고 희므로 배달, 백의 민족을 뜻하는 것이라는 설이 있다.

· 감(시, 柿) : 감나무는 감이 열린 나무는 나무 중심에 검은 신이 있고, 열매가 한번도 열리지 않은 나무를 꺾어 보면 속에 검은 신이 없으므로, 자식 양육의 고통을 상징한다 한다. 속이 다탄다라는 말이 있듯 부모의 고생이 이러하니 은혜를 잊지 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가문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어느 가문은 씨의 수로 보아 의미를 찾기도 한다. 대추는 씨가 하나이자 열매에 비해 그 씨가 크므로 왕을 상징하고, 밤은 한 송이에 씨알이 세틀이니 삼정승을, 배는 씨가 6개로 육판서를, 감은 씨가 8개이니 여덟 방백(方伯, 관찰사)을 의미한다고 풀이한다.

또 빠지지 않는 제수로 포가 있는데 명태(북어포)는 동해안 북쪽(북망산천)에 있는 어물이고 알도 많아 자손이 흥성하여 쓴다 하기도 하며, 조기는 서해안에서 나는 대표적인 어물이고 예전부터 비린내 없는 생선의 으뜸으로 생각하여 왔기 때문에 젯상에 귀하게 올리는 제수 품목으로 여겨져 왔다.

근거가 어떻듯 사물 하나라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의의를 두었던 선조의 지혜를 보는 듯하다. 덧붙여 알아둘 것은 모사茅沙

그릇도 산소의 형상을 본뜬 상징적으로 제구라는 점이다. 우리는 흔히 향을 혼령을 모셔오는 수단으로 여기지만 절이나 성당과 마찬가지로 경건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정갈한 환경을 조성하려한 것뿐이다. 제사 처음에 행하는 신령내림 즉 강신降神이라는 절차(홀기, 笏記)가 있다. 집사가 잔에 술을 따르면, 제주는 술을 세번 나누어 모사(茅沙 : 깨끗한 흙이나 모래 위에 풀을 묶어 꽂은 그릇)위에 잔을 비우고 제주는 두 번 절하고 물러서는데 이것이 혼령을 모시는 것 이지 향을 피움으로써 모시는 것은 아니다. 모사는 산소를 의미하는데 흙이 있고 풀이 있는 이유가 이를 상징한 것이다. 술을 붓는 것은 제를 올리니 산소에서 나오셔서 지방(또는 신주나 영정)이 있는 자리로 오십시오라는 뜻인 셈이다.

#### 4. 생활과 같은 원리의 상차리기와 제례 순서

우리는 흔히 제사 상차림(진설)과 절차(홀기)가 번거롭고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허례허식의 요소가 많은 의식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제사의 근본적인 자세는,

첫째, '살아 계시듯 정성껏 모심'이며  
(공경정성, 恭敬精誠)

둘째, 분수에 맞게 가문의 관습을 중요시  
여기며(분수가가례, 分數家家禮)

셋째, 실생활에 근거를 둔다.

먼 타지에 계시다가 일년만에 오시는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계신다고 가정해보면 쉽게 이해된다. 아마 제대로 된 집안이라면, 집안을 깨끗이 하고 그날 가족들은 깔끔한 옷 차림으로, 정성이 깃든 맛있는 음식으로 온

가족이 할아버지를 맞이할 것이다. 바로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는 심신재계心身齊戒가 그것이요, 공경정성恭敬精誠이라 할 것이다.

예전에는 제사가 들면 각자의 집에서 제계(散齋)한 후 제주 집에서 3일전(致祭)에 모여 준비하되 고기, 술, 합방을 금하고, 하루 전(入祭)에는 특히 근신하였다. 시대가 변하여 그러하지 못함은 당연하나 그러한 마음가짐만은 본받아야 할 것이다. 설화에서 '개고기를 쓰는 집', '혈육군자라 하여 생고기를 쓰는 종가', '좌포우혜 아닌 우포를 쓰는 집', '밥 한 그릇 물 한 그릇의 제사', '무덤가에서 들은 며느리의 부정탄 제사' 등의 이야기는 집집마다 그 가문의 풍습을 중요시 여겨 제례의 기준으로 삼고 분수에 맞게 정성껏 하라 하는 우리 조상의 융통성과 실용적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복잡하다고 여기는 제사상 차림도 가가례 家家禮이므로 가문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은 대체로 이와 같은 산자의 생활 원리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상차림(진설)에서 앞뒤의 줄을 보면, 이는 우리의 현재 식탁 차림과 같은 상차림임을 알 수 있다. 이를꼭 선생의 격몽 요결에 따라 배치하면 줄로는 5열인데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신주 쪽을 1열로 보면) 1열은 밥과 국(술잔, 수저), 2열은 가장 맛있고 귀한 것(고기류, 특별식), 3열은 가운데 두는 찌개 (제사는 탕), 4열은 식사 반찬(나물, 김치, 간장 등), 5열의 후식(과일과 다과)이 그것이다.

다음으로 좌우인데 단 하나의 원칙을 기억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곧 '습동건서濕東乾西' 또는 '습우건좌濕右乾左' 곧 젖은 것은 동쪽(후손 쪽에서 오른 쪽), 마른 것은

서쪽(왼쪽)이라는 것이다. 원래 전통습서이지만 이는 신주(조상의 자리)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사 올리는 이(제주) 위치에서의 상차림으로 말한 것이다. 이것만 알면 굳이 어려운 한자 숙어로 음식(제수) 위치를 다 외우지 않아도 상차림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가령 1열의 반서갱동飯西羹東은 밥(메)은 원쪽에 국(갱)은 오른쪽에 두라는 것인데 국이 밥보다 습한 것이므로 오른쪽(습동 또는 습우)에서 두면 되는 것이다. 또 2열의 어동육서(魚東肉西 : 어류는 동쪽에 고기는 서쪽에 둔다)에서 어류는 육지 고기보다 습하므로 동쪽 곧 오른 쪽에 두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 3열의 당도 2열의 원리로 두면 되고, 4열의 원리인 좌포우혜(左脯右醯 : 포는 좌측에 식혜는 우측에 둔다)도 식혜가 습한 것이므로 습동(습우)으로 두면 되는 것이다. 또 생동숙서(生東熟西 : 물김치 같이 익히지 않은 것은 동쪽에, 익힌 나물은 서쪽에 둔다)도 물김치가 익힌 나물보다 습한 것임을 알면 어디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5열의 과일은 조율이시(棗栗梨柿 - 대추, 밤, 배, 감)와 같이 씨의 숫자 차례로, 또는 홍동백서(紅東白西-밤, 배, 감, 대추)와 같이 색채의 순서로 놓아 일종에 질서를 추구한 셈이다.

이상의 일정한 원칙이 있음을 알면 복잡한 상차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제사 지내는 순서도 앞서 말한 바와 같이면 타지에 계시다가 일년만에 오시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모신다고 생각하면 그 순서가 같음을 알 수 있다.

① 자리를 펴드린다.

(신주나 지방 봉안) - 出主(출주)

② 여기 오셔서 앉으십시오.

(장남 대표 인사, 신내리기) - 降神(강신)

③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합동 참배) - 參神(참신)

④ 진짓상을 차립니다.

(더운 음식 올리기) - 進饌(진찬)

⑤ 먼저 반주 한 잔 드시고 맛있는 안주도 드셔 보세요. (술 드리기) - 獻爵(헌작)

⑥ 이제 진지 드십시오. 저희가 보고 있으면 불편하실 테니 자실 동안 저희는 잠시 물러날 테니 편히 드십시오.

(식사 권유) - 侑食(유식) 및 閣門(합문)

⑦ 다 드셨군요. 수저를 걷겠습니다

(수저걷기) - 落櫈(낙저)

⑧ 숭늉 드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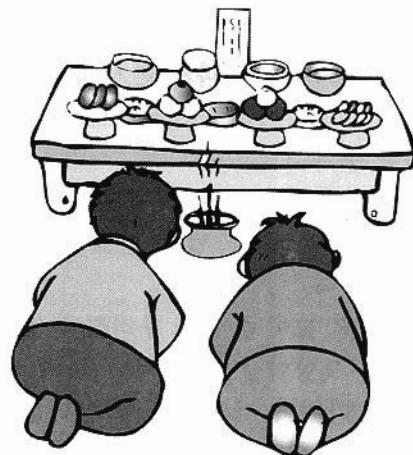
(숭늉 올리기) - 進茶(진다)

⑨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합동 작별 인사) - 辭神(사신)

⑩ 자리를 걷고(신주 들여 모시거나 지방은 소작) - 徹(철), 納主(납주) 또는 焚祝(분축)

⑪ 조상이 딥례로 음식에 넣어둔 작은 복을 나눈다. - 飲福(음복)



## 5. ‘고맙습니다’라는 우리 문화

이상으로 점차 그 가치를 상실해 가는 제례 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여러 면면을 살펴보았다. 제례는 감사하고 은혜를 되새기는 보본감은의 사상 곧 공경하고 봉양하고자 하는 효孝 사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앞서 강조하였다. 우리 민족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하늘과 국가, 그리고 이웃과 부모에게 감사드린는데 인색하지 않았고 깊이 의식화되어 융의 이론대로 민족의 집단무의식으로 유전되어 왔다. 제례는 이러한 감사와 보답의 표현적 행위인 것이다.

몇 년 전 추석 때의 일이다. 필자에게는 한국인의 원형적인 정신이 남아 있음을 깨우치게 한 일이 있었다. 추석 전날, 모친과 옆집 우물댁 안어른과 농협에서 추석 찬거리와 잡화 몇 가지를 사서 돌아오던 중이었다. 농협에서 집으로 오는 중간에 동네 버스정류장이 있었다. 완행이나 직행버스가 서면 구성하는 이들이 한 무리로 내렸고, 마중을 오거나 지나가던 고향 사람들은 서로 인사가 바빴다. 으레 두 노모도 발길을 멈추고 저 사람은 누구네 새댁이고 손주고, 누구네의 누구를 거듭하다가 어느 중년의 가족을 보고는 매우 놀라워하며 들고 있던 짐마저 내려놓고는 바빠 반기는 것이었다.

“아이고 고맙니더, 고맙니더. 우에 이렇게 고마울 수가”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두 안어른은 그 중년의 두 손을 덤석 잡고는 더없이 기쁘게 반겼다.

‘아, 어떤 고마운 일을 우리집과 옆집에 해준 분인 모양이구나’ 생각을 하며 나도 다가갔다. 가까이 가보니 큰형보다 두서너 살 위인 이웃형이었다.

“몰라보겠네. 20년이 다 되었군. 참 반갑네”, “그러네요. 반갑습니다. 형님.”

집으로 돌아와 생각해보니 고맙다고 한 일이 궁금했다.

“아까 그 형에게 신세진 일이 있어요? 연신 고맙다고 해서요”

모친은 도리어 묻는 게 이상하다는 듯이 대답하신다.

“고맙지야. 암에 걸려 죽을 둥하다가 한 십년 만에 고향에 왔데이. 병 나아 고향에 오니 고맙지. 안 죽고 살았으니 고맙지 안그러나?”

아, 이것이였구나 했다. 내 자식도 아닌 사람을 그것도 ‘반갑다’가 아닌 ‘고맙다’로 승화된 인정미가 우리의 원형적 민족성이었음을 새삼 깨달았던 것이다. 말하자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의 뿌리를 본 것이다. 유교이념으로 정착하기 전부터 우리 민족은 ‘仁’(사람 인 + 둘 이 = 우리)의 민족이었다. 오천 년 이상 간직해온 ‘함께, 더불어 있는 사람’, 아니 ‘너를 나처럼 여기는’ 민족 정신의 유전인자를 대했던 기쁨과 감동을 나는 아직 잊을 수가 없다.

과연 이러한 깨달음이 학교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까? 세계화로 경도된 지금의 생활에서 어떤 기회를 통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무형의 가치를 알 수 있을까? 제례문화의 진정한 가치도 이 글로써 일깨우기에는 턱 없다. 오히려 이삼 년에 한번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종백숙택에 들러 증조부 기제사에 참석해보면 남다른 문화 교육이 될 터이고, 더 없는 가정교육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 문화행정의 방향

최재도 / 극작가



우리의 문화행정은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담세자<sup>擔稅者</sup>인 문화향수자의 이익이 궁극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비록 우리가 변방에 살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한다 하더라도, 문화적 불이익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다.  
질 높은 삶의 양태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곧 문화 기반 시설 구축과 문화전달 환경 개선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흔히 문화주체자를 구분할 때 문화창출 세력과 문화전달세력, 그리고 문화향수<sup>享</sup>受세력으로 나눈다. 이는 경제학에서 경제주체 분류방식을 원용<sup>遠用</sup>한 것이다. 가령 어떤 소설가가 소설을 창작한다면 그것은 문화창출행위였으며, 이를 출판하고 판매하는 것은 문화전달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을 최종적으로 읽는 독자는 문화향수자에 해당된다.

문화창출세력이라 함은, 예술가나 종교가·학자 등 각 문화분야의 구체적 제작자들을 말한다. 이들은 자신의 창출행위가 곧 자신의 생존을 뜻하므로, 스스로 존립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진다. 게다가 이들은 이런 창출행위가 자기완성도에의 과정이며 자기 가치관의 실현이어서, 그

추구를 잠시도 멈추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의 해위는 때로 사적<sup>私的</sup> 목적으로 머물 때도 있는 데다, 스스로 간섭을 거부하기도 하기 때문에 행정의 지나친 관심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자생력의 빈약한 때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고, 시장원리에만 의존할 경우 악화가 양화를 구축<sup>驅逐</sup>하여 퇴폐문화만이 잔존하고 고급문화가 소멸할 우려도 있을 것이므로, 이의 성장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보는 정책적 배려가 배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문화전달세력이라 함은, 문화창출자와 문화향수자 사이를 연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자를 말한다. 각종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비롯해, 문화원·도서관·극

장·서점·교회·학교·언론사 등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 이들 세력 역시 시장원리에 의해 그 수급이 조절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시설이나 규모가 개인이나 영리 단체들만의 부담으로 조성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는 마치 경제학에서 말하는 '사회간접 자본'과도 같아서, 문화복지의 기초가 되는 자산資產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실 이미 이 개념 속에는 "문화간접자본"이 설정되어 있다. 흔히 사회간접자본은, 도로나 항만 같은 '산업 사회자본', 치산이나 치수 등의 '국토 보전 사회자본', 그리고 공원이나 상하수도와 같은 '생활 기반 사회자본' 등으로 나누는데, 바로 이 마지막 항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문화간접자본이라 할 만하다. 말하자면 사회교육 시설이나 사회체육 시설, 그밖에 여가를 즐길만한 여러 시설들이 모두 이에 해당되고, 이것은 그대로 문화 전달세력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문화향수세력이라 함은 문화를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자를 일컬으니, 곧 우리 일반 대중을 뜻한다. 이들은 좀더 높은 수준의 삶을 추구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그런 욕구는 날이 갈수록 증대될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원은 이들로부터 염출된 것이므로 그 집행에 있어서도 이들의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들은 자신들의 혈세가 자신들의 욕구 충족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을 것이므로, 문화복지 비용을 집행함에도 이런 현실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문화행정이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문화간접자본이라 할 수 있는 문화 전달세력의 기능 확보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복지의 시혜를 고루 분배하기 위해서는 전달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또한 이로써 문화창출자의 창작 의욕을 공적公的으로 지지할 수 있고, 문화향수자의 수요 욕구를 진취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우리가 문화원이나 도서관 같은 사회교육기관의 시설과 기능을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회체육시설이나 여가 공간 등 문화기반 시설도, 도로나 항만과 같은 사회자본의 일종임이 이해되어져야 한다.

우리의 문화행정은 미래지향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담세자擔稅者인 문화향수자의 이익이 궁극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비록 우리가 변방에 살고 있어 경제적 불이익은 어쩔 수 없이 감수한다 하더라도, 문화적 불이익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다. 질 높은 삶의 양태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곧 문화 기반 시설 구축과 문화전달 환경 개선에 모든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한다.

## 이성선 시인 시비(詩碑) 건립되다 설악, 그 ‘빈 산이 젖고 있다’

2001년 5월 4일 ‘설악의 시인’이라 불리던 이성선 선생이 느닷없이 타계했다.

그의 돌연사突然死는 한국 문단文壇과 향토문화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의 원숙한 창작 능력이 더욱 빛을 발하려는 찰나였기에 그의 죽음은 그야말로 큰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진 격이었다. 개인적으로 문학적 완성도가 더욱 깊어지고 사회적으로 한국문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던 이들로서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다.

이성선 시인은 1941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256번지에서 태어나 속초에서 중, 고등학교를 다녔다.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뒤 교직에 봉직하면서 1970년 ‘문화비평’을 통해 등단했다. 그는 첫 시집 ‘시인의 병풍’을 비롯해 ‘우주가 내 몸에 손을 얹었다’에 이르기까지 13권의 시집과 ‘빈 산이 젖고 있다’는 시선집 1권, 공동시집 4권 등 총 18권의 시집을 상재했다.

강원도 문화상(1988), 한국시인협회상(1990), 정지용 문학상(1994), 시와 시학상(1996) 등의 주요 문학상을 수상하며 한국 문단의 거목으로 성장했다. 특히 말년엔 이른바 ‘선시禪詩’라는 독특한 시풍을 개척

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의 타계 직후 그를 추모하는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렸다. 이 중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이들이, ‘시사랑 문화인협의회’라는 문학단체와 조오현 회주스님이 이끄는 ‘백담사’였다. 이들 두 단체는 각기 한국문단과 향토문화계를 대표해 잇달아 이성선 추모 운동을 주도했다.

‘시사랑 문화인협의회’는 이성선 시인이 사망한 지 한 달 만인 6월 5일 시인의 모교인 고려대학교의 한 소강당에서 추모문학제를 개최했다. 이 문학제에는 그를 아끼는 저명 문인 300여명이 모였다. 원로 시인에서 짧은 비평가에 이르기까지 한국 문단을 이끄는 중추세력들은 빠짐없이 참석했다. 이들은 차례로 연단에 올라 이성선 시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문학세계를 심도 있게 논했다. 이성선과 함께 했던 순간들은 끝없이 추억했고, 이제 이성선과 시간을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했다. 그 자리에 모인 한국 문단 대가大家들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속초’ 혹은 ‘설악’이라는 술어가 튀어나왔다. 이성선이 머물던 설악의 설경은 저들에게 환상의 나라였으며, 이성선과 같이 나누어 먹던 동해의 생선회는

## 미시령 노을

나뭇잎 하나가  
아무 기척도 없이 어깨에  
툭 내려앉는다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  
너무 가볍다

## 산시(山詩) 30번

나 죽어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해도  
저 물 속에는  
산그림다가 여전히  
혼자 뜰 것이다

### 시비 I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城堡里/일명 동루골]  
생가터 땅에 세워져 있는 시비 전문

### 시비 II

인제군 소재 '백담사[百潭寺]' 경내에  
세워져 있는 시비 전문

그대로 신선세계 음식이었다. 더 이상 환상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로 바꿔어 있었던 것이다. 이성선은 자신에게 뼈와 살을 준 이 마을을 환상과 신선의 도시로 탈바꿈시켜 버렸던 것이다.

그가 하늘로 되돌아간 지 49일째 되는 날 그의 지인知人們은 모두 백담사에 모였다. 49재를 지내며 그의 세계를 또다시 논했다. 문단 저명 인사들과 지역 유력 인사들이 한 자리에 앉아, 이성선 시인의 평소 행적과 문학적 실적을 나열하며 그의 죽음을 추모했다. 몸은 지상에 묶여 있었지만 영혼은 늘 밤하늘 별밭에 헤매던 이성선은, 이때 비로소 솜털처럼 가벼워져 영육이 함께 별이 될 수 있었다.

조오현 회주 스님은 그 얼마 후 백담사 땅에다 이성선의 시비詩碑를 세웠다. 십시일반 모금으로 건립기금을 조성해 그의 영혼을 돌에다 새겨 영구히 남기자는 최동호, 정진규, 오세영 등 지인들의 결의를 이 날 실천한 것이다. 이성선과 한평생 교분을 나

누었던 최명길 시인을 비롯해 이 자리에 모인 50여명의 시인들은, "이성선 시인은 우주와 인간과의 친호를 오묘한 시적 상상력으로 평상화해 한국 서정시의 뛰어난 전범을 보여줬다"며 "경향 각지의 시인과 문우들이 그를 잊은 슬픔을 이제야 겨우 진정하고 시인의 숨결이 새삼 들려올 듯한 고향 땅에 가없는 추모의 정을 둘에 새겨 세운다"고 추모했다.

1941년 바로 그 자리에서 태어난 이성선 시인은 그처럼 주위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60년동안 가꾸어 온 영혼을 이끌고 다시 하늘문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성선의 육신이 떠난 빈 설악은 그를 그리는 사람들의 눈물로 다시금 젖고 있다.

글 / 최재도 / 극작가

# 김광수 화백 추모

## 산과 바다와 빛나는 햇살 그리고 그리움의 화백

속초예총 2대 회장을 지낸 서양화가 김광수 화백이 지난 2월 19일 향년 81세로 별세하셨다. 지면으로나마 고인의 예술인생을 조망해 보고자 한다.

화백은 1921년 함경남도 함흥시 회상리에서 태어나 39년 함흥 금정 공립 소학교, 44년 4월 함흥 관립 사범학교 심상과를 졸업하고 평북 의주 초등학교 교원으로 발령 받게된다. 하지만 그해 12월 일본군에 강제 징집되어 중국 중지나 남통南通에 배속되어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이국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46년 고향 함흥에 도착하여 함흥영정 인민학교, 함흥 제4중학교 미술교원으로 생활을 하셨다. 현재 연극협회 박영미 지부장 모친이 후배 동료 교사로서 그 당시 영정 인민학교에서 함께 교편을 잡았다고 한다.

미술학업을 더하고자하여 48년 국립평양 미술대학 회화과에 재학 중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었고 영원히 헤어지리라곤 예상치 못했지만, 부인과 2명의 자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백은 당시 미련 없이 남행을 결심한다. 화백이 일본군에 강제 징집되어 중국전선에 참가하게된 것이 마치 자의로 일본군에 협력한 듯한 공산당의 눈치주기와 예술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련의 사

건들이 점차 체제의 환멸 등으로 이어져 당시 매우 괴로운 심정이였다고 늘 회상하였다. 50년 12월 국군 제1사단 보충병 모병으로 입대하여 국군수도사단 의무대, 정훈부등으로 배속되어 향로봉전투, 고성 월비산 전투,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등에 참가하여 또다시 죽음의 사선을 수차례 넘긴 후 52년 의병제대를 하였다.

남한에 혈혈단신으로 남하한지라 인맥의 부재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남측 미술 대학에 재취학하는 것을 포기하게 이른다. 대신 의병제대 후 57년까지 양구, 김해 등지에서 미군을 상대로 초상화를 그려주며 생계를 유지하게 되며 58년부터 서울에서의 작품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된다. 이시기에 박광진, 오승우, 이용환, 이마동 교수들과 교우하면서 함남미전, 신기회, 일요화가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이때 형성한 인맥들과 평생 예술 동지로서 친분을 쌓았다.

붓을 놓코 잠시 목제상을 경영하면서 거부의 꿈도 이뤄지는 듯 했으나 사업 실패로 본연의 미술의 길을 다시 걷게 되었고 하지만 어느 순간 고향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사무친 망향의 그리움으로 함흥과 비슷한 바닷가 도시 중 부산, 강릉, 속초를 염두

에 두었다고 한다. 결국 81년 속초에 이주할 것을 결심하고 속초에 정착, 미술학원을 경영하면서 후학 양성과 속초미술협회 활동을 하며 제2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당시 속초예술계는 예총은 물론 문화회관도 건립되기 이전이며, 미술협회도 중앙인준 직후라 어려움이 많았던 시기였다. 화백은 이때부터 94년까지 해외 미술계 스케치 여행을 통한 작품을 중심으로 2, 3, 4회 개인전을 개최하여 중앙화단의 흐름 등을 직간접적으로 소개하고 알리게 된다. 83년 학원연합회 초대 속초지부장, 일본아세아 현대미술전에 한국대표 단장으로 참가하였으며, 86년 미협 속초지부장에 피선되면서 속초미술 발전을 주도하게 된다. 이어 90년에는 제2대 예총속초 지부장을 역임하면서 영북최대의 순수예술제인 종합예술제를 정착시키고 청소년 및 지역민을 위한 문예 교양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지역민의 문예 욕구해소에 일조하며 무엇보다도 예술인권익신장과 화합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다.

90년 잠실 롯데미술관에서의 5회, 92년 아남프라자 개관 기념전인 6회, 95년 제7회 개인전을 개최하였으며, 97년 신기회 자문위원으로 추대되었다. 그간 수많은 미술 전람회의 수상 실적은 물론 향토문예 발전의 공로 등으로 1992년 제4회 속초시민문화상을 수여 받았고, 2000년 함남미술인

을 대표해서 통일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기에 이른다. 화백은 과란만장한 인생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평양에서 미술교육을 받은 이래 평생 화폭에서 손을 뗀 적이 없을 만큼 숙명처럼 예술을 향한 구도자적 자

세로 외길 인생만을 걸어왔다. 98년부터는 전립선암으로 병마와 싸우면서도 각종 전람회에 작품을 출품하며 세미나 참석, 금강산 스케치 여행 등 꾸준한 미술 활동은 물론 속초예총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예술인으로서의 품위와 후배 예술인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분이었다. 2000년 12월부터는 그간 문예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문예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원로문예인 복지지원 대상자로 전국에서 활동하는 수십만 예술인 중 당해년도 수혜 예술인 60명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위에 소개한 작품은 99년 금강산을 찾아 스케치를 작품화한 것으로 2001년 11월 한국현대 미술 신기회에 출품한 작품이다.

통일부에 이산가족 면회를 신청하며 북에 남겨둔 처자를 한번이라도 보았으면 하는 화백의 마지막 꿈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망향의 한을 품고 찾은 4번째이자 생의 마지막으로 찾은 북녘 금강산의 작품만은 말없이 남겨져 쓸쓸함을 더한다.

작품명은 『금강산 만물상 가는 길목』에서이다.

글 / 박종성 / 속초예총 사무국장

# 5박6일간의 중국(中國) 문화답사



장 은 선 / 속초문화원 간사

문화원을 발들인지도 11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다. 오래전에 문화원연합회의 간사들은 출근과 동시 퇴근 무렵까지 열심히 일만하는 여직원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만 요근래에 들어와 전국문화원연합회의 배려로 활발한 활동이 서서히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원장님의 배려로 국장님과 함께 타 문화원의 부러움을 사며 중국을 다녀올 수 있었다.

서울 언니 집에 하루먼저 도착하여 내일 출발할 기대에 부풀어 평소 뉴스나 신문에서 보던 역사 깊은 중국을 직접 발을 딛게 된다는 생각에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아침 일찍 서둘러 인천 공항 3층 9번 출입문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함께 떠날 연합회 회장님, 사무총장님과 사무국장님 등 40여명의 일행들이 인사를 나누게 되었다.

출발시간이 12시 20분이라 그 전에 환전, 티켓팅 등의 수속을 밟아야 했고, 우리 일행들은 서두르면서 차곡차곡 준비를 했다. 드디어 비행기에 오르게 되었고 잠시후 항공기가 이륙을 하면서 잠시나마 인천공항을 비롯, 서해의 맑은 물이 눈에 들어와 있었

다. 도시와 산, 바다가 작게 보이면서 구름 위로 올라 서 있는 모습은 신선의 모습까지 기억될 성노로 가슴 한구석을 죄게 만들었다. 오후 4시 10분경 비행기는 장춘공항에 도착을 하였다. 공항에 도착하면서 제일 먼저 본 것은 군사 전투용 비행기가 마치 진열해 놓인 것처럼 일렬로 쭉 서 있는 모습이 보이자 속으로는 은근히 겁이 났다. 내가 오고 싶어 했던 중국의 모습에 약간은 금이 갔다. 장춘 공항 밖으로 나와 우리들은 중국 국내선으로 갈아탄 후 연길공항으로 가야한다는 소리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사진 찍기에 열중 이었다. 공항 밖의 주차장과 광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연실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들에게 눈을 훑겼다. 낯선 곳에서의 눈맞춤은 겁이 날 정도였는데 왜냐하면 중국에 가면 조심해야 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던 터라 더 했다. 중국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우리는 연길 공항으로 출발하였다. 약 40분 후 연길 공항에 도착하여 수속을 마치고 밖으로 나가자 차량 2대가 대기하고 있었고 우리는 정해진대로 2개조로 나뉘어 탑

승하였다.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정말 넓게 느껴졌다. 낮은 산과 평야 너머로 차도가 길게 뻗어져 있었고 농작물이 엄청나게 많이 이루고 있는 밭과 농토가 눈에 들어왔다. 중국 현지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면서 중간 중간에 설명을 듣게 되었는데 연길시가지를 지나면서 연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예전

에 조선족이 70%가 거주하였는데 지금은 39% 정도만 살고 있다고 하는데 연길시에 만 200만 시민 가운데 70%가 조선족이 살고 있으며 그간 많이 발전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정말 이곳이 중국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온통 간판에는 한글이 위에 한문이 밑에 적혀있었는데 건축물 형태만 타지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현재 공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리어커를 달아 집을 운반하는 모습도 간혹 눈에 띠었다. 가이드의 설명에 의하면 이곳은 오후 5시만 되면 대부분 문을 닫고 휴식을 취하며 집안 일을 한다고 했다.

오늘 오후에는 공식만찬이 있는데 먼저 연길에서 유명한 냉면집을 소개해 준다면서 우리 일행을 안내 했는데 진달래란 냉면집이었다. 원탁으로 된 식탁에 7명정도 둘러 앉자마자 한국에서의 냉면이 아닌 3배정도 큰 유리그릇에 엄청난 양의 냉면이 나오자 우리일행은 서로 얼굴을 보면서 웃지 않을 수 없었다. 냉면을 입에 대자 구수하고 시원한 맛으로 일품이었지만 반도 먹지 못하



고 저분을 내려놓고 말았다. 중국에서는 이것도 모자라 사리를 더 먹는다고 한다. 식당에서 나온 우리 일행은 공식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다시 버스에 오른 후 가이드의 안내를 받고 중국 연길시 예술극장에 도착하였다. 제4회 조선족 음악제 수상자 공연 및 축하공연이란 현수막이 걸려져 있었으며 연변 조선족 문화발전추진회 연변 군중 예술관 주최 · 한국 전국문화원연합회 후원이란 글귀가 눈에 들어왔다. 연변 인민방송국 아나운서의 사회로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되었으며 백두산 천지가 그려진 무대에서 무용과 춤, 연길시 조선예술단의 물동이 춤은 선녀와 같은 모습으로 공연을 하였는데 정말 아름다웠다. 사회자의 소개로 우리일행은 무대에 나가 인사를 하고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공연을 마치고 현지 조선족 출연자들과 어우러져 진행되는 공식만찬에 참석하여 이수홍 연합회장님의 인사말과 연길시 측의 인사말이 서로 오가면서 양측간의 우의를 돈독히 하게 되었다. 만찬장소는 북한측에서 운영하는 식당이라고 한다. 종업원들의 모습도 웃으면서 우리를 맞이하는

모습이 상냥해 보였고 ‘반갑습니다’, ‘도라지타령’ 등의 노래방기계로 반주하여 찬조노래는 매우 인상적이었으며, 같은 민족이 한데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가슴이 뿌듯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이튿날 우리 일행은 일찍 서둘러 2조로 나뉘어 버스에 승차한 후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백두산 관광을 떠났다. 가는 길은 좀 좁은 도로였으나 지나칠 때마다 보이는 마을은 우리나라 60년대 모습이라고 할까, 집들은 낡은 나무문과 나뭇가지 울타리로 되어 있는 모습, 허물어져 폐가가 되는 집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이드의 설명을 들게 되었는데 현지의 생활 상태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되었다. 조금 후 우리는 오후령 차굴이라는 터널을 지나게 되었는데 예전에 다섯 마리의 호랑이가 앉아 있었다는데 연유하여 오후령 차굴이라고 하였으며 굴안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는데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평상시 전등불을 밝히지 않는데 우리 일행이 왔다고 하여 특별히 불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버스가 한시간 반정도 이동하여 휴게소에 들리게 되었는데 중국 상인들이 싸게 보이는 물건을 늘어놓고 물건을 구입하라고 손짓을 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산삼이 만원이라고 하면서 설명하는 상인도 있었다. 일부 일행중에 물건을 구입을 한 사람도 있고, 이내 승차한 우리는 백두산으로 향했다. 얼마쯤 지나자 가이드가 이제 다왔다고 말하고 버스가 멈추자 모두 내려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승합차에 6명씩 탑승하여 백두산 꼭대기까지 이동하게 된다고 하여

우리는 승합차를 타고 천지를 향해 2차선 억덕길을 굽굽이 오르기 시작했고, 가이드 말대로 우리는 1인당 3천원씩 모아 운전기사에게 팁을 주고는 정상까지 쉽게 오르게 되었다.

오르기 전에 약간의 비가 내렸지만 백두산 정상에서는 제법 맑은 비가 간혹 머리를 때려 조금은 아픈 느낌이 들었다. 주차장에서 50여미터를 가슴조이며 천지를 보려고 뛰었지만 천지는 구름에 가려 보이질 않았다. 나와 국장님, 그리고 영광 간사 언니와 합의한 끝에 1인 만원씩 걷어 사진기사에게 촬영을 부탁했다. 그 촬영기는 할 줄 아는 말이 “빨리, 빨리 이동”이라고 하면서 연설 우리를 재촉했다. 사진 촬영을 하는 동안 잠시나마 구름이 거치고 천지가 보이기 시작했다. 가이드 말이 이곳에 와서 천지를 못보고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라고 한다. 우리는 참으로 운이 좋았다고 서로 얼굴을 보며 웃었다. 30분정도 구경한 일행은 다시 내려와 장백 폭포로 걸어서 이동을 하였고 가는 도중에 온천 물가에서 익힌 계란을 사서 서로 나누어 먹었다. 장백폭포에 도착하여 우리는 휴식을 취하면서 사진을 찍고는 내려오는 길에 온천탕에 들어가 온



천욕을 하고 이도백화의 신달호텔로 이동 바쁜 일정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셋째날 우리 일행은 아침 일찍 서둘러 식사를 마치고 용정 대성중학으로 출발하였다. 이도백화에서 용

정까지 이동하게 되었는데 얼마쯤 지나서 가이드는 이곳이 김좌진 독립투사가 싸웠다는 청산리 전투의 얼이 깃든 지역이라고 설명을 해주는데 가슴이 뭉클하였다. 그곳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동하여 북한인이 운영하는 상점에 도착했는데 현지 북한인의 안내를 받으며 강당에 들어가자 30대 후반의 남자가 들어오더니 간단히 설명을 하겠다고 하더니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하며 월드컵 4강 진출을 온 민족이 열화와 같은 마음에서 축하드립니다.”라고 말하고는 우황청심환 설명과 수그림을 설명하면서 끝으로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를 불러 주었다. 같은 민족이란 느낌으로 우리들은 청심환을 구입하였고 구입이 끝나고 전송을 받으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였다. 20여분 지나면서 가이드가 안내할 곳이 있다면서 차를 정차 시켰다. 가이드는 “가곡중에 일송정이란 노래를 아시죠.”라고 물어보면서 멀리 보이는 소나무를 가리키며 저곳이 “一松亭”이라고 했다. 진짜 일송정은 늙어 고사가 되어 없다고 하면서 저 나무는 새로이 심은 것이라며 자세히 설명을 해주었다. 잠시 사진을 찍은 후에 우리는 대성중학으로 이동을하게 되었다. 학교 앞에는 민족시인 윤동주의 시비가 잘 단장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시비를 보면서 가슴이 조여음을 느끼며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이게 되었다. 29세의 젊은 나이로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생체 실험용 주사를 맞고 죽은 애국 청년 시인의 넋이 서려 있는 이곳에서 우리 모두는 뜻 깊은 감회를 맞이하게 되

었다. 우리는 2층으로 이동하여 안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서 독립투사들의 그림과 사진 그리고 옛 글들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며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 잠시 후 곰 사육장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사무실에 들어서자 마자 곰 쓸개를 탔다는 소주를 한잔씩을 마시게 하고는 응담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일부 일행들은 구입을 하고 이내 두만강 코스로 우리는 이동하게 되었는데 말로만 들판 두만강을 보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었지만 도착한 후의 모습은 실망이 먼저 앞섰다. 강물은 흐르고 있었지만 온통 진흙물만이 흐르고 있었뿐이었다. 60여미터 정도의 폭에 강이라기 보다는 냇가의 표현이 맞을 것 같은 느낌이었다. 일부 일행은 강물위에 띄워놓은 보트를 오천원을 내고 타면서 즐거워 했는데 그때 건너편에 인민군 보초가 쪼그려 앉아 있는 것이 모습이 보였다. 우리는 반가운 마음으로 손을 흔들었지만 말뚝마냥 요지부동이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북한사를 보는 것이 처음인데 같은 민족이면서도 반가운 기색이 없구나하는 생각을 하며 옆에 있는 도문공원에서 우리는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었다. 동쪽으로는 도문교가 보였고 도문교는 북한과 중국을 도보로 왕래하는 교량으로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 도문이란 곳은

예전에 회막골이라고 불렸는데 독립군이 주둔하면서 도문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며 도문의 위치는 길림성의 동부로 간도소에 속하는 도시라고 했다.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두만강을 뒤로하고 우리는 북경으로 가기 위해 연길 공항으로 떠났다. 비행시간에 쫓겨 서둘러 이동하게 되었고 우리는 가이드와 아쉬운 작별을 하고 비행기에 탑승하여 하늘을 날고 있을 때 비행기가 춤을 추듯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했다. 연길에서 북경까지 한시간 가량 소요된다고 했는데 2시간여 이동을 해도 도착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기내에서는 용성옹성하기 시작했고 스튜어디스에게 영어로 무슨일이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는데 현지인들은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에 서로 답답해하기만 했다. 뒤늦은 안내 방송이 나왔다. 북경 현지에 비가 많이 내려 착륙이 곤란하다며 심양공항으로 돌아가 착륙한다고 했다. 그곳에서 비가 그칠때까지 대기했다가 다시 북경으로 간다고 안내하자 우리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심양공항에 내려 잠시 대기하고 있었는데 이내 탑승하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 나왔다. 비행한지 1시간 정도되어 북경공항에 착륙을 하였다. 현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화윤반점이라는 호텔로 짐을 풀고는 우리는 피곤에 겹쳐 이내 쉬게 되었는데 그때가 새벽 3시 정도였다.

넷째날 그날도 역시 우리는 아침일찍 이동하게 되었다. 요 몇일 아침일찍 이동하게 되면서 우리는 피곤해 하기 시작했다. 오늘 일정은 만리장성과 명13능, 그리고 용경협이라는 장소로 이동한다는 것이다. 꿈에 부풀어 오르듯 만리장성으로 향했다. 가는 도중에 명13능을 보았는데 지하에 정말 궁전처럼 지어 놓은 것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이곳이 무덤이란 말인가. 영

락 7년(1409)에 건립되기 시작해서 숭정 17년(1644)에 사릉思陵이 마지막으로 건립되기까지 20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황제도 입구에서부터 걸어서 입장했다고 하는 신성한 지역이라고 한다. 바닥과 천장, 계단이 모두 흰색 옥돌로 꾸며져 있었고 황제와 황후의 옥좌가 옥돌로 제작되어 있기도 했다. 그곳에서 나와 우리일행은 만리장성으로 이동을 했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산을 1킬로 정도 걸어 올라야만 장성을 밟아 볼 수 있었으나 근간에 케이블카를 완성했다고 한다. 만리장성을 보기위해 중국에서는 물론 한국말, 일본말, 영어 등 수많은 언어가 같은 일행을 찾기 위해 어수선해 하는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다. 우리 일행도 뿔뿔이 흩어져 케이블에 올라 만리장성에 발을 들였다. 만리장성은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북방 흉노족의 남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시대 흥망을 거듭하며 저마다 앞다투어 쌓았던 여러 성들을 10여년에 걸쳐 연결하고 증축해 오늘과 같은 위용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명나라때까지 증축은 계속되어 6.7킬로미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잠시 후 우리일행은 만리장성에서 용경협으로 이동을 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감탄사를 계속 연발했다. 산과 산 계곡을 양쪽에서 70미터 가량 뚝을 만들어 물을 담은 곳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비를 맞으며 배에 탑승을 해 7킬로미터를 이동하면서 정말 운치를 감상했다. 우리편의 배에서 “대~한민국”을 외치자 지나가던 배에서 갑자기 “짝짝 짹 짹” 박수로 응하는 것을 보니 상대편도 한국사람들인 모양이다. 월드컵 4강의 신화가 중국에 까지 퍼진 듯한 느낌으로 우리 모두는 웃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이동 후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다섯째날 오늘은 우리 국장님의 내일부

터 있을 해양페스티벌 때문에 아쉽다는 말만 남기시고 하루먼저 귀국을 하셨다. 우리 일행은 천안문광장으로 향했다. 늘상 TV나 신문지상에서 보아오던 넓은광장에는 기념 탑이 있었고 한편에는 모택동 주석의 그림이 걸려 있었으며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천안문의 광장이 이렇게 넓구나하고 느끼면서 뒤로한 채 자금성 관광에 들어섰다. ‘우와’ 하는 말만 되풀이 되었다. 왕이 외빈을 맞았던 곳, 병사들을 다루던 곳, 왕과 왕비가 기거 하던 곳, 왕의 후손들이 살면서 공부하던 곳, 연회를 하던 곳 등 정말 웅장한 건물들과 곳곳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후문으로 나와 버스에 탑승 후 우리는 대련으로 가기 위해 북경공항으로 이동하여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1시간여 이동 후 대련공항에 도착하였는데 대련이란 도시는 정말 깨끗한 항구도시로서의 면모를 마음껏 뽐내고 있었다. 우리는 버스에 올라 말로만 듣던 안중근 의사의 수형소를 보기 위해 이동하였다. 1902년 유럽 전통건축 양식으로 지은 2층 본관 건물입구에는 “여순일아감옥구지”라는 현판이 붙어 있었다. 2천여점의 철기, 동기, 회화, 비, 갑오전쟁자료, 노일전쟁자료, 현대역사 물 등을 전시하고 있는 감옥으로 써늘한 감이 돌았다. 감옥의 옥사는 대자 모양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운데에 간수가 있었다고 하고 감옥 안쪽으로는 찌그러진 밥그릇, 물통, 변기통이 전시되어 있었으며, 중국어, 일본어로 인쇄된 감옥규칙이 붙어 있었다. 신체검사실, 교회실, 교형실, 암퇘, 작업공장들도 있다고 한다. 1945년 8월까지 감옥 기능을 마감하고 1971년 수리를 하여 개방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쓰고 있다고 했다. 안중근 의사가 5개월 동안 간

혀 있던 방은 3평 남짓 정도의 방으로 헷볕이 잘드는 독방이었다. 책상과 침대까지 있었고 국사범 대접을 해드렸다고 한다. 안중근 의사가 이 방에서 이등방문의 죄악 15개조, 안웅칠역사, 동양평화론, 인심결합론, 옥중한시, 옥중편지 등 ‘동포에게 고함’의 많은 글을 썼고 2백여 폭의 유묵을 남겼다. 안중근 의사의 육신은 92년전에 이 세상을 떠났어도 그의 정신과 말씀은 우리들의 가슴속에 살아남아 있는 것이다. 아쉬운 것은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조국에 모시지 못한 것이 부끄러울 뿐이었다. 우리는 바쁜 일정을 마치고 국제호텔로 돌아와 식사 후 취침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우리는 8시 30분에 대련공항을 출발하여 10시 40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아쉬운 중국 문화탐방을 끝마치게 되었다. 중국에 머무르는 동안 바쁜 일정에도 우리 일행들은 깊은 기색하나 없이 모두 통제에 잘 따르는 문화시민 의식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한다. 바쁜 일정에도 영광간사 언니와 여러 국장님들께서 잘 돌봐주신 덕에 아무탈 없이 다녀오게 됨을 짚게나마 이글을 통해 감사드린다.

앞으로 각 문화원에서도 국제교류를 위해 폭 넓은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문화를 해외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견해와 차이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보급하는데 힘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비록 짧은 기간동안 중국 문화를 보고는 있지만 남의 나라 문화를 장관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내 조국, 내가 살고 있는 고향의 문화를 보다 전승하고 승화 발전시켜 진정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는 계기 조성과 세계로 도약하는 문화건강 사회로 만드는데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본다.



## 2박3일간의 일본 문화체험

한정규 / 속초문화원 사무국장



일본을 간다는 마음이 설레이는 가운데 속초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도토리현 요나고시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7일 까지 2박 3일이란 일정으로 일본에 다녀오게 되었다.

지난 8월 31일 태풍 "루사"로 인해 영동 지역 일대가 물적 및 인적 큰 피해가 발생하여 속초시만 해도 사망 7명, 실종 1명의 인명피해와 1천8백억원이란 재산 피해가 있었던터라 일본방문을 취소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요나고시 측의 큰 배려로 국제 자매도시간의 문화예술교류 추진을 위해 양국의 문화교류가 진행되었다.

방문단은 속초시 최상규 부시장을 단장으로 시의회의원 2명과 속초시 각계 오피니언, 오징어공예단, 풍물패 갯마당 단원들과 함께 15여명으로 구성되었다.

### 10월 26일

아침 6시부터 우리 일행들은 시청광장에서 짙은 비를 맞으며 버스에 올랐다. 태풍 피해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비가 더 오지 않을까하는 걱정을 하며 하늘을 살피고는 우리를 실은 버스는 출발하게 되었

고 이동하는 도중에 기획예산실 국제협력계 직원으로부터 일본에서의 행동과 약속, 물건 구입요령 등의 설명을 듣고 휴식을 취하게 되었고, 일정이 자세히 적힌 안내책자는 각자의 임무와 일본의 간략 소개, 우리 일행이 움직이게 될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어 일명 "청년백서"라고 칭했다.

나에게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비교분석이란 임무가 부여되고 더하여 갯마당 팀과 합류하여 문화예술을 전파해야하는 전도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책임이 주어졌다.

오전 11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을 하게 되었고 티켓팅부터 수하물 수송 등 각자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듯 빠른 시간안에 수속을 밟고는 오후 1시 30분 출발 예정인 아시아나편 항공기에 몸을 실었다. 잠시 후 항공기는 이륙을 하여 인천상공을 선회하고 일본으로 향했다.

한시간반 여 정도의 비행시간이 지속되는 사이 요나고 공항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고 일본을 처음 대하는 터라 창문밖을 내다보게 되었다. 도시모습은 바다와 인접하여 흡사 우리지역과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형태는 마치 성냥갑을 넓게

줄을 맞춰 정열 해 놓은 것처럼 깨끗한 이미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비행기는 요나고 공항에 착륙을 하였고 우리 일행들은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질서를 지키면서 수속을 밟았다. 타국에서 만나는 일본인의 모습은 곁보기에도 친절합니다라고 써어 있는 것처럼 상냥해 보였다. 수속을 마치고 차례차례 밖으로 나오자 요나고시 기획부 자치진흥과 국제교류실 나오미치 우에다 실장과 일행이 연설 웃으면서 친절한 모습으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우리 일행이 지니고 온 짐들을 요나고시 국제교류실장을 비롯 일행들이 버스 화물칸에 조심조심 실어주면서 한사코 우리들에게 짐을 들지 못하게 하고는 일행을 버스에 오르게 하였다. 둇토리현 통역관이 나와 인사소개를 하고는 이내 숙소인 위싱턴호텔로 안내하면서 먼저 숙소에서 여장을 풀게 될 것이며, 우리들의 일정이 2박 3일인 관계로 바쁜 일정이 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숙소에 도착한 후 1인 1실의 방을 배정받고 이내 호텔로비에서 우리 일행은 재 합류를 하였다. 1팀과 2팀으로 나뉘어 2팀인 갯마당과 나는 내일 있을 타이코(북太鼓) 경연대회 초청공연의 리허설 일정에 따라 경연대회장으로 이동하고 다른 일행들은 지금 현재 1달여간 지속되어 개최되는 제17회 전국국민문화축제 일부 행사에 참석해야 했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었다.

경연대회장에 도착했을 때 일본 타이코팀들의 리허설하는 소리가 들렸고 2층 대기실 앞에 들어서자 일본어와 한국어로 갯마당 대기실이라는 안내표지판이 보였다.

대기실 안에서 짐을 풀고 있는데 진행자가 리허설 시간이 40여분 가량이라면서 시간을 꼭 지켜달라는 당부가 있었는데 갑자기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국민이기 때문인

가 하는 멋쩍은 생각이 드는 듯한 느낌이었다.

무대 뒤로 이동하여 타이코 연습을 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순간 “뭐 음악이 이렇지?” 모션과 목소리만 북춤이지 그저 홍내에만 미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라마다 제각기 추구하는 음악이 있기 때문인데 우리음악과 비교하다보니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리허설 들어서기 앞서 조명과 음향 컨셉을 요구하고 위치를 확인한 뒤 리허설을 시작하자 참가하고 있던 타이코 팀들이 앞다투어 구경하려는 모습과 고개를 흔들면서 모션을 흥내내는 모습은 가슴을 뿌듯하게 만들었다. 리허설이 끝나고 모리타 다카토모 시장이 주최하는 만찬장소로 이동을 했고 홀에 들어섰을 때는 원탁위에 각자 명판이 놓여져 있어 자기 자리로 움직였고 모리타 시장, 부시장, 최상규 부시장, 오징어공예 팀과 필자는 한자리에 앉게 되었고 다른 일행도 요나고시 각계 각종의 사람들과 서로 인사를 나누며 함께했다. 모리타 시장의 인사말씀과 최상규 부시장의 답사로 이어지면서 화목한 양국의 우의를 돈독히 하는 모습을 가슴에 안고 숙소로 이동하여 바쁜일정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 10월 27일

오전 7시 조식을 하기 위해 식당으로 향했다. 아침 조식은 늘상 우리가 먹던 음식이 아닌 깔끔하고 정갈하게 차려진 생선조림과 일본 된장국이었다. 맛은 조금 달짝지근하면서 그런데로 괜찮은 듯 싶었다. 아침부터 일정이 바쁜관계로 2팀으로 나뉘어 1팀은 오징어공예팀으로 작품전시 및 시연회를 위해 공연장으로 향했고 나머지 남은 우리 일행은 요나고시의 수조(水鳥)공원으로 향했

다. 수조공원은 시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청초천 보다 넓은 곳에 공원을 조성하여 새들의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수조공원 관리인으로부터 공원의 연혁, 철마다 이동하는 새들의 종류 등 설명을 듣고 마련되어 있는 쌍안경으로 새들의 생태에 대한 관람을 하였다. 관람실에서 1층 전시관으로 이동을 하며 세계에 서식하는 새들의 종류와 학명을 벽에 전시를 하여 있었고 곳곳마다 디오라마 형태로 꾸며져 있어 이해가 빨리 되게끔 꾸며져 있었다. 더하여 러시아에 있던 학의 집을 그대로 보존하여 헬기로 수송하여 가져와 유리전시관 안에 전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또한 갖가지 수작업으로 만든 새 모형의 나무조각품들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정말 손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이어서 우리는 오징어 공예단이 시범을 보이고 있는 체육관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다. 그곳에서는 일본 전국각지의 무명, 유명 조각가들이 만든 새 조각목공예품들을 사방을 메우듯 전시가 되어 있어 다시 한번 놀라게 했다. 한켠에 마련된 오징어 공예품 또한 예술작품으로 빛을 발하고 있었으며 중간중간 시범을 보이는 동안 일본인들은 정말 오징어로 만드는지 연실 만져보기도 하면서 감탄사를 자아내고 있었다.

전국문화축제가 함께 치러지고 있는 그 곳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겉들여 펼쳐지고 있었

는데 한, 중, 일 3개국 청소년들의 그림전시와 함께 각국의 도서도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우리는 다음장소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다도장이었다. 기모노를 입은 여인들이 종종 걸음을 걸으며 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차를 배달해 주었는데 우리가 앉자 과자를 먼저 먹게한 후 갈아만든 원액의 녹차사발을 가져오더니 받은 쪽으로 세 번 돌려받은 쪽이 보이게끔 한 뒤 마시라 하였다. 조금전에 먹은 과자 때문인지 땀덜음 하였지만 쓰지는 않았다. 설명인즉은 차가 쓴고로 먼저 단 과자를 먹어야만 쓴맛을 없애 마시기 수월하다는 것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교육장 주최로 열리는 만찬 장소로 이동하여 배정되어 있는 자리에 앉아 일정식을 먹고는 또다시 3개팀으로 분리되어 오징어 공예팀, 공연팀, 문화답사교류팀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갯마당팀과 대기장소로 이동하였고 공연도중 약 5분간의 공백시간에 속초시 소개와 갯마당 그리고 전통민속공연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고 하여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각해 냈다. 사물놀이 공연이 끝나면서 우

뢰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고 사회자의 소개를 받으며 나는 무대위로 향했다. 정중히 인사를 하고는 질문에 답변을 하였는데 객석에 수 많은 관



### 수조공원

계절에 따라 많은 새들이 찾아드는 안식처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중들이 나를 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갯마당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죠?”, “1993년에 창단되어 ~ 2000년 가이나 축제시 개, 폐회식 초청공연을 하였던 팀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더니 관중들이 “~오”라고 하면서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지금 보여주신 공연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 “사물놀이는 4개 악기를 이용하여 ~ 우리민족의 혼이 담긴 음악 ~”, “속초시 소개를 간단히~”, “속초시는 설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져 있으며 동해바다가 앞 정원 ~”이라고 했더니 “아름다운 고장인 것 같습니다. 꼭 시간내어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친절하게 말을 하였다. 끝으로 나는 유창하지는 않지만 “아리가도 고자이마쓰(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더니 모든 관중이 박수를 보내주어 외교관계의 가교역할을 하는 느낌이 들었다.

이어지는 판굿 공연에 관중과 타이코 출연팀들은 흥에 겨웠는지 손은 박자를 맞추었고 어깨도 함께 흔드는 것이 눈에 들어와 국위선양의 일익을 담당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다. 공연이 끝나고 숙소로 이동하여 짐을 풀고 간단한 아이쇼핑을 하였다. 쇼핑을 마치고 숙소에 갔더니 다른 일행들이 정말 반가운 기색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다름아닌 한국에 있을 때는 국악공연을 겉으로만 보게 되었는데 이곳에서 공연을 관람하니 대한민국을 외치고 싶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우리는 함께 뿌듯한 마음으로 열싸 안으며 서로를 격려해 주었다. 저녁 만찬은 요나고시 부의장 만찬으로 이루어 졌는데 양시간의 우의를 더욱 돋독히 하는 시간을 갖고는 하루 일과를 마쳤다.

10월 27일

오늘도 일정에 따라 일찍 서두르게 되었

다. 다름 아닌 환경크린센터라는 곳이었다.

환경크린센터 앞에 도착하면서 제일먼저 눈에 띄는 것은 센터 앞 광장에 야구장을 조성하여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야구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요나고시 측은 이러한 센터 옆에 공원을 조성하여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시설물이 들어서면 ‘혐오시설’이라하는데 일본에서는 ‘거부시설’이라고 표현한다고 한다. 환경크린센터 안에 들어서서는 자세히 안내를 받으며 이동을 하게 되었는데 시설에 대한 투자가 엄청났다. 냄새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 2~3층 칸막이와 송풍시설 등 또한 중앙제어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정년퇴직하신 공무원 또는 지역의 연장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 쓰레기를 수집하여 한 곳으로 모아 크레인으로 분산시킨 후 고열로 태운 후 재활용 벽재 및 타일로 만든다는 것이다. 시설은 우리를 놀라게 하였다. 부시장을 비롯 시의원 분들도 대단한 관심을 갖는 모습이 역역해 보였다. 또한 각 가정에서는 젖은 쓰레기와 마른쓰레기를 구분하여 정하여진 날짜에 버리고 또한 비닐은 슈퍼나 마트를 갈 때 차분하게 접어 입구에 버리는 용기가 있어 그곳에 가져다 놓는다는 것이다. 더 특이한 것은 쓰레기를 언제 어떻게 분리하여 버리는지에 대한 달력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그곳에서 나와 시청 청사를 구경하게 되었다. 그날은 뜻토리현 지사를 선거하는 날이라 모두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5층 까지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후 각 층마다 걸어 내려오면서 보았는데 책상에는 컴퓨터가 한대도 보이지 않아 물어보았더니 개인마다 노트북이 하나씩 지급되어 가정과 시청에서 일을 하게하여 능률을 올린다고 하였다. 복



요나고시청 전경

도에는 송풍기처럼 생긴 것이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흡연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곳이 흡연지역이라는 것이다. 실내에 흡연장소를 만들어 담배연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장치였다. 각 책상위에는 공무원들이 일이 끝나면서 자기 의자를 책상위에 엎어놓고 퇴근하는 모습이 어릴 때 학교에서 청소당번들이 청소를 편하게 하기위에 의자를 놓고 가는 모습처럼 의자를 책상위에 얹어 놓았다.

우리는 요나고 컨벤션센터로 이동, 마지막 만찬을 하게 되었다. 그 컨벤션센터 안은 구경을 하지 못했지만 공연장과 좌석은 기계조작으로 40여분만에 객석을 마당형태로 만들 수 있다고 하였다.

이렇게 2박3일간의 짧은 만남을 갖고 우리 일행과 요나고 담당자들은 공항에서 뜨거운 안녕의 인사를 나누고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항공기에 탑승하였다.

짧은 기간동안 일본 문화를 접한다고는 하였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체험하지 못한 탓에 아쉬움이 남았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

리는 이내 버스에 몸을 실어 오는 중간에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일본 음식이 몸에들 맞지 않았는지 된장찌개와 김치를 엄청 먹고는 더 주문하자 주인 아주머니가 “아니 이 사람들이 김치 못 먹고 죽은 사람 있나?”라고 웃으면서 말을 건넸다. 우리들은 3일간 짧았다고 응수하면서 먹는데 꿀맛 같은 느낌이었다. 속

초에 밤 10시 30분쯤에 도착하여 서로 얼굴을 보면서 고생했다고 인사를 나누고는 이내 아쉬운 작별을 했다.

일본이라는 국가를 방문하고 느낀 점은 친절하다는 점과 물가가 조금 비싸다는 것, 깨끗한 도시였고 문화에 대한 자부심들이 넘쳐 흘렀다는 점이었다.

비록 타국의 문화를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민속이나 문물들이 더 우수하지만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응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보여줄 수 없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지역 문화를 전승하고 보존하여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가꾸어 실로 한국에 가게 되면 그 지역의 문화를 보아야지 한국이란 나라를 알 수 있어 하는 정도의 마음자세로 문화에 대한 애착심을 가져본다.

이번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속초시장님을 비롯 시관계자 여러분께 본지면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유정충 선장이 남긴 위대한 유산



황 을 문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 동상과 비문碑文

속초시 금호동 소재 근로자복지회관 옆 한 곳에 세계에서 하나 뿐일 동상이 홀로서 있다. 대로의 중앙이나 광장 또는 공원에서 주로 말 타거나 긴 칼 든 여느 동상과는 달리 반쯤 난파된 배 위에 오른손에는 무전기를, 원팔은 키에 끼고 굳게 다문 입과 부릅뜬 두 눈은 동해로 향했다.

유 선장에 대해 그 당시 거의 모든 중앙지들이 3월 2일과 3일에 걸쳐 대서특필로 앞다투어 보도했다. K신문은 “바다사나이 殺身成仁 별로 뜨다.” 와 “칠흑바다에 등대가 된 船長”으로, S일보는 “船長이 목숨 던져 선원 21명 구했다.”, C일보는 “선원 21명 모두 탈출시키고 배와 함께 침몰”이란 기사와 사설로는 “어느 船長의 義로운 죽음”을, 특히 항토지인 K일보는 사실보도 2회와 “劉禎忠 하나호 선장一代記”를 3회에 걸쳐 연재해 세인들을 감동시켰다. 이어 3월 9일에 속초에서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60만 어민장이 성대히 거행된 것과 정부의 훈장인 민족상 추서는 고인의 승고한 정신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 아닐 수 없다.

유 선장의 이러한 정신을 해양 꿈나무들

인 우리 학생들의 정신교육에 활용할 필요성에서 자세한 자료 수집 차 유족과 생존 선원들을 찾아 속초로 향했다.

## 진정한 해양인

부산에서 속초까지는 간단치 않은 여정이었으나, 시야에 들어오는 설악산과 아무리 보아도 전설 같지 않은 울산바위의 웅자雄姿는 노독을 풀어주었고 시가지도 관광도 시답게 깨끗했다. 그곳에서 유 선장의 미망인 김영비 여사를 찾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김 여사의 안내로 처음 대하는 유 선장의 동상 앞에서 절로 숙연해져 고인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올렸다. 저녁 나절에는 고인에 대한 김 여사와 처남, 생존 선원들의 진술을 녹취하고 각종 자료들을 얻었다. 다음날, 속초시수협에서 무려 100쪽이 넘는 당시의 여러 자료들을 친절히 복사해 주었고, 속초문화원장은 귀한 속초시지束草市誌 한 권을 회사했다. 이 자리를 빌어 새삼 감사한다.

다시 돌아 온 부산에서는 외아들 승렬군의 소개로 유 선장의 실형 유정웅씨(2000년 작고)를 만나 청소년 시절의 회고담을

들을 수 있는 행운도 잡았다. 그러나 자료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선과 어로작업등에 대한 나 자신의 상식부족 등으로 2차례나 더 속초를 탐방한 후에야, 유 선장의 인간상과 인생 행적을 어느 정도 파악 할 수 있었다.



유정충 선장劉禎忠 船長은 1990년 3월 1일 13시 51분 제주도 서남방 370마일 해역에서 어로작업 중 갑자기 밀어닥친 돌풍에 휘말려 배가 위기에 당하자 선원 21명을 구하려는 일념에 배에서 탈출하지 않고 통신기가 작동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602호 하나호 침몰 중...”이라는 말을 남긴 채 애선愛船과 함께 수장水葬되었다.

그는 “내 한 몸 바쳐 전선원全船員을 구한다면 기꺼이 죽겠다.”라는 평소의 살신성인殺身成仁정신을 몸소 실천하셨다. 자신의 생명을 던져 동료 선원을 구한 고귀한 그의 얼을 기리기 위해 이상용 도지사의 주선으로 도민道民의 뜻을 모아 여기 이상을 세운다.

1990년 12월 30일

故劉禎忠하나호船長 記念事業推進會 세움

유 선장이 1946년에 태어난 집은 함경남도 북청군 신포리에서도 바다에 아주 가까운 곳이어서 유년시절부터 바닷가 놀이를 하며 자랐다. 5살 때 어머니와 형, 셋이서 다른 피난민들과 함께 범선으로 월남하여 정착한 곳은 부산 영도이고, 학창시절과 청년기를 바다와 부산 남항 일대가 생활무대였다. 공고 2년 중퇴 후 해병대에 자원 입

대한 경위는 확실치 않으나, 그 당시 혼란하면 사회상에서 일시적으로 하게 된 조무래기들의 우두머리 짓을 청산하기 위한 것과 늘 배 타기를 원했다는 형의 진술에서 바다를 찾아 타군이 아닌 해병대를 지원한 것으로 간주된다.

월남에서 해병대 의병 제대 후, 어머니와 둘이서 찾은 속초 청호동 속칭 함경도 아바이 마을은 바로 바닷가이다. 또한 어머니와 둘이서만 찾은 실향민 마을은 마치 속초문화경관 제1호인 수복기념탑의 ‘母子像’을 연상케도 한다. 그곳에서 유 선장은 전마선과 5통 미만의 대원호 선주와 선장 시절을 보내게 되므로 그의 일생은 바다에서 시작되고 바다에서 끝났다. 따라서 청·장년기를 보낸 속초 앞 바다는 그에게 생활터전이자 제2의 고향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뱃 일을 기피하는 세대에 외아들도 멀리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 항해학과로 지원시켜 장래에 선장이 되기를 원했다는 점은, 연·근해와 대양을 두루 누빈 유 선장이 바다에서의 삶을 진정한 사나이의 삶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에 충분하다.

### 실존적인 삶

인간이 “자신에 관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실존주의의 근본으로 본다면, 유 선장의 삶은 가위 실존적이었

다. 이런 관점은 고교 2학년 처지에 학교종퇴와 해병대 자원 입대를 어머니와 형과도 상의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으로 결정한데 기인한다. 당시 육군은 월남에 공병대만 파병했으나, 해병 청룡부대는 전 부대가 월남에 파병되었으므로 해병대 입대는 바로 전장에 투입이었다. 이런 사실은 자신의 확고한 신념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또한 채취금지 기간에 미역을 따려다가 총상을 입게되는 것도 피난민들의 생존을 위한 반항이기도 했다. 그가 실존주의를 이해했다는 근거는 없으나 특정 종교를 신봉 하지도 않았다. 단지 배에서 내려 2달 가량 쉬는 동안 영랑동에 있는 보광사에 아내를 따라 두어번 간 적은 있다고 한다. 이 점에 착안하여 필자가 해양문학 강좌 교재내용으로 지은 『해양문학요소』중 유 선장의 일대기를 소설화한 제7장 「동상과 우상」편에 다음과 같이 서술해 두었다.

반짝이는 별들을 쳐다보며 유 선장은 잠시 아내 생각을 했다. 아내를 따라 절이라고는 처음으로 보광사에 간 적 있었다.(중략)

연신 절을 하는 아내는 마치 오뚝이 같았다. 절 많이 한다고 절이라고 부르는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내가 옆으로 와 앉으며 백 팔 배를 했다고 했다. 아내가 이번에는 부처님께 기원하라고 일러주고는 함장하고 눈을 감았다. 아내의 표정이 진지했다. 뭘 할까 생각했다. 가족을 위한 기원은 아내가 당연히 할 것이었다. 우리 배하고 어부들을 잘 보살펴 달라고 기원하고는 그만두려다가, 이왕 하는 짐에 싫어서 고기도 많이 잡게 해 달라고 기원했다. 기분이 묘했다. 부처님은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는데... 마지막 기원은 들어줄 것 같지 않았다. 배와 어부만 있으면 고기는 우리가 잡으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 기원은 취하해 달라고 또 기원했다.

이러한 추정에 의한 서술은 유 선장 본인의 진술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유족과 주변인들의 진술과 그의 행적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그의 관심은 항상 배와 어부, 선원인 인간이었다. 또한 지금도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는 유 선장의 마지막 송신이 담긴 녹음테이프에서 “602 하나호! 배가 침몰한다!”는 외침은 실존하는 인간을 통한, 한 인간의 외침이자 절규로 들린 것은 필자의 독선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 행동하는 휴머니즘

유 선장은 독학 5년만인 1980년에 100톤급 어선의 선장이 될 수 있는 6급 항해사 자격을 취득했다. 그 당시 동해에서는 어선 조난사고가 많았다. 속초시수협에서는 조난 당한 선원 유족들이 후생사업으로 50톤급 목선인 협동호를 건조하고 자체 운영하면서 수익금으로 유족들의 생계를 돋기로 했다. 수협은 그동안 선원들간에 평이 좋았던 유 선장에게 키를 맡겼고, 그 해 2월에 협동호 운영에 대해 ‘공로표창’을, 11월에는 수산물 위판고 100억 돌파기념으로 ‘오징어 다여회상’을 수여했다. 이듬해인 1981년 12월 31일에 조난어선 구조로 속초시장의 ‘공로표창’을 받기도 했다. 유 선장은 이러한 공로로 인해 선장으로서의 확고한 위상 정립은 물론 불어난 생계지원금 때문에 어민과 그 유족들에게는 타고 난 배사람이란 칭호와 함께 우상 같은 존재가 되었다.

유 선장은 말이 없는 과묵한 성격의 소유자였지만 주변인들에게 베푼 인정은 남달랐다. 집안 식구는 물론이고 특히 동료 선원들에 대한 그의 인정은 이해하기 힘들 정도였다. 속초시수협에서 ‘오징어 다여회상’으



로 수상한 상금 전액을 동료 선원의 전화설치비로, 다음번 수상 때는 부상인 양복 티켓을 어느 선원에게 주어버린 적도 있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 연유도 모른다고 했다. 협동호에서 130톤급 만성호로 배를 갈아타고도 장애자 도와주는 차원에서 언어장애인들을 8명이나 태워나가기도 했고, 그 배에서 조업 중 복어 열을 먹고 사망한 친구 선원의 장례를 친구 가족 대신에 치러주는 짓은 우정도 보였다. 자기 집 문간방에 합숙시킨 선원들을 4명이나 선장시험에 합격시킨 후, 탈 배가 정해질 때까지 무직자인 그들에게 쌀과 부식을 펴다 주기도 했다. 쉴 때면 손수 만든 음식을 차려 놓고 동네 어른들을 초청하는 사례는 다반사였다. 손위 선원들에게나 게으름 피우는 선원들을 나무랄 때도 존댓말로 대해 선장과 선원간의 마찰이 없었을뿐더러, 어획량 면에서도 확률이 높은 유 선장을 선주들이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출항 전에는 언제나 청호동 실향민 묘역으로 양친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는 일도 잊지 않았다. 이러한 유 선장의 가족 사랑과 동료선원들에 대한 우애는 그의 살신성인의 정신과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리더십과 사명감

유 선장은 학창시절부터 급우들의 리더였고 혼란하던 자유당 말기 사회의 뒷골목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1972년 여름에 9명의 선원을 대원호에 태우고 오징어잡이 나갔다가 기관고장으로 5일동안 표류하다, 북쪽 공해상에서 극적으로 우리 해군 함정에 구조된 적 있었다. 이 때 보여준 그의 언행은 선주로서의 책임감보다는 생존을 위한 '서바이벌 리더십' 이었다.

유선장은 어창과 브리지 바닥에 굴러다니는 두 흙들이 소주병 몇 개를 모았다. 노트 한장을 찢어 여기는 대원호, 기관고장으로 표류 중, 현재 위치는 대략 울릉도 동북쪽 50마일 지점, 구조바람. 1972. 6월 X일. 이라고 쓴 종이들을 병 속에 넣고 마개를 막은 후 바다에 띄웠다.(중략)

물통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유 선장은 밤공기에 물을 반쯤 따라 시계 방향으로 어부들에게 일일이 권하며 "힘내시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조됩니다!" 아무도 대답은 않고 물만 허겁지겁 마셨다. 마지막으로 큰처남 차례가 됐다.

"형님하고 나하고는 나눠 마십시오." 유선장은 먼저 한 모금만 마신 뒤, 물 공기를 큰 처남에게 넘겼다. 모두들 보고 있었다.

「동상과 우상」중에서 인용한 첫 부분은 5톤 미만 어선에는 무전기 구비가 의무사항이 아니던 시절에 유 선장의 투철한 사명감이고, 구조를 확신시키는 단호한 어투는 어부들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또한 한 모금만 마신 물은 리더로서의 자질과 희생정신을 보여줌으로서 어부들에게 자신을 믿고 따르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유 선장의 이러한 리더십에 의해 9명 모두 무사히 구조될 수 있었다. 다음 인용에

서도 유선장의 러더십은 계속된다.

유 선장 혼자 배에 남게됐다. 갑자기 외로움이 엄습했다. 브리지 유리창에 아내와 아들 얼굴이 떠올랐고 입학식 생각도 났다. 12시 조금 지난 중간 위치보고를 했었다. 바다로 뛰어내려 구명뗏목을 잡고 구조하려 올 때까지 버티어 볼 생각도 해 보았다. 구명뗏목은 평온한 바다에서 배가 좌초되거나, 기관고장으로 표류할 때는 요긴하게 쓰인다. 그러나 본선이 침몰 할 정도의 지금과 같은 강풍과 노도에는 마지막 수단에 불과하다. 구조가 늦어 구명뗏목이 뒤집어지게 되면 거센 물결에 휩쓸린 선원들은 뿔뿔이 흩어져 망망 대해에서 미아가 될 수 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는 사실상 구조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13인승에 21명의 선원이 빼곡히 포개어 탄 구명뗏목은 금방이라도 파도에 뒤집어질 듯 했다. 그 와중에서도 아래쪽 선원들은 손바닥으로 선장을 부르고 있었다. 유 선장은 그런 선원들이 고맙기도 했다. 몇 년 동안 거친 바다에서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선원들이었고, 밀고 따르던 선원들이었다. 선장을 부르며 절규하고 있는 선원들의 얼굴 위에 강풍에 날려 온 물보라가 강렬한 태양빛에 무지개 색깔을 띠웠다가 이내 사라지곤 하는 사이로, 수십 명의 그들 가족 얼굴이 겹쳐졌다. 저들은 살아 돌아가야만 한다! 유 선장의 최후 결정이었다.(후략)

조난 직전에 처한 하나호에서 유 선장이 내린 퇴선명령 등 일련의 조치는 선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직업의식과 사명감에 의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극한 상황에서 자신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선원들의 안위만을 위한 상황과 판단과 결단은 홀륭한 지도자만이 발휘할 수 있는 숭고한 리더십의 극치인 것이다.

## 유 선장과 해양정신문화

우리는 국토의 삼면에 바다를 두고도 그 바다나 바다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즉 모든 해양인들을 결시하는 경향이 있다. 상선에 비해 선박과 근무 조건 등이 열악한 어선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유 선장의 일대기를 쓰기 위해서는 실사가 필요했다. 속초에 머무는 동안 마침 속초항에 정박해 있는 하나호와 거의 동급인 오징어 채낚기 어선을 관선하면서 놀라움과 존경심이 절로 일었다. 오래 전 유 선장이 누빈 동, 남지나해를 학교 실습선에 편승해 항해한 적 있었다. 그 망망대해와 거친 파도에 무려 3500 톤이나 되는 실습선도 마치 일엽편주 같았고, 배에서 며칠을 견디기가 무척 힘들었다. 그런데 겨우 100톤급의 작은 배로 2달 가량 동해에서 둥지나, 남지나해까지 거친 파도를 헤치며 조업하는 우리 선원들의 기개가 대단해서였다. 그들은 바로 해양강국을 위한 바다의 역군役軍들이었다. 비록 생계수단이라고는 하나 강인한 해양정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일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엮어내는 해양정신문화에 속한다.

작년 여름, 5만 톤이 넘는 컨테이너 선을 타고 상해로 가면서 내내 유 선장 생각을 했다. 그가 누볐을 항로에는 혼탁한 양장강물이 바다로 넘실대고 있었다. 하나호가 조난 당한 지점은 양자강 입구에서도 90마일이나 더 아래인 남지나해 쪽이었다. 배가 잠시 대기하고 있는 동안 미리 준비해간 소주 한 잔, 흐르는 거친 물결에 실려 보내며 유족들이 사고현장에서 위령제를 지내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해 유족 대신 명복을 빌었다. 낙조落照아래 점점 더 거칠어지는 바다는 만약 그 당시 유 선장이 친 마지막 구조송신이 만성호에 잡히지 않았다면, 결과

는 자명했을 것이라 생각을 굳혀주었다. 유 선장은 그곳에서 살신성인이라 한 차원 더 높은 해양정신문화를 이룩한 것이다. 이것이 유 선장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며 그 유산은 속초시민들과 해양인들 뿐만 아니라, 해양강국을 지향해야 할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될 소중한 유산이다. 따라서 유정충 선장을 장보고 장군과 충무공의 정신을 본 받아 해양정신문화를 창달暢達한 위인으로 추앙해야 할 당위성이 여기에 있다.

## 후기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3년 전부터 매학기 해양문학강좌를 개설하고 교재에 실린 유 선장의 일대기를 통해 그의 인간성과 숭고한 정신을 알리고 있다. 리포트나 독후감에 나타낸 수강생들의 반응을 추려서 소개한다.

1. 속초에 가게 되면 꼭 유정충 선장의 동상을 찾아 참배하고 싶다.

1. 설악산 등산만 해보았지 속초 시내에는 가지 않았으나, 다음 번에는 유 선장님의 동상 부터 찾아 볼 작정이다.

1. 사나이 중에 사나이, 특히 그는 모든 뱃사람들의 영웅이다.

1. 앞으로 선장이 될 나도 과연 그런 상황에 처하면 유 선장처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듈다.

1. 이제껏 부정적으로 생각해 오던 뱃사람의 이미지를 씻고, 앞으로 내가 가질 직업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1.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1. 그는 진정한 바다 사나이이자 모든 해

양인의 귀감이다.

1. 나의 고모부도 어선 선장인데 앞으로는 잘 대해드려야겠다.(어느 여학생)

일반인들의 반응 중 영미해양문학에 정통한 어느 노 교수는 “해양대국이라 자처하는 영국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맨스 스피리트(Sea-Men's Spirit)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면 좋겠다.”고 했고, 영화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은 상당히 많았다. 필자의 미흡한 글 솜씨에도 불구하고 호평을 받는 것은 유 선장의 파란만장한 일생과 탁월한 리더십, 숭고한 정신때문이란 점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속초문화는 관광문화가 주종을 이룬다면 설악산은 불거리와 오를 거리 문화이고 대포동은 먹거리 문화이다. 속초시가 주최하고 속초문화원이 주관하는 조개파기 한마당은 해볼 거리의 1차원 해양문화라 할 수 있다. 여기에 비해 유 선장의 동상은 차원이 다른 보고, 느낄 거리 해양문화에 속한다. 유 선장은 학경도 태생이지만 속초는 그에게 제2의 고향이라. 따라서 속초의 자랑거리이자 나아가 한국인의 자랑거리가 될 유정충 선장이 재조명 받기를 간절히 바란다.

## 황 을 문

- 성균관 대학교 불문학과와 동대학원 졸업(문학박사)
- 한국해양대학교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 한국해양문학가협회 상임이사
- 저서 : 海洋文學逍遙

# 故 劉禎忠 船長의 銅像을 對接하자.

- 失鄉民 文化村에 移轉함을 提案 -

최용문 / 속초문화원장

이 승고한 유선장의 동상이 당초 전립시에는 그 자리가  
속초근로복지회관 옆 위판장 가까이 넓은 뜰에  
세워진 것(속초시관리)이 오늘에는  
여러채의 건물(판자집도)이 에워싸여 숨쉴틈을 잃어가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물론 시당국과 수협 등 어느기관도  
위령제 등 어떠한 기림 행사도 갖지 않고 있다.

우리는 망각忘却속에 살아가는 편리한 촌  
재인지 모른다. '망각'은 미래의 새로운 밝  
은 삶을 위해 어쩌면 필요 충분한 요소가  
더하는 경우가 있음도 하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부모·배우자·자식의 죽음에  
너무 슬퍼 자기의 생을 포기할 즈음이면 이  
것은 잊어 버리는 곧 '망각'해야 함이기 때  
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극단적인 예 아니면  
망각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더 많다고 하겠  
다. '망각'의 사전적 해석을 보면 '기억에  
서 아주 사라진 상태'를 일컬으며, 법률적  
으로는 망각범忘却犯이란 망각 때문에 일정  
한 작위作爲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법의  
결과를 가져온 범죄라고 한다.

위와같이 망각이란 사설을 길게함은 한가  
지 이유를 들어간다.

우리나라 사상 최초로 60만 어민장으로  
치루어진 속초의 고 유정충선장의 동상이

우리들의 뇌리에서 망각 되어가고 있는 안  
타까움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앞의 황을문  
교수의 '유정충 선장이 남긴 위대한 유산'  
과 같이 고 유선장은 1990년 3월 1일 13  
시 51분 제주도 서남방 370마일 해역에서  
어로 작업 중 돌풍에 배가 위기에 당하자  
선원 21명을 보트에 하선, 구조하고 본인은  
"602호 하나호 침몰 중..."이란 무선 통신  
을 남기고 애선과 함께 수장되고 말았다.

이같은 고 유선장의 살신성인 정신은 우  
리 모두의 슬픔과 귀감이 되고도 남음이었  
다. 정부는 훈장 민종상을 추서하고 거국적  
인 60만 어민장을 치루었다. 그리고 "고 유  
정충 하나호 선장 기념사업추진회"를 결성  
하고, 같은해 12월 30일 속초시 금호동  
482-5번지 시유지에 그의 동상을 건립하였  
다.

'하나호 선장 유정충 상'이라고 새겨진

사각형 좌대위에 유선장이 반쯤 침몰된 하나호에 혼자 남아 긴급구조신호를 보내는 절규하는 장면이 구리로 조각되었다. 뒷면과 오른쪽 옆면에는 각각 '동상 건립문'과 '추진위원 명단'이 새겨졌다.

이 숭고한 유선장의 동상이 당초 건립시에는 그 자리가 속초근로복지회관 옆 위판장 가까이 넓은 뜰에 세워진 것(속초시관리)이 오늘에는 여러채의 건물(판자집도)이 에워싸여 숨쉴틈을 잃어가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물론 시당국과 수협 등 어느기관도 위령제 등 어떠한 기림 행사도 갖지 않고 있다.

오직 유족인 부인(김경비)과 외아들(승렬)이 추석절에 제례를 함이 고작이다. 이제 속초시민들의 뇌리에서조차 기념비가 있는지조차 잊어가고 있다.

전국 어민장에 이은 기념비를 세운 그 뜻을 잊음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기념(紀念, 記念)이란 오랫동안 사적事蹟을 전하여 잊지 않음이 그 본뜻이다.

삼면이 바다로 해양국인 우리나라 전 어민들에게 귀감龜鑑이 이보다 더함이 어디에 있겠는가. 한국해양대학교에서는 해양문학 강좌에 "동상과 우상"편으로 고 유정충 선장을 '행동하는 휴머니즘' 어부로서의 그의 사명을 다한 숭고함을 가르치고 있다.

학생들은 속초에 가서 유선장의 동상에 꼭 참배하겠다고 약속을 한다.

이 유정충 선장의 동상은 분명 속초의 사적 명물로 큰 자랑거리이다. 필자는 감히



- 위대한 동산은 판자촌 모퉁이 눈속에 버려져 있다. -

고 유선장은 함남 북청에서 월남한 피난민 출신 어부이다. 또한 "아바이 마을"이 주소지였다. 따라서 유 선장의 동상을 이 실향민 문화촌에 우뚝 세워 위령함이 그를 받드는 참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제안한다. 속초는 항구 도시로 태어났다. 특히 6·25 월남피난민들이 피땀흘려 건설, 발전을 가져온 도시이다.

시 당국은 피난민들의 사적을 기리기 위해 '실향민 문화촌'을 명년에 만든다. 청호동 "아바이 마을"을 옮겨 재현하는 것이다. 고 유선장은 함남 북청에서 월남한 피난민 출신 어부이다. 또한 "아바이 마을"이 주소지였다. 따라서 유 선장의 동상을 이 실향민 문화촌에 우뚝 세워 위령함이 그를 받드는 참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속초를 찾는 전국민의 참배의 1번지로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다.

# 지역문화의 자생력과 경쟁력

- 월드컵 문화행사를 보면서 소고(小考) -

장 세호  
속초시 문화공보실장



지구촌 잔치라는 월드컵의 열기가 한반도 나아가 전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다. 잔치는 끝나지 않았다는 듯 각계 각층에서는 이번의 저력을 미래의 국력으로 연결시키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도 이른바 “포스트 월드컵”이란 이름으로 구체적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우리정책의 무게가 으레 그렇듯 “돈” 즉 경제나 정보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가 펼쳐지고 있고, 정작 월드컵에서 보여준 민족의 저력을 장기적으로 현실화 할 문화분야는 의외로 빈약해 보인다.

그렇지만 늘 그랬듯이 “돈” 된다는 분야가 반짝 떳다가 사라질지도 모르지만 문화분야는 차분한 태도로 앞날을 준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와 관련 “문화정책의 고갱이라는 지역문화”(자크랑)의 앞날을 월드컵 개최도시의 지역문화행사를 중심으로 돌아보는 것은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월드컵 문화행사의 “화려함”과 “들러리” -

월드컵 개최지역 문화행사는 두 얼굴을 갖고 있었다. 그 하나가 “화려한 잔치상” 문화관광부 집계에 따르면 월드컵 문화행사는

개막식 등 공식행사 이외에도 지역별 문화예술기관과 단체주관으로 109건의 문화행사(중앙단위 23건, 개최도시 83건)가 이루어졌다.

단 10개 개최도시에 18개의 월드컵 플라자를 운영해 응원문화를 달구었고 우리 전통 현대문화를 소개했다. 그곳에 IT체험관을 설치해 기술강국으로서의 이미지를 돋울 새김했다. 이들 행사는 단순히 집안잔치에 그친 것이 아니다. 외국인 105만명을 비롯하여 모두 1960여만명의 관람객이 문화행사를 찾았고 AP와 로이터 등의 통신사, CNN, 일본의 아사히 TV, 중국의 CCTV 등 세계주요언론들의 취재 열기도 동행했다.

이런 통계 바탕으로 문화관광부는 이번 월드컵이 우리문화의 우수성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고 포용력 있는 한국의 문화역량을 세계에 발신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가 이미지를 한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덧붙여 국가 내부적으로는 각 개최도시가 지역적 특화 이미지를 살린 문화행사를 적극 개발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고 지방 문화발전 역량이 한차원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성과를 설명한다.

월드컵기간 동안 전 국토가 잔치였다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중앙의 15개 문화예술 기관 단체가 “조선시대 풍속전”, “남산골 사랑대축제” 등 24개 프로그램을 선보였고, 10개 개최지역에선 “세계와 함께 하는 지방”이란 구호 아래 72개 문화행사를 열었다. 특히 지역문화 행사는 나름대로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역력하다. 수원의 경우는 “정조대왕 능행차”, “화성국제연극제” 등 상설적으로 개최하던 대부분의 행사를 6월 한 달동안 몰아서 “문화 월드컵”이라는 깃발아래 집중기획했다.

또 대구의 “약령시 인삼 특별전”, “대전의 무용극”, “유성의 혼불과 연극”, “사육신 박팽년” 제주의 “이중섭 예술제”, “자리돔 축제”, “해녀축제” 등 지역에 걸맞는 잔치상을 준비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과연 이번 행사들이 “문화 분권화”를 위한 자생력을 보여주었을 것이라는, 단순히 월드컵 잔치상에 그치는게 아니라 일상적인 지역 문화행사의 근본적인 한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월드컵이라는 큰잔치를 통해 지역문화가 일시적으로 큰 활력을 맵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여전히 지역문화행사가 가져야 할 원칙에는 미흡한게 사실이다.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선 지역문화의 개념으로 돌아가보자. “2001년 지역문화의해 추진위원회는 지역문화를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기반인 지역,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 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활동의 소산”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엔 지역문화가 그 지역에 공존하는

개인 혹은 집단이 이루어 가는 인간 삶의 총체적 절정이며, 이는 상호작용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당연히 이와 관련된 문화행사는 자발성, 주체성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현실은 아직 답답해 보인다.

### - 사소하지만 세계적인 관심 끌수 있는 것에 주목해야 -

먼저 행사 해제모니를 노린 관료주의와 한탕을 염두에 둔 상업주의가 여전하다. 관주도의 묵은 찌끼가 여실히 드러난 곳은 부산의 경우라 할 것이다. 5월 17일 부산시와 시주도의 관변단체(부산문화관광축제위원회)가 월드컵 문화예술 행사를 몇몇 사람들의 일방적 결정으로 통과시키려다 예술인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아 물의를 일으켰다. 또 대다수의 지역문화행사의 주체가 여전히 중앙에서 활동하는 인물이나 단체인것도 걸림돌이다. 행사주관 이벤트사를 둘러싸고 보여준 대전지역의 갈등도 이런 사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중앙의 이름 있는 문화계 인사나 관련단체가 지역문화행사를 주관함으로써 주객이 뒤바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역이 둘러리에 불과한 상태에서는 당장엔 세련되고 미끈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내것”이라고 느낌을 주기 힘들 것이다. 이는 지역문화의 본질인 주민의 자발적 혹은 주체적 참여와도 맞물려 있다.

전시성 이벤트보다는 작지만 현지 대중과 밀착될 수 있는 잔치에 무게 중심을 두고 사소하지만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무엇보다 그 지역 문화의 모습을 알리는 방법을 찾을때 지역문화행사는 홀로 설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객관적인 여건상



아직 지역문화계가 경쟁력을 갖추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이런 중앙 주도의 지역문화행사를 통해 지역행사나 문화단체를 키우는 과정으로 자리매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자발적 행사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 - 프랑스는 타지 축제전문가 장기간 상주시키며 정서 반영 -

월드컵 잔치를 통해서 본 지역 문화행사는 그 외양에 견주어 해결 과제가 더 많음을 보여준다. 조금은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그곳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잘 살린 문화행사를 만들 그날을 만들기에는 아직 우리 지역 문화의 자생력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지역의 역사나 전통을 제대로 반영한 행사가 여전히 적고 주민 개개인들이 참여해 삶의 활력을 얻는 “문화 민주화”로 이어지는 경우는 더더욱 드물게 우리의 척박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더 냉소적으로 표현하자면 월드컵에서 보여준 어떤 문화행사도 “대~한민국”으로 상징되는 신바람난 응원 축제 성과에는 못미친게 아닐까. 결국 월드컵이란 호기를 통해 잠재력은 확인했지만 이것을 현실적인 경재

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전체성이 담긴 컨텐츠 개발 전문인력 확충 등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아울러 지역문화현장에서 술하게 제기해온 관주도지양 지역주민의 주체적인 행사 참여, 지역거주 문화활동가와 문화행정가 육성, 재정확보 등 기본기를 다지는 문제도 남아 있다.

월드컵이라는 단기적 호재로 지역문화 행사가 일시적으로나마 독

창성과 활력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인 대책을 꾸준히 세워가지 않으면 다시 변방에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글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수준에서 작성해 본 것이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지역문화를 지키는 분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으며 결론적으로 앞으로 지역문화 축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자발적 시민문화를 활성화하며 이웃과 어울림의 축제를 만드는 등 광장에서 함께 모여 즐기면서 자생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축제문화의 창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할 교훈은 관제문화행사를 민간주도의 축제문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이지만 민간 주도의 지역문화축제라 하여 재정적 뒷받침이나 행정적 지원마저 포기하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축제의 성공을 위한 민간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 중국, 다양성과 정체성의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장 규 호  
속초예총 회장



지금 중국에 불고 있는 한류韓流 열풍에도 그들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다.  
언젠가는 그들의 문화가 한국에 되돌아가는 중류中流열풍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아무리 우리의 가수들이 중국아이들을 사로잡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의 배우나 탤런트가 중국아이들의  
우상이 되어 있어도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그들은 예지하고 있는 것이다.

1994년 중국을 처음 방문한 이래 올해까지 거의 매년 중국을 다녀왔다. 중국의 여러성省, 시와의 문화예술 교류라는 목적도 있었지만 처음 중국을 방문했을 때 받은 문화적 충격의 원인을 찾아보고자 하여 자주 중국을 드나들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성싶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우선 선진문물이 생활화 되어있는 곳이며, 따라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문화적 가치가 상존해 있다는 인식하의 방문이었기에 그다지 당황하거나 충격적 요소가 많지 않았다고 느꼈으나, 중국의 경우는 거의 백지상태의 상식으로 접하여본 문화였기에 적지 않은 당혹감을 솔직히 시인하고 싶다. 우선 그들 중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였다.

문화란 현재의 삶이라는 생각으로 그들과 대화하고 생활해본 나의 관념속에 전혀 다른 그들의 문화 인식이 새로운 관념의 전환으로 다가왔음을 시인하고 싶다. 그들에게 있어서 문화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적 가치까지도 다정스럽게 공존하고 있는데 놀랐다. 어떻게 그렇게 미래의 가치 마저도 현재의 문화속에 공존이 가능할까?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나는 무려 10여년 가까운 시간을 보고 느껴야 했다. 그들 중국인들의 뇌리 속에는 그들이 항상 얘기하고 그들의 자부심으로 자리잡고 있는 세계의 중심이라 는 중화사상이 그들 생활의 편린이 아닌 전부이며, 동시에 그들의 성서 같은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들의 문화란 그러한 중화사상을 떠나 결코 존재하거나 성립될 수 없



는 불변의 정신적 가치이며, 그들의 지속적인 삶의 가치이기도 한 것이다. 세계의 중심이라는 그들의 정서적 자부심이 그들의 문화적 모태가 된 데에는 세계 4대문명의 발상지라는 현대적 자부심도 있겠지만 기실 그 근저에는 몇 천년 전부터 그들의 생활 속에 녹아 있는 노장사상과 유교적 연대감, 그리고 대륙적 신중함이 묘하게 어우러져 현재 그들의 보편적인 문화적 가치가 되었든 것이다. 그들의 문화 속에는 신중함이 있다. 그 이유는 몇 천년의 그들 역사가 말해주듯 전쟁과 정복이라는 힘의 대결이 그들 생활에 살아남기 위한 기다림이라는 기막힌 적응방법을 제공해 주었고, 광대한 대륙이라는 지정학적 조건이 그들에게 조급함이라는 부질없는 생각을 아예 삭제 시켜버린 요인이 되었다. 그들은 어떤 정치가가 정치를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다만 내가 살아가는 현재가 정치로 인하여 피해를 보지 않으면 그만인 것이다.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라도, 개의치 않는다. 왜냐하면 정치란 오직 권력일 뿐 그들 정치하는 자들의 살아가는 한 방법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오직 정치가 시키고 제시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한다. 언젠가는 권력의 형태도 바뀌고 정치적 목적도 바뀔 것이며, 그때는 또 그때의 정치적 지시에 따라 살면 된다는 가장 본능적 삶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중국인들의 보편적 사고방식이었다. 외래의 철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또는 예술적 형태의 어떤 새로운 가치관도 그들은 그들의 교리랄 수 있는 중화라는 틀 속에서 해석하고 그

들의 문화로 변형시켜 버리는 무서운 힘이 있다. 인도의 불교도 중국으로 건너와 노자와 결합하여 슬그머니 선불교禪佛教로 변해버렸고 중국을 정복했던 주변국들(몽고족, 만주족)의 생활문화와 언어가 중국인들의 서두르지 않는 문화에 섞여 어느 사이에 자취없이 사라져 버리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다. 그들의 문화에는 기다림이 있다. 지금 중국에 불고 있는 한류韓流 열풍에도 그들은 그저 웃고 있을 뿐이다. 언젠가는 그들의 문화가 한국에 되돌아가는 중류中流열풍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다. 아무리 우리의 가수들이 중국아이들을 사로잡고 있어도, 아무리 우리의 배우나 탤런트가 중국아이들의 우상이 되어 있어도 결국에는 그것들이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그들은 예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중국의 조선족을 위한 국제가요제를 훈춘에서 개최했을 때 어떤 중국인의 말이 생각난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 중국인이 한국에 가서 한국인을 위한 국제가요제를 할 것이다”라고... 난 그들의 기다림이라는 미학 속에 현재적 문화의 연장이 내재 되어있고 그것이 그들의 보편적 삶의 문화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는다. 그

들은 이미 세월이라는 틀 속에, 그리고 시간이라는 개념속에 자신들의 의지와 신념을 얹어놓고 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종족번식의 본능에 따라 대를 이어놓으면 언젠가는 그들의 문화속에 모든 것이 융화된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체험하였기 때문에 항상 웃는 얼굴로 그리고 온화한 모습으로(?) 모든 이질적 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문화는 정지해 있는 문화 같다. 100년



전의 모습이 현재 살아있으며 100년 후의 모습도 현재처럼 보일 것이다. 기차로 하루만 지나가도 또 다른 문화, 그리고 비행기로 1시간만 가면 또 다른 문화, 전혀 동질화 될 수 없을 것 같은 이질적 문화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나라, 그것이 중국의 현재의 모습이며 무서운 중국의 저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생각했다. 과연 우리는 또다시 100여 년 전까지의 문화종속국의 수모를 피하기 위해선 향후 어찌해야 할 것인가? 결국 그들의 중화와 타협 할 것인가? 아니면 단절을 통한 독자적 문화의 형성을 꾀 할 것인가? 내것만을 지키려는 나의 편견일 수도 있지만 왠지 내것을 잊어버릴 것만 같은 불안감이 오는 건 나만의 생각일까? 하긴 문화란 삶의 형태일진대

50년 후 아니면 100년 후 우리의 후손들이 중국식 복장을 하고 중국의 어린 사내아이들처럼 꽁지머리를 하고 향이 엮겨운 중국 음식을 먹으며 또래의 친구들과 “니하오(你好)” 하며 논다고 생각하면 별로 유쾌한 기분은 아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 할 때다. 어차피 우리는 중국이라는 이웃과 같이 살아가야 한다. 우리 국토를 짚어지고 어디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보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신적 가치를 재정립해야 할 때다. 그들의 흡인력강한 문화속에 유입되지 않기 위해선 그들이 주변의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펴면서 슬그머니 그들의 문화속에 융화



시켜버리는 그런 술수에는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과는 차별화된 우리의 전통적 끈기하나로 버텨야만 한다. 우리 것은 소중한 것이라는 얘기를 결코 놓담처럼 해서는 안된다. 정말 우리 것은 소중하고 보존해야할 아름다운 문화라는 인식을 가질 때만이 우리의 문화는 중국의 그것과 대별될 수 있는 독자적 생명력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지방정부간 상호협력의 길

사 득 환 / 동우대학 행정과 교수

- 고려대학교 졸업(행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박사)
- 동우대학 행정학과 교수(현)
- 한국행정학회 연구위원 및 한국정책학회 섭외위원



## I. 서 론

안용식 · 김천영을 필두로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 나라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sup>1)</sup>

이들 연구는 대체로 독립된 정부기관간의 협력이 그 성과를 산출하지 못하는 현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더 나은 조정체계(better-coordinated systems)를 구축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동일한 고객(clients) 또는 목적을 서로 다른 기관들 간의 상호협력을 통해 추진한다면 보다 나은 성과(performance)를 가져올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간의 협력은 어느 영역과 분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이 지난 이론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적으로 협력이 잘 발생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 협력은 비용 소모적(costly)이기 때문에 잘 발생하지 않

는다. 물론 협력에 따른 편익(benefits)이 따르기는 하지만, 우선은 투자를 한 이후에나 그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간의 협력은 자연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의도적인 산물(purposive outputs)이다. 만약 지방정부의 관리자가 상호협력을 증진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의 장애물(obstacles)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에서 장애물은 지방정부조직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속성과 관련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지방정부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추구한다. 이들 조직에서는 조직내 절차를 조화시키기도 어렵고, 목표도 중첩적이거나(overlap)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주민들은 서로 다른 기대를 갖고 있고, 각각 지방정부에 요구와 압력을 행사한다. 지방정부 관리자들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관심을 두지만, 다른 지방정부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정부 입장에서 보면, 상호협력

1) 안용식 · 김천영,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서울: 대영문화사, 1995.

은 반갑지 않은 손님이다. 이러한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영역과 업무에 대한 자율성이 제약받기 때문이고, 둘째는 이러한 협력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록 잠재적 편익이 불명확하더라도 자신의 부족한 자원과 에너지를 먼저 투입해야 한다는 데 있다.<sup>2)</sup>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은 여러 가지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중에서 지역적 특성, 외부효과성 등으로 지역적 경계를 뛰어넘어 발생하거나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인 업무가 많다. 이 경우 지방정부가 자기완결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지방정부를 둘러싸고 급변하고 있는 환경적 불확실성(uncertainty of their own environments), 가령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사회로의 진전은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논문은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을 생성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정부가 어떤 경우에는 협력을 추구하면서 또 다른 경우에는 협력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둘째, 왜 현실적으로 지방정부간 협력이 잘 발생하지 않는가? 즉, 지방정부간의 협력이 발생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셋째,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적·실제적 방안은 없는가? 만약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 II. 지방정부간 상호협력의 필요성과 논리

### 1. 지방정부간 협력의 필요성

지방정부간의 협력(cooperation)은 “자율적인 지방정부들간의 개별적 목표의 공동적 성취를 위한 긴밀한 관계(deliberate relations)”를 말한다.<sup>3)</sup> 다시 말해서 각각의 단위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교환 및 협의과정이 이루어지며, 이는 상호신뢰와 의존관계를 통하여 각 구성 부분들이 그들의 업무와 활동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 권한 및 역할을 교환하여 서로간의 이익(mutual benefits)을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호협력은 단순히 정태적인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상호작용(dynamic interplay) 관계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즉, 상호협력은 내외적 환경과 부단히 상호작용(interplay)하면서 매우 역동적으로 진화해 가는 과정이다.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은 여러 가지 잇점이 있다. 우선, 지방정부간 협력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uncertainty)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 Tompson은 조직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불확실성이며, 이러한 불확

2) 사득환, “정부간 관계(IGR) 변화와 지방정부간의 환경협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2, 14(1), pp.123-144.

3)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상호협력은 인종·종교·언어·체제·이념 등의 차이를 초월하여 개인·집단·기관·기업·국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상호간에 우호적으로 상호협력과 이해증진 및 공동 이익 도모 등을 목적으로 서로간에 공식 또는 비공식적으로 추진하는 각종협력적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사득환, “남북강원도의 교류협력 현황과 전망”, 한국행정학회·강원행정학회, 2001년도 학술세미나 발표논문집, 2001, pp.185-201.

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조직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sup>4)</sup> 둘째, 이러한 협력은 주어진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이의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 지방정부간의 협력은 사적 및 공동편익을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사적편익(private benefits)이란 협력을 통해 기대되는 지방정부 각자의 이익을 말하고, 공동편익(common benefits)은 관련 지방정부 모두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의미한다. 넷째, 협력은 현안문제 및 정책에 대한 상호학습(mutual learning)을 증진시키며, 지방정부가 갖는 조직내적 문제를 치유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다섯째, 지방정부간의 협력은 상위 정부로부터 정치적 지지(potitical advantage)를 획득하는 데도 수월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이 아무리 중요하고 서로간에 이익이 있다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협력은 잘 발생하지 않는다. 지방정부 관리자의 인식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영역과 업무에 대한 자율권(autonomy)이 침해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협력을 꺼려한다는 점이다.<sup>5)</sup> 관료제는 본질적으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팽창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협력으로 인한 외부의 간섭, 의사결정권의 제약 등은 가능한 한 피하려 한다. 둘째, 다른 지방정부와의 관계에서 투자에 대한 잠재적 이익이 불명확한 경우일지라

도,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많은 시간, 에너지,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특히 상호협력에 따른 이익은 먼저 투자한 이후에나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정부간의 협력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비록 상호간의 협력을 위한 법적 강제가 완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충분조건은 될지언정 필요조건은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정부간 협력에 관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나<sup>6)</sup> 현실적으로 협력이 잘 발생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기인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지방정부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이 아무리 긴요하다 할지라도 반드시 협력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몇몇 경우에 상호의존성의 증대가 경쟁(competition), 갈등(conflict) 혹은 비협력(non-cooperation)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은 비용(costs)과 편익(benefits)의 함수관계에서 생성된다고 볼 수 있다.

## 2. 지방정부간 상호협력의 논리

지방정부가 어떤 경우에는 협력을 추구하면서 또 다른 경우에는 협력을 추구하지 않는 행위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러한 지방정부간 협력의 논리를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거래비용이론, 자원의존이론, 네트워크이론 등이 가장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나, 어느 하나의 이론만으로는 지방정부간 협력 메카니즘을 정확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4) James, Tompson, *Organization in Action*, New York: McGraw Hill, 1967.

5) Janet A. Weiss, *Pathways to Cooperation among Public Agencie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987, 7(1), pp.94-117.

6)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의 공동처리에 관한 요청이나 사무처리에 관한 협의·조정·승인 또는 지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이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

다.

### 1) 거래비용이론(Transaction Cost Theory)

거래비용이론은 시장의 불완전성(불확실성과 복잡성, 소수의 거래자, 정보의 비대칭 등)으로 인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정상적인 거래대신 거래의 내부화를 통해 거래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시장과 위계의 선택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지방정부가 인근 지방정부와 도·농통합을 통해 조직간의 거래, 즉 내부화를 통해 개별거래에 따르는 모든 비용과 불완전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정상적 시장거래와 위계의 선택준거의 거래비용이론에 기초하여 Williamson은 이를 양극단의 중간형태인 준시장거래(quasi-market) 또는 준위계(quasi-hierarchy)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논증한 바 있다.<sup>7)</sup> 즉, 그는 거래를 위한 투자(인적, 물적 투자)가 특유성을 띠지 못하면서 거래빈도가 비연속적이거나 또는 연속적일 경우 정상적 시장구조(market governance)가 적절하고, 반대로 거래를 위한 투자성격이 특유하면서 거래빈도가 연속적일 경우에는 단일위계의 통합구조(unified governance)가 효과적이며, 거래투자의 특유성이 보통이면서 거래빈도가 연속적일 경우에는 규모의 경제와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거래당사자간 의무를 수반하는 쌍무적 구조(bilateral governance)가 더욱 적절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때 지방

정부간 협력관계는 거래 당사자간 의무를 수반하는 쌍무적 구조의 범주로 볼 수 있다.

### 2) 자원의존이론(Resource-dependence Theory)

자원의존이론에서는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서로간의 자원의존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고 있다.<sup>8)</sup> 즉, 정부간 협력의 핵심 동기는 지방정부 자신의 제약자원을 보완하거나 충당하려는 데 있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지방정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외부 환경, 곧 다른 지방정부의 자원에 의존해야 하고, 이러한 자원의존도가 크면 클수록 관련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의 필요성은 그 만큼 커지게 되면서 활성화를 띠게 된다는 논리이다.

이러한 자원의존이론에서는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이 발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sup>9)</sup> 우선, 지방정부간 협력을 통해 서로 상이한 자원의 보완과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모든 지방정부는 자원의 제약조건 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방정부 자원과의 결합 내지 상호보완을 통해 지속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다른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자원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아울러 상호교환에 대한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상호간의 자원에 대한 인식은 지방정부간의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러한 상호작용 가운데 공통적

7) Williamson, O. E., *Transaction Cost Economics: The Governance of Contractual Relations*, *The Journal of Law Economics*, 1979, 22, pp.233-161.

8) Karen S. Cook, *Exchange and Power in Networks of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Sociological Quarterly*, 1977, 18, pp.62-82.

9) David L. Rogers and David A. Whetten, *Interorganizational Coordination: Theory, Research, and Implementation*,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1982.

이해의 영역이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상호교류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원의존이론은 최근 상대편의 핵심자원의 학습(learning)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sup>10)</sup>

상호교류를 통하지 않고서는 상대편의 암묵적인 지식이나 노하우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방정부간 협력은 지방정부가 필요로 하는 자원습득의 기회와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지방정부간 상호협력을 통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i) 우선은 관련 지방정부로부터 학습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의 의지(intent), ii) 지방정부들의 자기자원에 대한 개방성(transparency), 그리고 iii) 수용능력(receptivity)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 3) 네트워크이론(Network Theory)

네트워크이론은 사회교환이론(social exchange theory)을 한 단계 발전시킨 것으로 정부간 관계(intergovernmental relations)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네트워크 개념은 상이한 이해관계자 집단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결속관계를 구축·유지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sup>11)</sup> 거래비용이론에서 주장하는 시장과

위계의 논리와는 구별되고 있다. 즉, 효율적인 네트워크는 시장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불확실성, 탐색비용 등)을 제약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내부(위계)에서 등장하는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공식적 조직은 사회적 외부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영향을 통해 생존(survival)을 도모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주민, 상급 및 중앙정부, 다른 지방정부와의 관계속에서 행정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생존 내지 행정활동은 다른 집단과의 네트워크관계 구축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고,<sup>12)</sup> 이러한 성공적인 네트워크관계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최소한의 조건, 즉 i) 상호지향(mutual orientation), ii) 상호의존(interdependence), iii) 힘의 결속(bond), iv) 특별한 투자관계(relationship specific investment)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sup>13)</sup>

이상에서 종합해 볼 때, 네트워크이론은 불확실성, 탐색비용 등에 의한 거래비용을 소홀히 취급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정부간의 협력은 정보왜곡, 상호경쟁, 관료적 속성 등으로 인하여

- 
- 10) Hamel, G., Competition for Competence and Inter-partner Learning within International Strategic Alliances, *Aloan Management Journal*, 1991, 12, pp.83-103.
  - 11) Hakanson, H and Johanson, J., The Network as A Governance Structure: Interfirm Cooperation beyond Markets and Hierarchies, in Grabher, G. (eds.), *Industrial Networks: A New View of Reality*, London: Routledge, 1994.
  - 12) 조직간 네트워크는 연계망(linkages)으로도 이해되는데, 이러한 연계망은 다양한 참여조직간의 행정적, 재정적 교환 및 서비스제공을 확대시킴으로써 상호협력을 유지시키는 메카니즘을 말한다. Rogers and Whetten, op.cit., p.27
  - 13) Johanson, J. and Mattson, L. G. *Interorganizational Relations in Industrial System: A Network Approach Compare with the Transaction Cost Approach*. *International Studies of Management and Organization*, 1987, 31, pp.34-48.

거래비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래비용이론도 거래비용의 최소화라는 경제적 논리에 치중한 나머지 지방정부간 협력의 ‘의도성’을 도외시하고 있고, 자원의존이론 역시 지방정부간 협력의 이유와 타당성을 설명해 주고 있지만 협력이 지난 상호통제적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간의 협력의 동기 및 타당성 측면을 설명하는 데는 이들 제이론들의 상호보완적 적용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 III. 지방정부간 상호협력의 조건과 협력모형

#### 1. 지방정부간 상호협력의 조건

지방정부간의 협력은 어떤 경우에 또는 어떻게 해야 생성하고 강화되는가? 왜 어떤 지방정부는 협력에 열의를 갖고 있고, 다른 지방정부는 그렇지 못하는가?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인기 있는(popular) 이론적 도구가 네트워크이론(network theory)이다. 네트워크이론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비용(cost)과 편익(benefit)의 계산에 토대를 둔 자발적 거래관계(voluntary transaction)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지방정부들간의 협력은 이러한 행위로부터 상호편익이 많을 때 발생한다고 본다.<sup>14)</sup>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일면 그럴 듯하게(plausible) 보이지만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지방정부간의 협력행위를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편익을 관료적 판단에 의존해야

하고, 특정한 지방정부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협력을 추구할 때 각각의 행위로 인한 편익이 균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간의 협력은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만 발생한다고 보는 네트워크이론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Weiss는 네트워크이론을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조직간 협력을 위한 6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sup>15)</sup> 그는 비용과 편익을 i) 재정적 자원(financial resources), ii) 규범과 가치의 만족(gratification of norms and values), iii) 정치적 결과(potential consequences)로 나누고, 협력을 하는 원인을 i) 문제해결(problem solving), ii) 불확실성 감소(uncertainty reduction), iii) 법적 명령(legal mandates)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이 현실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그 이유는 “상호협력으로 인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협력을 꺼려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협력으로 인해 보다 나은 서비스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든가”, “재정적 이익이 있다든가”, “협력으로 인해 문제가 해결된다든가” 하는 등 전반적으로 상호협력의 편익에 대해서는 지방관료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아직 이러한 연구를 찾아보긴 힘드나 지방정부간의 환경협력

14) Cook, op.cit., pp.62-82.

15) Weiss, op.cit., pp.99-109.

과 관련하여 상호협력을 꺼려하는 이유로 자치단체장의 의지 미흡, 주민이해 등을 이유로 한 지방관료들의 부정적인 태도가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up>16)</sup>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협력으로 인해 자율성이 침해받고, 복잡하고 골치아프며, 또한 인근 지방정부와 적절한 경쟁과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선거, 주민통합 등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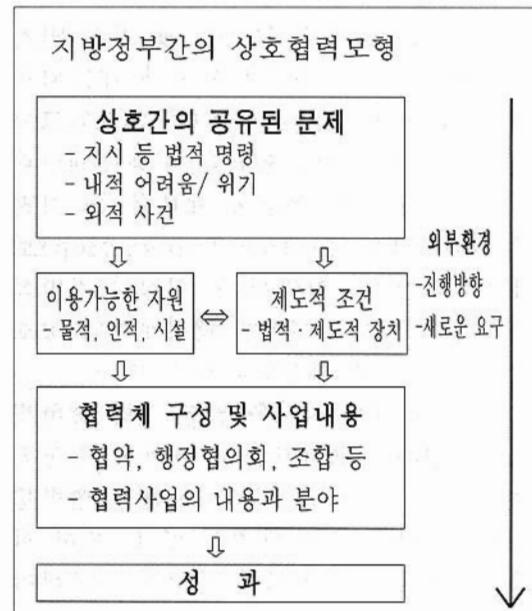
## 2. 지방정부간 교류협력: 협력모형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은 상호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공동의 혜택(shared benefits)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호협력은 개별적 문제의 공동적 해결의 필요성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협력은 지방정부간에 신뢰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상호신뢰는 상대 정부에 대한 긍정적·호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상호신뢰는 오랜 역사성 속에서 나타날 수도,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지방정부간 상호협력은 상호편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에서 비롯된다.

이상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그림>에서와 같이 지방정부간 상호협력의 과정적 모형을 제시해 볼 수 있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지방정부가 자신의 목표를 다른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달성하기 위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협력의 과정적 모형(process model of cooperation)은 시간(time)과 상호협력의 이유, 조건, 방향, 그리고 외부 환경을 모두 고려

하여 설계(desing)하였다. 조직간 관계론(interorganizational relations)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각 이론들의 구성요소를 결합·재구성하였으며, 복잡하고 불확실한 과정의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지방정부간 네트워크의 생성과 운영을 위한 중요한 지침(guide)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지방관료들이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을 생성하기 위한 중요한 선택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협력 행위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problem)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방정부내 다양한 행위자 혹은 집단에 의해 제기되나, 다른 지방정부와의 상호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는 공유된 인식이 전제된다. 몇몇 경우에 문제는 조직내 집단에 의해 공동해



16) 사득환, 전계논문, 2002, pp.123-144.

결을 위한 문제로 조작(framing)되기도 하며, 만약 공동해결이 필요하지 않은 문제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는 없다.

두 번째는 상호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정부 입장에서 이용가능한 자원 및 제도적 조건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지방정부가 이용가능한 자원에는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시설자원 등이 있으며, 물적 자원은 주로 재정문제를, 인적 자원은 공무원의 충분성 및 이들의 전문성을, 그리고 시설자원은 토지와 그것의 부대시설능력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상호협력을 생성시키기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조건들도 탐색해야 한다. 즉, 상호협력의 조건,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법적·제도적으로 자신의 이용가능한 자원을 참작하여 분석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 경우 법적·제도적 조건들은 상호협력을 위한 조건(precondition)으로 기능하기도 하지만, 상호교류의 합법성 내지 정당성(legitimacy)을 제공해 주는 역할도 수행한다.

세 번째 단계는 서로간의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 구성 및 내용(영역)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협의체 구성 및 내용은 두 번째 단계인 지방정부내 이용 가능한 자원, 그리고 법적·제도적 조건에 의해 강한 제약을 받는다. 이 단계는 각 지방정부가 마련한 이용가능한 자원과 법적·제도적 장치들을 기초로 계약, 협의회, 조합, 광역연합, 특별구 등과 같은 협력체를 구성하고,<sup>17)</sup> 사업내용과 분야를 선택하게 된다. 많은 경우에 지방정부간의 협력사업의 내용은 당사자간의 회합(meeting) 혹은 협력체에서 논의되고 결

정된다. 이러한 단계를 성공적으로 거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지 상호협력의 결실을 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로 주변 환경과 끊임없는 영향을 주고받는 역동적 과정임은 물론이다.

이상에서 각 단계는 필요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즉, 어느 하나의 단계라도 생략된다면 상호협력의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어느 한 조건의 부재는 협력이 불가능함을 나타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협력모형을 토대로 설악권의 폐기물처리장 등의 건설이나, 관광, 지역개발 등을 매개로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설악권협의회의 활성화 등에 적용함으로써 공동발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V. 지방정부간 상호협력의 길

### 1. 지방정부간 상호협력의 내용

지방정부간 상호협력은 현대에 와서 더욱 활성화된 개념이다. 물론 협력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제한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협력은 교통과 통신수단, 정보화의 진전 등 물질문명의 발달과 이념시대의 종식 등으로 인하여 협력대상도 종래의 자국중심에서 최근에는 세계국가로 다변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정부간 협력의 관계 역시 종래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이해를 도모하고 존중하는 차원에서 상호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이 갖는 변화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협력의 주체가 과거의 국가위주에서 지방

17) 각각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득환, 전계논문, 2002, pp.123-144를 참조할 것.

정부나 민간단체, 기업 등 개별주체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과거에는 협력이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 한정되었으나 오늘날은 농업, 어업, 관광, 문화, 예술, 학술, 정보 등 모든 분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이마다 보니 협력을 위한 제도적·행정적·사회적 장치 또한 보편화되어 간다는 점이다. 지방정부간 협력에서 어떤 사업내용과 분야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협력체에서 논의되며, 이는 개별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이용가능한 자원과 법적, 제도적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것이 자매결연을 통한 인적교류이다. 자매결연은 인적왕래가 주류를 이루며, 상호교류를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우호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자매결연은 주로 비경제 분야에 한정되고, 단체장 상호방문, 공무원 및 주민교류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있다. 특히 자매결연은 현실적으로 다양한 주민왕래 등을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관간의 상호 우호증진에 머물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인 상호협력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는 경제교류이다. 이는 당사자간의 물적 교류를 말하며, 신뢰와 우호증진은 물론 궁극적으로 상호이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제교류의 대상으로는 관광, 물류, 교통, 환경, 통상, 공업, 농업, 어업, 임업 등 뿐만 아니라 공동조사, 합작투자 등의 사업까지도 포함한다. 일반

적으로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이라 함은 경제교류를 의미하며, 대부분의 지방정부들이 성장지향적인(growth-oriented) 성향을 띠기 때문에 빈약한 자원을 보충하면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은 상호 경제교류를 통한 보완적 발전전략이 그 대안이다.<sup>18)</sup>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경제적 협력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교류협력의 조건변화(동기 등)와 각 지방정부가 이용가능한 자원의 제약(물적 동원, 인적 전문성, 시설 등)이 주된 원인이다.

셋째는 문화·체육교류이다. 이는 주로 지역내의 민간단체들간에 주로 이루어지는 교류형태로서 문화(축제 등), 예술, 스포츠(친선경기 등), 학술교류 등을 지칭한다. 이를 통해 서로의 이해와 상호신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다양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넷째는 행정교류이다. 이는 지방정부간의 직원들을 상호교류함으로써 인력개발과 기술지원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형태이다. 특히 상대방의 행정업무에 대한 지식획득, 정보교류 등 벤치마킹을 통하여 보다 나은 행정관리 방식을 학습함으로써 상호 행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 협력방식이다.

## 2. 지방정부간 상호협력의 길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과 지방간의 관계는 물론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조차도 종래의 '지시-복종관계'에서 '상호조절

18)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각 지방정부가 자신의 개성있는 전략적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다른 지방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교류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때 각 지방정부는 지역산업을 환경과 연계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sustainable)을 창출해야 한다. 사득환,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발전 전략", 강원대 개교 50주년 기념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1997, 2, pp.5-21.

(mutual adjustment)과 협력관계'로 전환시키고 있다. 즉,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점차 확대되면서 정부간에 상호 대등한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특히 지방정부의 경계를 뛰어넘는 폐기물처리장, 수자원이용, 관광산업 등과 같은 외부성(externality), 무임승차(free-riding) 효과가 큰 문제는 서로간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지방정부간의 상호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찍부터 지방자치가 발달하고, 다원화된 정치·행정구조를 갖고 있는 미국의 경우 주정부간 협의체로서 Appalachian Regional Commission(ARC), Title V Commissions, 그리고 지역개발·수자원관리·항만관리 등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간에 체결된 Interstate Compact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ARC와 Title V는 주로 경제적으로 궁핍한 지역의 공동발전을 위해 형성된 것이다. 미국의 지방정부협의회(Council of Governments)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지방정부협의회는 대도시권역 내에 기능하는 정부들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자발적인 연합체로서,

상호간의 업무협의 및 조정뿐만 아니라 공동문제에 대한 연구, 계획수립, 자문 등의 서비스도 수행함으로써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각 지방정부의 사업이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작성한 광역계획(regional planning)에 적합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정부가 사업의 수행시 광역적인 시각에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sup>19)</sup>

한편, 캐나다의 밴쿠버유역(GVRD: Greater Vancouver Regional District)의 경우, 밴쿠버강을 중심으로 18개 지방정부가 유역관리를 위해 설치한 독립적인 기구로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sup>20)</sup> 강유역에 인접한 주변 지방정부는 강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공동으로 갖고 있으며, 강유역의 보전과 개발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인근 지방정부간의 경쟁과 분쟁은 이 기구내에서 조정되고 있다. 이 기구의 운영경비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의 세금으로 충당되지만 환경기초시설 등 많은 부분에서 연방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간 협력방식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19) 미국의 경우, 애틀란타 지역협의회(the Atlanta Regional Council: ARC)가 가장 대표적인 광역행정협의회인데, ARC는 지역협의회가 갖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정부들의 협의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지방정부로서 분담금을 징수함으로써 협의회의 위상을 되찾기도 하였다.

20) GVRD Water System은 북미에서 가장 큰 규모로서 총 유역면적 2,000km<sup>2</sup>, 180만명의 유역인구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으로 매일 11억톤의 상수공급과 10억톤의 하수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역내 하천관리 주요 시설로는 6개의 댐, 5개의 광역하수처리시설, 6개의 호수, 22개의 물공급저장소, 18개의 공원 등이 있으며, 유역의 하수처리율은 98%에 달한다. 하천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1967년 대표자회의를 시작으로 1971년 18개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GVRD Board를 결성하였다. GVRD Board내에는 총 12개의 산하 부서가 있으며, 942명이 일하고 있다. GVRD는 총 4개의 권역으로 나뉘어져 관리되고 있으며, 각각의 오·폐수는 각각의 지역하수처리시설로 모아져 처리된다. 1995년 GVRD의 관리를 위하여 투자된비용은 총 3억 2,000만 캐나다 달러로 이중 77%는 관련 지방정부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가 보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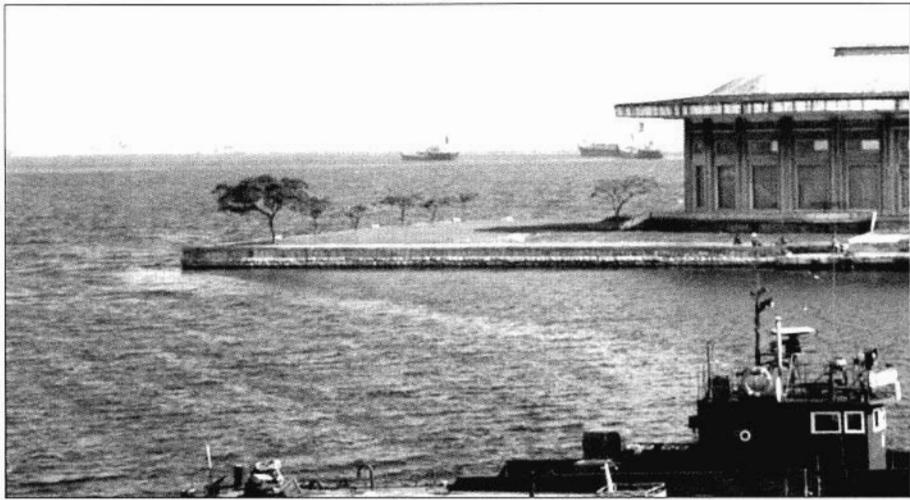
속초는 참 좋은 고장이다. 도시가 커지고 번화해지고 관광지로 각광을 받아서가 아니고 나는 아주 오래 전부터 이 고장에 애정을 느껴왔다. 먼지가 한계령 골안을 뿐양게 메우던 자갈밭 길을 넘어 양양에 들러 자그마한 막국수 집에서 요기를 하고, 오른쪽으로 낙산의 푸른소나무 밭을 끼고 속초로 향하노라면 마치 어릴적에 고향을 찾아가는 것 같은 설레임마저 느끼곤 했던 길. 막힌데가 없다면 이 길을 자꾸 따라 가노라면 함경도 어느 산골의 내 고향마을에 닿겠건만! 등대가 있고 고깃배가 통통 소리내는 작은 부두 옆길에 세워진 수복기념비 위에 세워놓은 어머니와 아이형상의 조각물을 나는 지나갈 적마다돌아다 보고 또 돌아다 보곤 했다. 남들은 무심할지 모르지만 나는 지금도 감상에 젖곤 한다. 나라가 갈라지고 철조망과 지뢰가 고향가는 길을 너무도 오랫동안 가로막고 있으니, 백성의 마음마다 통일의 염원마저 모자의 상(像)처럼 딱 그 자리에서 굳어져 가는 것 같아서 더욱 서글프다.

지난 9월 어느날, 휴전선 최북단의 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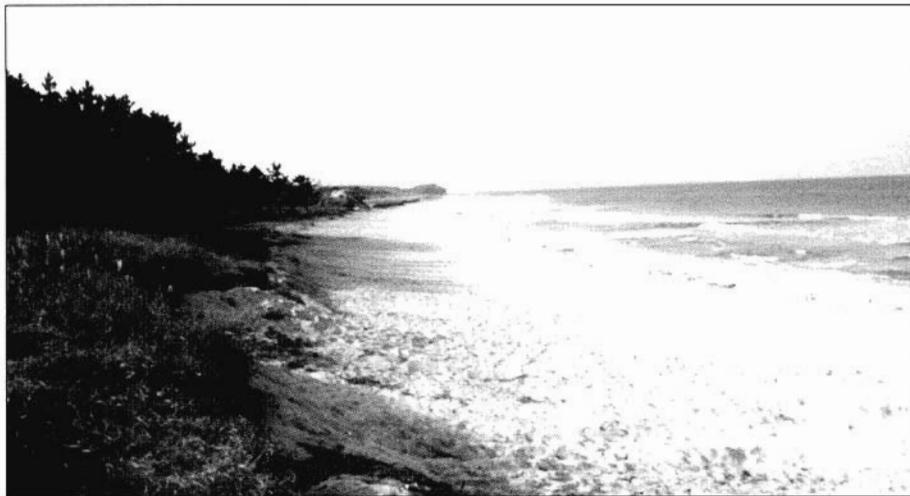
언덕에서 동해의 남북철도 육로를 트는 기공식이 있다기에 멀찌감치 에서나마, 뜻있는 정경을 내눈에 새겨 두고자 친구와 함께 북으로 북으로 차를 달렸다.

오른편 차창으로 내다보는 경치는 언제 보아도 정말 멋지다. 작은 고개를 넘으면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잘 가꾸워진 논밭은 마침 가을철이라 황금 빛 들판. 더욱 잘 어울린다. 왼쪽 차창으로는 남북으로 뻗은 높은 산들이 큰 병풍을 이루고 있다. 작은 농촌마을도 고깃배가 가득한 어촌도 모두 다 그저 풍성해 보인다. 널찍하게 새로 닦은 길이라 통일전망대까지 가는데 얼마 안 걸린 것 같다. 언덕에 올라서 내려다 보니 남북도로 철도를 잇는 기공식장이 보이고, 저 멀리에 금강산 어느 봉우리와 눈앞의 철조망 휴전선 바로 저쪽 낙타등 고개가 한눈에 들어온다. 세상 돌아가는 모양에 비추어 보아서는 철도·도로 연결이라는 것이 아직은 잘 어울리지 않지만 변하는 현장을 두 눈으로 보니 감회를 지울 수가 없다.

나는 금강산에서 샘물을 생산하고자 대북 투자를 한 어느 회사의 일을 돋고 있어서



元山항구, 갈마반도 명사십리가 길게 뻗어있다.



북 강원도 통천군  
모래가 곱고, 해안은 끝없는 모래밭, 해당화 피고, 푸른 소나무 밭,

여러해 동안 종종 저 고개 넘어 ‘북녘땅’에 가 보았는데, 그럴때마다 그 사람들과 남북의 설악산과 금강산 옛 관동팔경關東八景을 연결해서 ‘큰일’을 미리 준비 하자고 했다.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냐고 한 이들도 있었지만, 세상일은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는 오는 것이라고 믿기에 그랬다.

지금부터 14년전 일찍이 1989년에 북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기자회견 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 ‘질이란 태초부터 있는 것이 아니고 첫걸음 내딛는 사람이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 첫걸음에서 이슬에 바지가랑이 젖을까봐

또 혹시 가시 덩굴에 긁혀 피가 날까봐 주저한다면 길은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

그 때 나는 저 낙타고개 넘어 풀밭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운 '속초'를 그려보았다. 그리고 좋은 벗들과 괴로워하

는 피난민 이산가족들의 얼굴을 상상해 보았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이 고장에서 살아온 사람이거늘 친척간에 성묘도 못하는 그들의 서글픔은 '남북통일'에 견주어서 떠오른 잡상雜像을 신문에 쓴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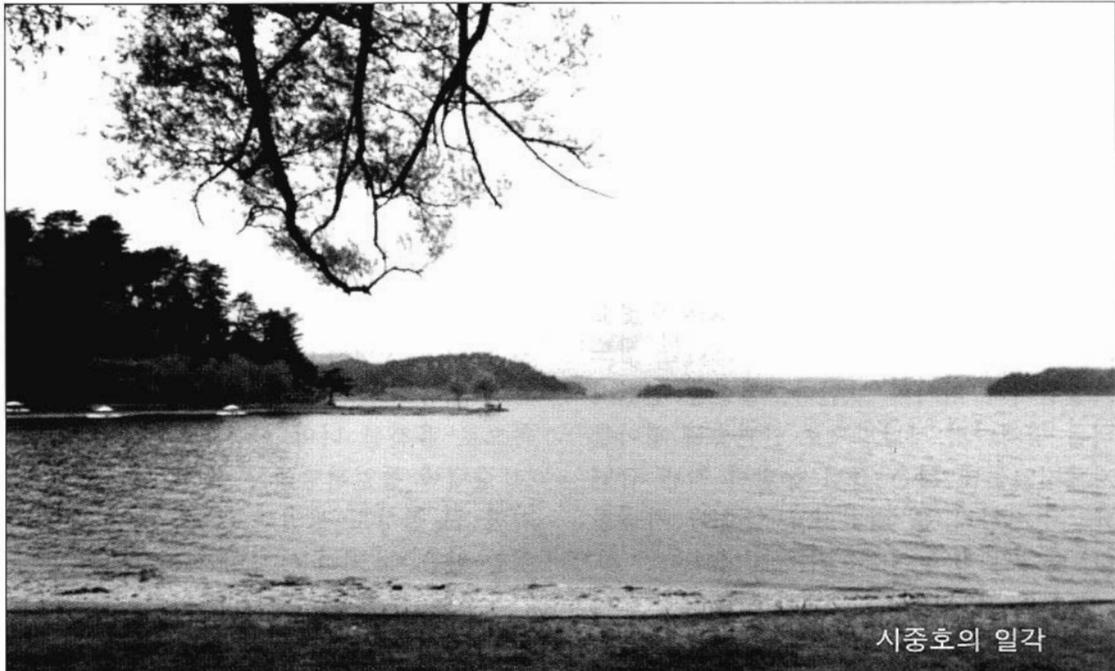
이런 줄거리이다.



북의 고성군 한 골안  
산과 나무와 물과 냇가 그리고 갈대, 남쪽 어느 골안과 다를바 없는 山下



동해철도 금강산 온정리역 (지금 이름은 금강산 청년역)



시중호의 일각

... 백성들에 있어서 통일은 별다른게 아니고, 북쪽 고성高城사람들이 예전처럼 저고개 남쪽 고성땅 거진이나 속초에 사는 아들 딸집에 고기 꾸러미 들고 찾아갈 수 있고, 남녘의 마을 사람들이 장날에 친척들을 찾아 북으로 와서 술 한잔 나누고 놀다가 돌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면... 그게 통일인데...

세상 돌아가는 모양으로 보아서는 철조망을 헤치고 철길을 연다는 것이 아직은 때가 설익은 것 같기는 해도 어떻건 눈앞에 전개되는 변화의 현장은 나로 하여금 감회에 젖게 한다.

나는 금강산에서 샘물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하는 대북투자업체의 일을 돌보고 있어서 여러해에 걸쳐 북한을 방문했고, 종종 북녘 '고성군'을 들려 보았다.

나는 그 사람들과 매우 오래전부터 그 '정치'라는 것은 빼고 무엇이건 백성들이 모두

좋아할 일을 찾아서 해보자고 했다. 무엇보다도 동해안 남북에 걸친 옛 '관동팔경關東八景'을 다시 잘 가꾸어서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금수강산을 자랑하며 관광사업으로 '외화벌이'도 할겸 온 세계에 문을 열자고 했다. 우선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계하는 철도를 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날 철도기공식을 멀리서 바라보며 만감이 오갔던 것은 그런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한 열흘후에 나는 북한에 일보러 가서 원산元山에서 동해안을 따라 남으로 북 고성군北高城郡을 향해 차를 달렸다. 통일전망대에서 직선이면 불과 몇킬로 밖에 안되는데 그토록 가까운 북 고성으로 가는데 멀리 북경, 평양, 원산을 돌아서 사흘이나 걸려 고성 땅을 밟은 것이다.

속초에서 북으로 거진을 향하던 며칠전의 풍광을 상기하면서 차창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이번에는 남쪽을 향한지라 왼쪽 차창으로 동해의 푸른바다 흰 모래밭이 보이고 멀

리 남북을 잇는 산맥의 높은 연봉이 정말 멋지다. 며칠전 속초에서 북으로 향하던 때의 풍광과 다른 것이 없다. 정말 아름다운 강산, 한나라, 같은 조국산하山河임을 느끼며, 통일의 그날을 꿈꾸어 보기도 했다. 원산 송도원 해수욕장은 벌써 문 닫았지만 파도는 예나 다름없이 밀고 오고 간다. 비행기지라 갈 수 없는 갈마반도는 길게 수평선으로 뻗었고, 산이 우뚝 선 여도라는 섬도 가을철이라 다가와 보인다. 철길은 원산시내를 벗어나자 서남방으로 안변安邊 평야를 가로지르는데 넓은 들녘 논밭이 작년 금년에 '경지정리'를 마쳤다고 힘주어 자랑한다. 왜 그토록 늦어졌는지 궁금했다.

통행이 적어서 교통사고의 위협이 없으니 길 한가운데를 달리는 것이 통쾌히 느껴졌다. 남의 경포대나 영랑호처럼 북쪽 강원도에도 호수가 여럿 있고 경치 또한 아름답다. 인적이 드물어서 너무 지나치게 청결하니 좀 이상스러운 느낌마저 든다. 큰 호수 '동정호'와 '시중호', '삼일포', '감호' 그리고 속초의 영랑호와 같은 이름의 '영랑호' 등등이다.

예전의 온정리溫井里역은 그 이름이 '금강산청년역'으로 바뀌었고, 큼직한 역사를 지난 끝머리에서 원산-금강산 사이의 동해 철도는 '종단'이 되었다. 옛 역사가 있던 바로 앞에는 그때부터 있었다는 푸라타나스 몇그루가 이제는 고목으로 크게 자라서 좋은 경치를 이루었다. 예전에는 이 철길따라 철마는 남쪽 양양까지 큰 기적을 울리며 달렸을 것을 생각하니 쓸쓸해 졌다. 여기부터 남쪽은 철도로 반이 잡초로 뒤덮였다. 금강산 샘물공장까지 약 1킬로 구간의 인입선도 잘 연결되었다. 여기서부터 휴전선까지 16킬로 구간의 철도는 새로 놓아야 한다. 예전에 군청 소재지였다는 구 고성읍은 북으

로 장전읍에 이사가고 나서 이제는 작은 마을이 되었고, 옛 역자리에는 기관차에 물을 넣는 급수탑 콘크리트가 그대로 남아있다.

남쪽에서 겪은 지난번 집중호우와 수해는 복이라고 다를 것이 없었다.

복구에 나선 사람들의 손 작업은 암스러워 보였고, 끊긴 다리나 시설을 복구하는 남녀 일꾼들의 모습을 보고나서는 가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고 주고 싶어졌다. 땀흘리는 그들 백성은 과연 '누구' 이냐… 멀리 남쪽으로 휴전선 너머 산봉우리는 남한이다. 그 중턱에 통일전망대가 있다. 바다쪽에 나가면 큰 불상도 보인다. 손을 내밀면 닿을 것만 같은 이 가까운 사이가 어쩌다가 반세기半世紀 넘게 갈라졌단 말인가. 갈라지고 해여진지도 오래니 묘지는 늘어나고, 가슴을 쥐어 뜯으며 통곡하는 불쌍한 백성. 그 보통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60년이나 가로막는다는 말이냐!

실오라기 같은 길이라도 우선 하나부터 잇자, 그리고 또하나 잇고 다음에 둘 셋을 이어나가면 그게 통일나라 아니겠는가.

한 두주일동안에 남쪽 동해안길과 북쪽 동해안길을 다녀본 내 심경은 내 스스로도 이상스러울 만큼 비애와 분노와 무슨 결의 사이를 맴돈다. 억지로 갈라놓고 힘으로 오가지 못하게 해서 살림살이는 변했지만, 아름다운 조국의 산과 들과 흙과 바다는 그대로이다. 어린아이 손을 잡은 어머니 모습도, 광주리 이고 가는 아주머니도, 논두렁을 구부정한 걸음으로 걷는 할아버지의 주름속 웃음도 한겨례, 같은 모습이다. 가시철망, 지뢰밭 휴전선 쪽으로 향해 눈감고 기도를 드린다. 제발 이 불쌍한 보통백성들을 붙잡아 매두지 말고 제발 제 뜻대로 마음내키는 대로 살게 해 주시기를 .....

# 雪嶽山 國立公園 管理의 現況

이 형 우/ 설악산관리사무소 소장

- 건국대학교 졸업(행정학과)
-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단본부 홍보실장
- 오대산, 주왕산, 계룡산, 덕유산  
관리사무소장 역임



## I. 序論

우리나라 국민들중 대부분은 “국립공원”을 찾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립공원이 무엇인지? 어떤 곳인지?”를 알고 찾는 사람은 매우 적을 것이라 생각된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 자연공원법에 정의되어 있으며,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목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립공원은 풍부한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중의 하나임과 동시에 국민들의 휴식과 탐방활동 등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간이라는 양면적인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중요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1970년 3월 24일 우리나라에서 다섯 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설악산의 유래는 “한가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이 이듬해 여름에 비로소 없어지기 때문에 눈에 덮혀 있다는 뜻으로 설악산이라 불린다.”라고 기록된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증보문현비

고」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설악산은 풍부한 동식물자원과 빼어난 자연경관을 지닌 우리나라 제일의 명산으로서 국립공원이면서도 1965년에 설악산천연보호구역으로, 1982년에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그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다.

이와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설악산국립공원의 관리는 국립공원 지정 초기인 1967년 건설교통부(과거 건설부)에서 시작하여 1991년 행정자치부(과거 내무부)로 이관되었으며, 최근 환경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에 따라 1998년 환경부로 이관되어 현재 야생동식물보호, 훼손지복구, 탐방예약제 운영 등 “자연생태계 보전”의 이념 하에 국립공원 관리가 추진되고 있다.

## II. 本論

설악산국립공원은 속초시, 고성군, 인제군, 양양군 등 4개 시군에 걸쳐 371.346km<sup>2</sup>의 공원면적과 4.315km<sup>2</sup>의 보호구역을 포함한 광대한 면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리적

으로는 백두대간의 일부분인 태백산맥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1,708m의 대청봉과 공룡능선, 화채능선 등 주요능선을 경계로 외설악, 남설악, 내설악으로 구분되어 불리고 있다.

수많은 암봉과 계곡, 폭포 등이 이루어져 빚어내는 설악의 절경으로 인해 매년 약 3백만명의 탐방객들이 설악산을 찾고 있으며, 이로인해 발생하는 관리소요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의 관리는 효율적인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용도지구관리, 자연생태계 보존과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자원보전관리, 탐방객관리 및 탐방문화개선을 위한 탐방서비스관리, 대피소, 안전시설 등 공원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물유지관리 등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 용도지구관리

국립공원내 자연자원의 보존 등 효율적인 국립공원 관리를 위해 해당지역의 특성에 따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자연취락지구, 밀집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 등 5개의 용도지구로 구분하고 있다. 각각의 용도지구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 자연보존지구

: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 - 자연환경지구

: 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 - 자연취락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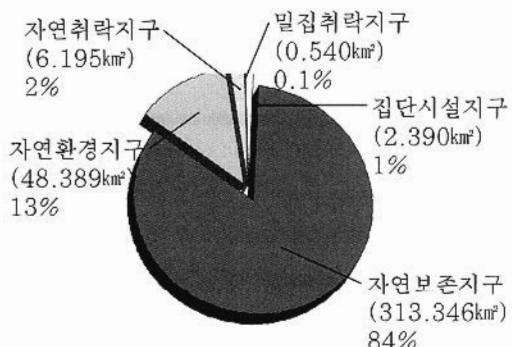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

### - 밀집취락지구

: 취락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지역

### - 집단시설지구

: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전·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설악산국립공원의 용도지구는 자연보존지구 313.346km<sup>2</sup>, 자연환경지구 48.389km<sup>2</sup>, 자연취락지구 6.195km<sup>2</sup>, 밀집취락지구 0.540km<sup>2</sup>, 집단시설지구 2.390km<sup>2</sup> 등 모두 371.346km<sup>2</sup>이다. 이중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보존지구가 8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각의 용도지구는 자연공원법에 의거 허용행위 등에 제한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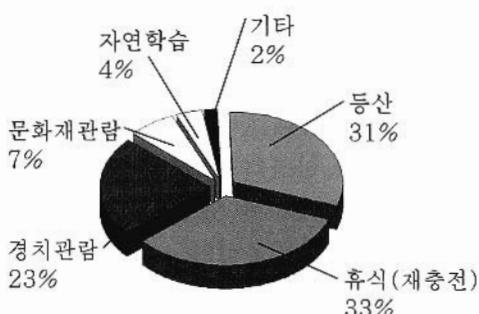
## ◎ 자원보전관리

설악산은 1965년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자체가 하나의 큰 천연기념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설악산에는 동물 2천여 종, 식물 1천 3백여종, 고등균류 180여종 등을 포함하여 모두 3천 5백여종의 생물자원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울산바위, 흔들바위, 공룡능선, 용아장성 등과 같은 경관자원과, 봉정암, 신흥사, 백담사 등의

문화자원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다. 이러한 자원보전을 위한 활동으로는 자연자원종합조사, 계류생태모니터링, 자연휴식년제구간모니터링, 조류생태모니터링 등 자연생태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요 자연자원보호를 위한 자연휴식년제 시행, 도로 등으로 인해 교란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이동통로 조성, 자연생태계 교란방지를 위한 외래동식물 현황조사 및 제거, 과거 무분별한 탐방활동과 야영활동으로 인해 발생된 훼손지에 대한 복원사업 및 모니터링, 수질환경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수질측정망 운영, 수질오염발생시설물 관리, 산불예방 순찰 및 진화, 공원내 행위허가·공원사업 협의 및 허가, 자연자원 유출 감시 순찰 및 단속활동 등이 해당된다.

### ◎ 탐방서비스 관리

연간 약 3백만명의 탐방객이 찾는 설악산국립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연자원관리도 중요하지만 자연자원을 감상하기 위해 찾아오는 탐방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결국 탐방객 등 이용자를 관리하는 것이 자연자원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악산을 찾는 탐방객의 성향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아직도 설악산국립공원을 유원지 정도로 생각하고 찾는 이용객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우리사무소에서는 과거 놀고 먹고 즐기기 위한 국립공원 탐방문화를 보고, 체험하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탐방문화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지금까지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공원환경 훼손이 우려되었던 분야에 대해서는 탐방활동을 규제하는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탐방서비스관리에는 설악산에 대한 정보제공과 안내기능, 가상 체험 등을 할 수 있는 탐방안내소가 신축중에 있으며, 자연현상과 동·식물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관찰로 설치 및 자연해설프로그램 운영, 지원자의 국립공원활동 체험을 돋기 위한 자원봉사제도 운영, 설악산의 적정한 수용력을 고려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탐방예약제 및 시설물이용예약제 운영, 자연자원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야간탐방제한,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를 위한 구조·통제업무 등이 해당된다. 이외에도 공원내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단속, 비법정 탐방로 폐쇄, 성수기 공원관리, 재해대책반 운영 및 복구작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 시설물유지관리

우리사무소에서는 설악산을 찾는 탐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로 시설물이 집중되는 집단시설지구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다. 시설물에는 관리사무소, 탐방안내소, 매표소, 주차장, 야영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안내표지판, 탐방로 등이 해당되며 이외에도 케이블카 등 민간인이 관리하는 시설도 있다. 시설물 설치 및 보수시 주변환경과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 자연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친화적으로 시설물을 조성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공중화장실의 경우 내·외부의 개보수를 통해 아름다운화장실 등 여러 차례 수상을 하기도 했다. 대피소, 안전시설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탐방객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안내표지판도 설악산국립공원 특유의 디자인을 도안하여 설악산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각 탐방로 및 청손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탐방로 정비 및 청손지 복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탐방객의 안전관리를 위해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다목적위치표 지판을 약 500m 간격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 III.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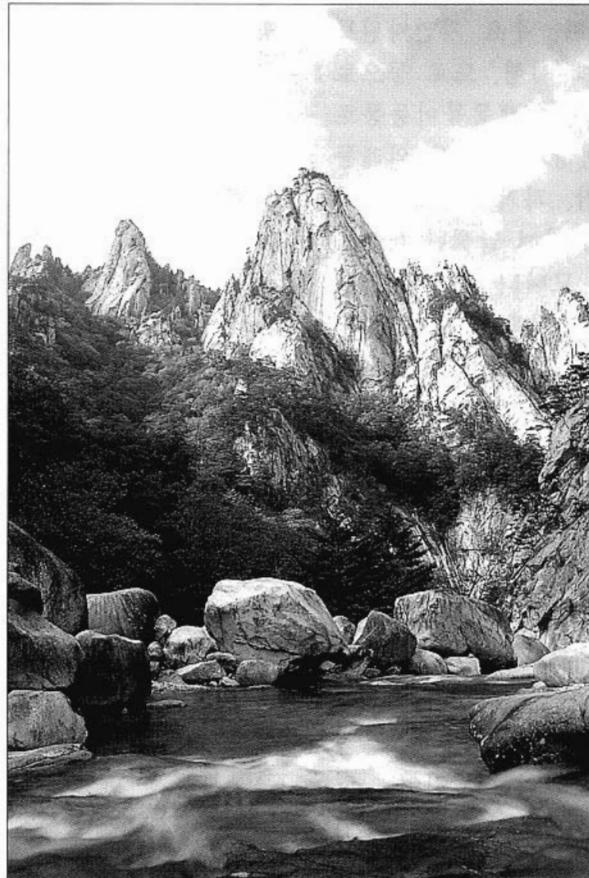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용도지구관리, 자연자원보존, 탐방서비스관리, 시설물유지관리 등 설악산국립공원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근시일내에 현실화될 주 5일근무제도 등으로 인해 설악산국립공원의 관리소요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사무소에

서도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복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자연을 보고 느낄 수 있는 탐방문화를 조성하고,

자연친화적인 시설물 설치와 관리를 실현하여 국립공원의 선진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결 음 더 나아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국립공원 관리를 목표로 설정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설악산국립공원의 보존은 설악산관리사무소만의 몫이 아니라 설악산을 탐방할 수 있는 국민 모두의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고 모두 이용하고, 가질 수 있다고 모두 가진다면 설악산은

명성만을 남기고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용하고 가질 수 있을 때 아끼고 보살피는 마음으로 설악산을 찾는다면 설악산국립공원은 후세에 길이 물려줄 아름다운 우리나라 제 1의 명산, 세계의 명산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몇십년, 몇백년 후에 변함없이 아름다운 동·식물에 둘러쌓여 웅장한 자태로 서 있을 설악산과 환한 후세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제13회

# 속초시 문화상에 빛나는 얼굴들

속초시민을 위한 행사

2002년 11월 2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강당

## 5인의 PROFILE

---

문화예술 부문 / 심연흠 ·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부문 / 박명자

---

효행 부문 / 조미자 · 교육 부문 / 오윤근 · 체육 부문 / 이건화

---



## 문화예술 · 심연흠(沈蓮鉉)

한국음악협회 속초시지부 지부장

### 1. 주요공적내용

- '91년 음악협회 시지부 설립까지 협회인준의 중추역할 담당
- 지난 10여년간 100여회에 이르는 공연물을 제작, 유치하는 등 왕성한 음악활동과 수준 높은 음악예술 공연을 통하여 지역음악발전에 기여
- 설악청소년 음악콩쿠르를 9회째 개최하여 설악권의 대표적인 청소년 문예경연대회로 성장시킴
- 설악청소년 음악회를 5년째 실시하여 지역 최고의 청소년 음악회로 발전시켜 전전한 청소년 문화정착에 일조
- 미션피아노트리오를 창단하여 영북지역 군부대 순회공연을 통한 위문 사업을 활발히 전개
- 속초시립합창단 지휘자를 수년간 역임하였으며, '94년 전국합창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속초합창음악의 위상을 높임.
- 설악엔젤스 소년소녀합창단을 창단하여 수회 걸쳐 합동연주회를 개최하였으며, 미국의 그레샴합창단과 2회에 걸쳐 합동연주회를 개최하는 등 문예사업을 통한 민간외교 사절 역할을 수행
- '99년부터 예총 속초지부 부지부장을 역임하며 다양한 문예사업과 문예정책 참여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함.

### 2. 주요경력

- '91, '93, '94, '99년 : 속초시립합창단 지휘자 역임
- '91~'02. 1 : 한국음악협회 속초시지부장 역임
- 2000~현재 : 설악엔젤스합창단 단장 역임

### 3. 수상경력

- '94년 : 전국합창경연대회 단체 최우수상
- '83, '86, 2000년 : 강원도 교육감 표창
- '92년 : 속초시장 감사패
- 2000년 : 2000 강원음악대상 수상



##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 · 박명자(朴明子)

속초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

### 1. 주요공적내용

- '74년 재건국민운동에 참여하여, 속초시 전역에 1가구 1통장갖기운동을 전개하여 저축 저변확대에 기여한 바 있으며
- 서민과 저소득층들의 생활안정을 돋기 위해 5개 새마을금고(영랑동, 동명동, 금호동, 교동, 청호동)를 설립하는데 일조
- 육영회 회장으로 역임하면서 각 유치원 등에 2.000만원 상당의 지원과 9개 유아원에 필수품 등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4명씩의 장학생을 선발
- 속초문화원 이사를 역임하면서 속초시지 편찬에 참여, 시민헌장탑 건립 등 향토사 발굴에 기여
- 여성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여성회관 건립에 적극 참여, 교동새마을금고에 10여년 동안 무보수 이사장을 역임하면서 서민금융기관으로 앞서가는 금고로 성장시켰음.

### 2. 주요경력

- 속초시 새마을지도자 부회장
- 속초시 여성단체장 및 속초문화원 이사
- 평통정책자문회의 및 여성회관 건립추진위원
- 강원도 도정위원 및 여성회관 건립추진위원
- 속초, 고성, 양양 새마을금고 이사장 중앙대표(대의원)
- 평통정책자문위원 속초시협의회 회장
- 새마을금고 이사장협의회 강원도 부회장
- 現 속초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

### 3. 수상경력

- '77년 강원도지사 표창 및 한국은행 총재 표창
- '87년 국무총리 표창
- '94년 대통령 표창 그 외 다수



## 효행 · 조미자(趙美子)

---

금강봉사회 회장

---

### 1. 주요공적내용

- 15년전부터 현재까지 금강봉사회 회장으로 지역에서 소외된 장애인 노인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를 하였음.
- 팔순된 시어머니와 본인 친정어머니를 30년동안 극진히 모시며 효행을 실천
-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독거노인을 위해 매년 효도관광 및 저소득 노인들 집의 지붕, 전기시설 보수 및 보일러 등을 설치
- 현재는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금강 장애인 주간보호소를 설립하여 무보수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본인의 부모님같이 헌신적으로 효행을 실천.

### 2. 주요경력

- '88~현재 : 금강봉사회 회장
- 2002. 2~현재 : 금강장애인 주간보호소 소장

### 3. 수상경력

- '94년 : 강원도지사 표창
- '97년 : 속초 농아복지회장 감사패
- '98년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장
- 2000년 : 강원장애인복지대상 고마운 봉사상 그 외 다수



## 교육 · 오윤근(吳允根)

속초노인대학 강사, 속초문화원 이사

---

### 1. 주요공적내용

- 35년간 교직에 몸담아 강원도내 중고등학교에서 2세 교육에 정성을 다하여온 모범 교사로 속초교육청 장학사로 재직시 반공교재 개발 등 시범연구 전념 및 학습방법 개선을 통한 학습효과 제고에 기여
- 속초여고 근무시 인문여고로서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기여
- 속초고교 교감으로 재임시 연학 및 학습분위기 소성 등을 통해 영북지역 명문고로 육성하는데 기여
- 13년간 속초노인 대학강사로 봉사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강의를 통해 노인의 의식 개혁과 위상 제고, 바람직한 노인문화 창달을 위한 노인교육에 헌신
- 12년간 속초문화원 이사로 봉사하면서 속초문화원이 추진하여온 지역문화의 뿌리 찾기,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의 정착, 실향민문화의 발굴과 복언사업에 참여하여 이바지한 바가 큼.

### 2. 주요경력

- '53~' 54년 : 홍천농업고교 영어강사
- '61~' 80년 : 진부농고, 속초여고, 춘천고교 교사
- '81~' 83년 : 속초교육청 장학사
- '84~' 88년 : 속초고교 교감, 정년퇴임
- '88~현재 : 대한노인회속초시지회부설 노인대학 강사
- '90~현재 : 속초문화원 이사

### 3. 수상경력

- '70년 : 문교부장관 표창
  - '85년 : 강원도 교육감 표창
-



## 체육 · 이건화(李建和)

국민생활체육 속초시 탁구연합회 회장

---

### 1. 주요공적내용

- 15년간 문화탁구장을 운영하면서 지역 탁구의 지속적 발전 및 탁구인의 저변확대에 기여
- 강현초등학교 및 속초여고 탁구부를 창설하여 무보수로 선수들을 지도함으로서 강현 초등학교 선수단을 강원도 소년체전 우승으로 견인
- 2001년도 제1회 국민생활체육 속초시 탁구연합회장기 직장인 탁구대회 개최

### 2. 주요경력

- '77년 : 강현초등학교 및 속초여고 탁구부 코치
- '73~83년 : 도민체전 속초시 탁구대표로 참가
- '73~81년 : 속초시 탁구협회 전무이사 역임
- '82~92년 : 속초시 탁구협회 회장 역임
- '82~88년 : 속초시 체육회 이사 역임
- '99~현재 : 국민생활체육 속초시 탁구연합회 회장 역임
- '2001. 7 : 제1회 국민생활체육 속초시 탁구연합회장기 직장인 탁구대회 개최 및 강원도 한마음리그 탁구대회 유치

### 3. 수상경력

- '73~80년 : 속초시 3·1절 경축 탁구시합 개인전 우승
- '98~2000년 : 국민생활체육 강원도 탁구연합회장기 개인복식 우승

2002. 6. 13. 지방선거

## 속초를 위한 새사람들



### 도의원 2인과 시의원 7인의 PROFILE

---

1선거구 / 이병선 · 2선거구 / 김길정

---

영랑-동명동 / 최준집 · 교동 / 김성근 · 금호동 / 박명수 · 노학동 / 고학재

---

노학동 / 김정한 · 청호-대포동 / 김진국 · 조양동 / 홍우길

---

## 도의원 속초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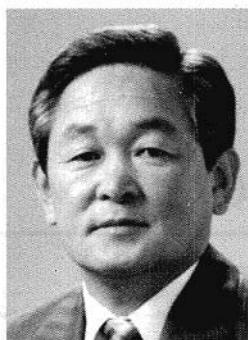


성명 : 이병선  
(李秉宣)

### 주요 경력

- ◆ 속초고, 동국대학교 사학과 졸업
- ◆ 동국대학교 대학원(역사교육학석사)
- ◆ 한국산업은행
- ◆ 국회입법비서관
- ◆ 한나라당 중앙위원
- ◆ 동국대 총동창회 이사
- ◆ 속초문화원 이사
- ◆ 재단법인 유암문화재단 이사
- ◆ 적십자강원지사영복발전위원회 위원
- ◆ 속초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 제6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現)

## 도의원 속초시 2



성명 : 김길정  
(金吉貞)

### 주요 경력

- ◆ 속초고 졸업
- ◆ 속초고 총동문회장
- ◆ 속초농협 24년 봉직
- ◆ 속초농협조합장
- ◆ 평통자문위원
-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관건·산업)
- ◆ 속초문화원 이사
- ◆ UN산하 ICA대표
- ◆ 춘천지검속초지청 청소년선도위원
- ◆ '99EXPO 조직위원
- ◆ 제5대 도의회 전반기 관광건설위원장
- ◆ 제6대 강원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現)



성명 최준집  
직위 의장  
선거구 영랑동·동명동

## 주요 경력

- 한화국토개발(주) 설악한화리조트 상임고문
- 국제라이온스 354E지구 제9지역 부총재
-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가사조정위원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범죄예방위원
- 제3대 속초시의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위원



성명 김성근  
직위 부의장  
선거구 교동

## 주요 경력

- 청호초등학교 제13회 졸업
- 설악중학교 제5회 졸업
- 속초상업고등학교 제5회 졸업
- 관동대학교 무역학과 4년 재학



성명 박명수  
직위 의원  
선거구 금호동

## 주요 경력

- 중앙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 국제로타리 3730지구 속초로타리 클럽 회원
- 중앙초등학교 제2회 동창회장
- 속초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성명 고학재  
직위 의원  
선거구 노학동

## 주요 경력

- 교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역임
- 354-E지구 설악라이온스클럽 회장 역임
- 제11대 강원도검도협회 회장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 청소년선도 위원
-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 속초지부 고문
-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속초지부 자문 위원
- 제3대 속초시의회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속초시협의회 위원



성명 김정한  
직위 의원  
선거구 노학동

## 주요경력

- 제4대 동우대학 총학생회장 역임
- 럭키설악타운1차 아파트 자치회장
- 영북지구 아파트회장단 협의회장
- 속초상고 총동창회 부회장
- (사)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속초지부 이사



성명 김진국  
직위 의원  
선거구 청호동·대포동

## 주요경력

- 청호동 개발위원회 위원 역임
- 속초지구 합경남도 도민회 이사 역임
- 속초시 건조인협회장 역임
- 속초지구 합경남도 북청군민회장
- 청호초등학교 운영위원장



성명 홍우길  
직위 의원  
선거구 조양동

## 주요경력

- 청소년 보호순찰대 운영위원장
- 조양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사)시각장애인 속초지부 상임고문
- 설악지역정보센터 이사
- YMCA 사업위원
- 극동방송 운영위원
- 조양초등학교 총동창회 운영이사

## 속초시의회 연혁

- 1990. 9.21 의회청사 신축
- 1991. 3.26 제1대 속초시의회의원 선거
- 1991. 4.15 제1대 속초시의회 개원(의원수 13명)
- 1993. 3.16 금호동 안국준의원 사망에 의한 보궐선거
- 1993. 4.14 제1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 1993.11.12 도문동 박용권의원 사망에 의한 보궐선거
- 1994. 7.21 상임위원회 설치
- 1995. 6.27 제2대 속초시의회의원 선거
- 1995. 7. 6 제2대 속초시의회 개원(의원수 14명)
- 1997. 1. 6 제2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 1997. 1.30 도문동 김민식의원 사망에 의한 보궐선거
- 1998. 6.27 제3대 속초시의회의원 선거
- 1998. 7. 6 제3대 속초시의회 개원(의원수 8명)
- 2000. 6.28 제3대 후반기 의장단 선거
- 2002. 6.13 제4대 속초시의회의원 선거
- 2002. 7. 5 제4대 속초시의회 개원(의원수 7명)  
전반기 의장단 선거(의장 최준집, 부의장 김성근)

# 2002년도

## 한국예총 속초지부 주요사업

### ■ 제12회 학생예술상 시상

지난 1년간 예술문화 활동으로 모교를 빛낸 학생을 관내 8개 중·고교에서 선발, 학생 예술상을 졸업식에 시상하였다. 속초예총 회장상 및 부상이 주어졌다.

### ■ 제13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예심

연예협회 주관으로 4월 28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3회 청소년 건전가요제 예선전이 개최되었다. 영북지역 중, 고교생 60여 팀이 대회에 참가, 본선 진출팀 13개팀을 선발하였다.

### ■ 이성선 시인 추모 문학제

이성선 시인 추모 문학제가 시인 타계 1주년이 되는 5월 4일 오후7시 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추모문학제 위원회(위원장 : 최명길)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향토 문학단체 6개단체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문학제가 진행되었다. 비디오와 테입으로 시인 생전의 모습과 육성 등을 통하여 시인의 지난날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기회는 물론 시인 추모 시 낭송회 등의 프로그램 등으로 이어졌다.

### ■ 캐나다 프리마/뉴즈 합창단 초청공연

캐나다 프리마 / 뉴즈 합창단 초청공연이 5월 6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13회 속초종합예술제 개막 행사로 개최되었

다. 프리마 청소년 합창단은 1994년 창단하여 캘리포니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태리, 독일 등에서 공연한바 있으며, 매년 캐나다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정기공연을 갖는다. 1969년 창단한 빅토리아대 합창단은 빅토리아 대학교 재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간 22개국의 공연으로 뜨거운 갈채를 받아온 공연 단체로서 4명의 작곡가를 중심으로 600여곡을 상회하는 모든 시대에 걸친 종교음악, 비종교음악 등 다양한 레파토리의 음악 공연을 해오고 있다. 이날 캐나다 합창단 35명은 세계의 민속음악과 종교음악을 중심으로 공연하였다. 아울러 심연 흠 예총부회장이 단장으로 있는 설악엔젤스 합창단이 찬조 출연을 해서 캐나다 합창단으로부터 의 초청공연 제의와 함께 아낌없는 박수와 격찬을 받았다.

### ■ 제2회 설악 청소년 사진촬영대회

5월 11일 속초시 수복탑 광장에서 사진협회 주관으로 제2회 설악 청소년 사진촬영 대회가 개최되었다. 사협 회원들이 조를 편성하여 청소년들에게 사진예술의 기초지식에 대한 약식 강의도 가졌다.

## 초등부

시상 내역	학교명	학년/반	이 름	작품명
금상 은상	조양초교 영랑초교	6-1 6-4	장유정 이미지	승어와 아주머니 대화
동상	영랑초교 교동초교	6-4 3-2	정광민 김정연	기다림 할머니와 수복탑
	교동초교	6-8	김유주	휴식
	조양초교	6-3	권순재	해녀와 시장 아주머니의 만남

## 중 고등부

시상 내역	학교명	학년/반	이 름	작품명
대상	속초상고	1-8	김희린	해물을 손질하시는 아주머니
금상 은상	속초여중 속초상고	1-1 1-8	김예인 김희린	미소 배디오암때문에 속상해하시는 해녀할머니
동상	속초여중 속초상고	3-2 1-8	최미미 조은경	그 어떤 것보다도 따스한 할매의 웃음 바다의 해초를 걷지시는 아저씨
	속초여중	1-8	한슬기	길목
	속초상고	3-6	임단비	휴식을 위하여

지도교사상 : 설악중 이재정 교사



## ■ 제10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예심

5월 11일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제10회 설악 청소년 음악 콩쿠르 예심이 개최되었다. 피아노 초등, 피아노 중등, 성악, 관현악 부문에 85명이 본 대회에 참가하였다.

## ■ 제13회 설악 청소년 건전가요제 본심

속초종합예술제 프로그램 중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청소년 가요제가 5월 12일 속초시 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지난 4월 28일 예심을 거친 13개 팀이 출전, 열띤 경연을 벌였으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부상으로 장학금이 지급되었다.

시상 내역	학교명	학년/반	이 름	시상자
대상	속여고	3-3반	김안나	한국연예협회이사장상
금상	속여고	2-10반	김다영	속초시장상
			김정훈	
은상	속초상고	3학년	김주현	속초예총회장상
			장천공	
동상	속여고	2-4반	김가영	속초연예협회지부장상
장려	속초고	2-8반	임창원 고경탁	속초연예협회지부장상
인기	속초고	2-8반	김용수 오세민	속초연예협회지부장상
응원	속초상고	2학년	권두성	속초연예협회지부장상

## ■ 제19회 속초 사진협회 정기회원전

속초사진협회 정기회원전이 5월 14~18일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최홍영, 김성호, 김형관, 황동석, 황병진, 최상후, 최희재, 최정수, 장공순, 허인순, 임기혁, 강영진, 김정희, 이왕선, 최이권, 최하용 등 사협회원 16명이 40점의 작품을 출품하여 전시되었다.

## ■ 제3회 중국 훈춘시 국제가요제 예심

5월 15일 중국 훈춘시에서 제3회 훈춘시 국제가요제 예심이 훈춘시 문화회관에서 개최되어 장규호 속초예총 회장과 김동만 연예협회 지부장이 심사 및 진행 관계로 훈춘시를 다녀왔다. 총 예심 참가자 500여명 중에서 본선 출연자 27명을 선발하였다.

## ■ 한·일 친선 예술공연

5월 16일 강원예총이 주최하고 속초예총 주관으로 양양국제공항 개항 기념 뜻토리현방한 공연『한·일 친선예술공연』이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일본측에서 준비해 온 프로그램은 뜻토리 상상 우산춤, 유카무리우타, 정통 가이가라부 시를 공연하였다. 한국측에서는 장고춤, 영동풍물놀이, 양숙희무용단의 살풀이 등을 공연하였다.



## ■ 청소년 사진촬영대회 시상식 및 입상작 전시회

제2회 설악 청소년 사진촬영대회 시상식이 5월 17일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5월 18일까지 입상작 전시회를 개최되어 수상작품이 전시되었다.

## ■ 제8회 설악 주부 백일장

제8회 설악 주부 백일장이 문인협회 주관으로 5월 18일 엑스포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시제는 막대, 장바구니 등이 주어졌고 속초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원하였으며 지역 주부 100여명이 본 대회에 참가하였다.

## ■ 제13회 설악 학생 백일장

제13회 설악 학생 백일장이 주부 백일장과 같이 5월 18일 엑스포 광장(분수대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백일장으로는 영북 쇠

고의 대회로 자리잡은 본 대회에 지역 청소년 1,500여명이 시·산문 부문에 참가해 성황리에 대회가 진행되었다. 시제는 내짝, 들꽃, 인터넷, 체육시간 등이 주어졌고 심사는 속초문인협회 회원 10명으로 위원을 구성 속초문화사랑방에서 대회직후 심사가 이뤄졌다. 수상자 157명에게는 상장 및 도서상품권이 지급되었다.

구분	등위	학교 학년 반	성명	시상자
초등학교	장원	교동초교 3-8	한승규	문인협회이사장상
자학년	차상	영랑초교 3-1	김이정	문협지부장
운문부	"	조양초교 3-4	정제훈	
초등학교	장원	교동초등 2-1	최예원	문인협회이사장
자학년	차상	교동초등 3-3	이제필	문협지부장
산문부		교동초등 2-8	풍인아	
초등학교	장원	교동초등 4-9	탁동연	속초예총회장
고학년	차상	속초초등 5-1	최정인	문협지부장
운문부		교동초등 6-3	이지민	
초등학교	장원	교동초등 6-2	고우리	속초예총회장
고학년	차상	속초초등 6-4	조윤지	문협지부장
산문부		교동초등 6-3	손가은	
중학교	장원	속초여자중학교 1-3	김소연	속초시장
운문부	차상	강원중학교 3-1	김경미	문협지부장
	차하	강원중학교 2-1	추정은	
중학교	장원	강원중학교 3-1	진미진	속초시장
산문부	차상	속초여자중학교 1-7	김현경	문협지부장
	차하	속초여자중학교 1-7	이지연	
고등학교	장원	속초여고 1-10	송선희	속초시장
운문부	차상	속초고등학교 2-9	이현석	문협지부장
	차하	속초여자고등학교 2-4	박주미	
		속초여자고등학교 1-2	문희정	
고등학교	장원	속초여자고등학교 3-5	김수미	속초시장
산문부	차상	속초여자고등학교 2-3	김민지	문협지부장
		속초여자고등학교 2-5	이다혜	
주부	장원		황필녀	문협지부장
운문부	차상		김정순	
주부	장원		한명옥	속초시장
산문부	차상		이혜정	문협지부장

## ■ 제3회 설악 주부미술 한마당

5월 18일(토) 엑스포광장 상징탑 일원에서 제3회 설악주부미술 한마당이 미협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학생미술 실기대회가 미술 현장학습과 청소년 미술발전에 이바지한데 고무되어 사업을 확대하여 주부 미술 실기대회를 통한 미술인 저변확대을 꾀하고자 개최된 사업이다. 본 대회에 수채화, 사군자 부문에 영북 지역 자모, 주부 등 1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최우수 : 남윤희(속초여성회관)

우 수 : 오경희(속초여성회관)

배명숙(속초여성회관)

특 선 : 신순애(양양)

김대종(속초여성회관)

이선화(조양)

장려 / 입선 : 양현미(속초여성) 외10명

## ■ 제13회 설악 학생미술 실기대회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마음과 순수성을 길러주고, 창의성 계발로 보다 밝은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자 개최한 제13회 설악 학생미술 실기대회가 5월 18일 엑스포 상징탑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유치부, 초등부저, 초등고학년 중 고등부에 크레파스화, 수채화, 한국화 부분으로 나뉘어 주위의 아름다운 풍광 그리기에 지역 청소년 2,000여명이 대거 참가한 가운데 대회가 진행되었다.

### 유치부

최우수 : 정예린 (꼬마샘터놀이방),  
신제문 (양양재능미술),  
이은지 (크레파스미술),  
김민지 (양양초등유치),  
오상현 (21세기미술)

초등 1부 (1~2학년)

최우수 : 김수현 (교동1-1), 이지희(교동1-3),  
김상율(교동2-8), 김필중(교동2-9),  
어유경(교동2-1), 방신희(조양2-4),  
김 솔(영랑2-2), 박창용(영랑1-1),  
최민석(속초2-4), 박정호(속초2-1)

초등 2부(3~4학년)

최우수 : 김동규(교동3-4), 박세민(교동3-7),  
유상지(교동3-6), 박정민(교동3-8),  
김현주(교동3-8), 김문주(교동3-5),  
최승원(교동3-8), 김예진(교동3-8),  
김소현(중앙4-목련), 한지예(청대4-3)

초등 3부 (5~6학년)

최우수 : 구민정(청대5-3), 조세련(청대5-3),  
반운영(교동6-8), 조소희(교동6-1),  
최승윤(속초5-1)

### 중등부

최우수 : 김다솜(속여중 1-7), 강다현(속여고2-7),  
박단비(속여고1-5), 김나연(속여고1-9),  
박혜진(속여고2-4)

유치부 21세기 미술학원장 안치홍

초등1부 : 교동초등학교 교사 공호선

초등2부 : 교동초등학교 교사 이금희

초등3부 : 청대초등학교 교사 전지현

중/ 고등 : 속초여자고등학교 교사 신동진



## ■ 제10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본심

5월 18일 문화회관 대 소극장 및 속초문화원 문화사랑방에서 영북 최고 권위를 자

랑하는 제10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본심 행사가 개최되었다. 피아노, 관현악, 성악부문에 예선을 통과한 진출자들이 경연을 벌인 결과 피아노 초등 5, 6 학년부의 속초초등 6학년 이아름 학생이 전체 대상인 한국음악협회 이사장상이 주어지는 등 총39명에게 시상이 주어졌다.

#### ■ 제6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



제6회 설악 청소년 음악회가 5월 24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5월 11일 및 18일 제10회 설악 청소년 음악콩쿠르 예, 본심을 거친 금상 이상 수상 학생들로 출연자가 구성된 연주회로서 지정곡 없이 평소 연마한 음악 실력을 발표회 형식의 공연이었다. 무대에서의 실경험을 익힘과 동시에 향토 청소년 음악발전을 꾀하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출연 학생들은 피아노 초등 5, 6 학년부에 출연하여 전체 대상을 차지한 속초초등 6학년 이아름 등 8명이 출연하였다.

#### ■ 제27회 미술협회 속초지부전

제27회 미협 속초지부전이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미술협회 회원 31명이 한국화, 서양화, 서예, 공예, 조각 등의 다양한 장르 작품

40여점을 출품하였다. 출품자는 아래와 같다.

한국화 - 김길자, 김명분, 백종숙, 윤재복,  
옥명준, 이지숙, 이해경,

서양화 - 공재숙, 김영복, 김용태, 김종학,  
박동국, 박홍기, 서문일초, 안치홍,  
이동수, 이선미, 이준열, 정광섭, 최금란, 최낙민, 허인순,

조소 - 강익희, 박영근, 정봉재, 신동진,  
장국보, 장승복,

공예 - 고주리, 황혜삼

서예 - 김광희, 김동하, 김송금, 김은숙,  
박종칠, 이행섭, 최홍영, 함연호

#### ■ 제11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연극협회 주관으로 제11회 강원도 청소년 연극제가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강원도내 10개 고교가 참가한 금번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고교는 11월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되는 제6회 전국 청소년 연극제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는 출전권 및 한국연극협회에서 지원하는 대회 참가비 함께 주어졌다.

수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시상 내용	수상 팀	수상자	시상자
최우수상	동해광희고등학교	-	강원도지사
지도 교사상	동해광희고등학교	전성호	강원도교육감
우수상	속초여자고등학교	-	속초시장
장려상 1)	강일여자고등학교	-	교보생명 사장상
장려상 2)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	"
최우수연기상 1)	동해광희고등학교	조강현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최우수연기상 2)	강일여자고등학교	서승희	"
우수연기상 1)	북평여자고등학교	윤은남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우수연기상 2)	속초고등학교	박문수	"
우수연기상 3)	삼척삼일고등학교	이미래	"
우수연기상 4)	속초여자고등학교	황은영	"
우수연기상 5)	속초상업고등학교	남호섭	"
우수연기상 6)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이명길	"
연기상 1)	홍천여자고등학교	유은혜	강원연극협회지회장
연기상 2)	유봉여자고등학교	홍나래	"



## ■ 제7회 국제아동 미술 교류전

제7회 국제아동 미술교류전이 속초시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6월 3~9일까지 개최되었다. 금번 전시회에는 제13회 설악 학생 미술실기대회 우수작 102점, 일본 요나고시 10점, 일본 사카이미나도시 29점, 중국 훈춘시 38점 등 총 179점이 전시되었다.

외국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하고 비교해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지역 아동 미술활성화의 계기로 매년 추진되어온 미협의 중점 국제사업 중 하나이다. 전시회를 마치고 제13회 설악 학생 미술실기대회 수상작들을 당국제교류에 참가한 市에 각 100점씩을 송부하여 외국에서 우리 학생들의 작품을 전시도록 하였다. 특히 (주) 신한화구의 협찬을 받아서 제3회 훈춘시 국제가요제에 본전시회에 작품을 보내준 훈춘시 학생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학용품을 전달하였음은 물론 우수 출품작을 선별하여 속초예총 회장상 및 미협지부장상을 수여하였다.

구 분	성 명	시 상 자
대 상	류 금숙	강원도지사상
금 상	김 순선	속초/훈춘시장
은 상	장 진용	속초예총지부장
동 상	김 광남	속초문화원장
장려상	최 화 외 1명	속초농협조합장
인기상	강 금 복 외 4명	연예협회속초지부장
우정상	문 해 우 외 4명	한·중문화교류회장
특별상	리 옥 화 외 1명	예총강원도회장

## ■ 제3회 훈춘시 가요제

제3회 훈춘시 가요제가 6월 26일 중국 길림성 훈춘시 영극원에서 예총(회장: 장규호)이 주최하고 연예협회(김동만 지부장) 주관으로 개최하게 되었다. 5월 15일 예심을 통과한 27명의 출연자가 노래 솜씨를 겨뤘다. 출연자 및 1,300여명의 입장객 전원에게 기념품(타월, 티셔츠)을 협찬 받아 지급하였다. 강원도 속초시 그리고 많은 지역 단체의 후원으로 대형TV, 세탁기, 냉장고, 전자렌지, DVD, 고급손목시계 등 푸짐한 경품도 지급하였다. 장규호 예총회장, 한기학 김동만 연예협회 전 현직 지부장, 그리고 속초연예협회 악단원과 방송국직원 진행요원등 20여명 본 대회에 참가하였다.

속초방송국은 본 대회를 현지에서 녹화하여 라디오로 방송하였다.

영예의 대상은 한강수 타령을 부른 밀강향에 사는 류금숙씨에게 돌아갔고 부상으로 대형TV와 강원도지사 상장이 수여되었으며 수상자명단은 아래와 같다.

## ■ 제3회 강원사진인 워크샵 및 사진강좌

제3회 강원사진인 워크샵 및 사진강좌가 6월 29~30일까지 전국의 사진예술인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강원사협과 속초사협 주관으로 설악산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었다.

29일 사진세미나인 제1강의에서는 강원관광 사진 활성화 방안과 한국사협에서 개최하는 사진강좌인 제2강 다향 - 사협 입회 점수 인정에 대한강의가 개최되었다.

30일에는 장소를 학사평 저수지로 이동 야외 누드촬영을 실시하였다.

## ■ 연극협회 (극단 굴렁쇠) 정기공연

7월 30일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이근삼작 아카시아 흰 꽃은 바람에 날리고를

공연하였다. 장규호 연출로 김귀선, 박영미, 김태영, 정경숙, 김영식, 윤영은, 김영주, 남호섭 등이 출연하였으며 어느 노배우의 쓸쓸한 노년을 다른 작품이다.

### ■ 제19회 강원연극제 참가

제19회 강원연극제가 8월 3일부터 6일까지 평창군 문예회관에서 도내 4개 극단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속초에서는 극단 굴렁쇠가 본 대회에 참가 이근삼 작, 장규호 연출의, 작품명 아카시아 꽃잎은 바람에 날리고로 8월 5일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금번 대회에서 극단 굴렁쇠는 강원도지사상인 대상을 수상(상금200만원)과 함께 제20회 전국연극제 출전권과 개인상으로 무대미술상을 김인환씨 받아 도연극협회장 상상(부상 50만원)을 수상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 ■ 강원 예술인 태풍 루사 피해복구 지원

배동욱 강원도 예총회장 및 강원예술인들이 태풍『루사』의 피해 지역인 속초를 찾아 복구 지원을 하였다. 강원예총 예술인 100여명은 이날 속초시 상도문동의 박충일씨와 이웃한 논에 대한 벼 세우기를 하며 하루종일 구슬땀을 흘렸다.

### ■ 제20회 전국연극제 참가

극단 굴렁쇠는 9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북 전주시에서 개최된 제20회 전국연극제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여 단체상 은상, 극단대표 김귀선씨가 연기상을 받는 실적을 거두었다.

### ■ 제40회 강원종합예술제 연극초청 공연

연극협회는 강원 예총이 주최하는 제40회 강원종합예술제의 행사 일환으로 개최되는

2002 강원연극 축전에 초대되어 제20회 전국연극제 단체상 은상 수상작인 아카시아 흰꽃은 바람에 날리고를 10월 21일 춘천시 문화회관 공연장에서 공연하였다.

### ■ (사)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 창립총회

(사) 한국국악협회 속초지부 창립총회가 10월 30일 속초시 문화회관 소강당에서 개최되었다. 국협이 중앙 인준을 받으면 속초예총은 7개 단체가 되는 듯 깊은 날이었으며 참관인으로는 이인근 국악협회 강원지회장 및 부지회장이 참가하였고 향토국악인 관계자 등 다수가 참가하였다. 이날 임원으로 권종식씨가 초대 지부장으로 선임되었고 부지부장으로는 정연석씨, 사무국장으로는 김동연, 이사로는 양숙희, 주동진, 고광민 감사는 한정규, 최종현 씨 등이 선임되었다.

### ■ 제6회 설악서예 백일장

제6회 설악서예 백일장이 11월 2일 속초시 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학생부 참가자 80여명이 한문, 한글, 부분으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되었다. 서재로는 초등 한문부 “二人同心 其利斷金” 중고등 한글부 “마음이 밝으면 어두운 방안에도 푸른 하늘이 있다” 등이 주어졌다. 시상은 대회 직후에 실기현장에서 거행되었다.

### ■ 제7회 속초 서우 회원전

11월 16일 - 17일 양일간 문화회관 전시실에서 제7회 속초서우회원전이 속초예총 후원으로 개최되었다. 현 서우회 회장은 湖停 박학성씨가 맡고 있으며 30명 회원작품 및 초대·찬조 출품작 50여점이 전시되었다.

### ■ 독자와 함께 하는 문학의 밤

11월 28일 카페 아리랑에서는 한국소설

가협회와 설악문우회 (회장: 강호삼)가 공동으로 독자와 함께 하는 문학의 밤을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한국문예진흥원에서 후원하는 2002 중소도시 순회 문학강연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된 본 사업에 지역문학인 및 독자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김종현씨의 사회로 이기윤(한국소설가협회 사무국장), 김석록(소설가)의 문학 강연에 이어 독자마당 시낭송회와 지역 문인들의 시낭송회 및 노래마당(출연: 이동탁)등의 프로그램으로 2시간여 동안 진행되었다.

### ■ 제5회 속초 리코더 앙상블 공연

11월 29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제5회 속초 리코더 앙상블 정기공연이 개최되었다. 최종길 (회장: 한남초등학교) 외 11명, 어린이 합주(신명선 34명)등이 출연하였다. 공연 프로그램은 Bransle de chevaux(르네상스 곡 : 16세기), greensleeves to a Ground(영국민요 사계 중 겨울 2악장), 에레스 뚜(스페인 민요) 등을 연주하여 500여 관객들의 박수를 이끌었다.

### ■ 2002 무대지원사업 및 승년연극 정기공연

연극협회 극단 굴렁쇠에서는 12월 14일 - 15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다리오포 작 김귀선 연출의 "돈내지 맙시다"를 무대에 올렸다.

이탈리아 경제공황 때의 한 도시를 배경으로 한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다리오포의 대표적인 사회 풍자극으로 인간으로 태어나 어떠한 삶이 올바른 삶인가를 가르쳐 주는 수작으로 평가되어지는 작품이다.

김귀선, 윤영은, 김태영, 남호섭, 김영식, 김영주, 김진우 등이 배우로 출연하였다.

### ■ 제12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정기연주회

음악협회 속초지부 제12회 정기연주회가 12월 20일 속초시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정기연주회는 음협의 연중 가장 비중있는 사업 중 하나로서 매년 송년을 기념하여 개최되어 왔다. 금회에도 강원문화재단 및 속초시 후원으로 회원 발표회(성악, 피아노, 관현악) 설악콩쿠르 대상 수상자의 찬조출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선보였다.

### ■ 극단 굴렁쇠 제5차 워크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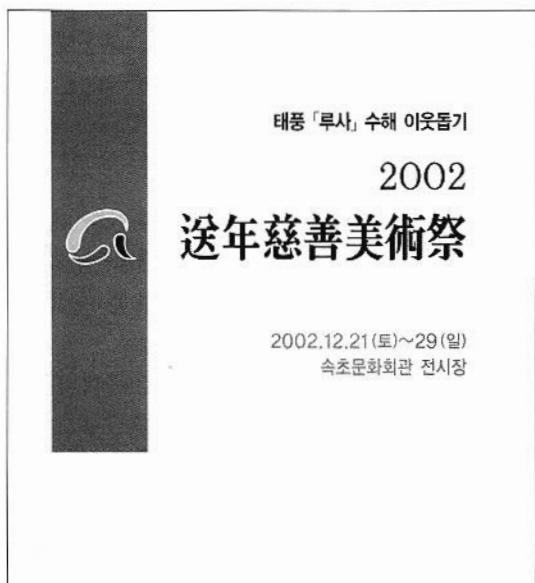
12월 20일 - 22일 연극협회 연습실에서 제5차 극단 굴렁쇠 워크샵이 개최되었다. 연극의 이론과 실기의 접목, 학술적인 접근을 통한 연극예술의 이해도 도모 및 효과적인 이론의 응용방법등을 꾀하고자 추진되어온 사업이다. 강의는 연기의 이론과 실제, 호흡과 발성법, 20세기 연극사론 등 주제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 ■ 갈뫼 32집 발간 및 문학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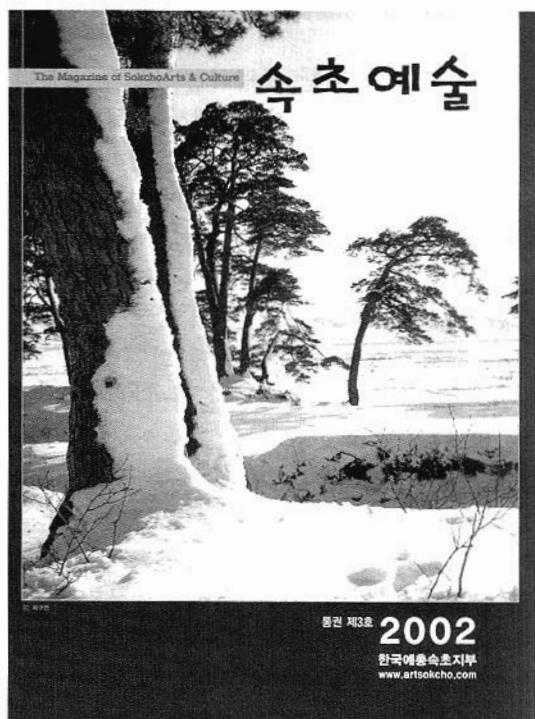
강원 최고의 연륜을 자랑하는 순수 문학지 갈뫼 32집 발간을 기념한 문학축제가 12월 21일 동진오피스텔 스카이 라운지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갈뫼지에는 시에 박명자, 김춘만, 이충희, 이구재, 이화국, 장승진, 채재순, 지영희, 권정남, 김종현, 최월순, 박웅남, 김향숙, 김경자, 최숙자, 조인화 회원의 작품이 수록되었다. 소설에는 윤호렬, 강호삼, 수필 이은자, 회곡 최재도, 꽁트 김석록, 동화 이희갑, 장선옥의 작품으로 총 321쪽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축제에서는 설악문우회 회원, 향토문학인, 독자 등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회장(강호삼) 인사말과 회원 시낭송회, 중견문학인 문학강연 등 1부와 지난 1년간의 사업실적 및

회원동정(시집발간, 등단) 독자 시낭송회 등의 2부 프로그램으로 나뉘어 행사가 진행되었다.

## ■ 2002 송년미술제



하였다. 또한 미술, 사진협회의 지상갤러리, 시화, 백일장우수작소개, 원로예술인 소개 및 한해 동안 예총 사업 실적 등 다양한 원고를 수록하였다. 배부처는 전국예총 및 향토예술인, 유관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표지는 사진협회 최구현씨의 작품으로 꾸며졌다.



## ■ 속초예술지 3호발간

속초예술 제3호가 12월 23일 발간되었다. 전문예술지를 지향하며 6개 협회의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글을 최대한 소개코자



연극협회 소속 극단 굴렁쇠는 9월 2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전북 전주시에서 개최된 제20회 전국연극제에 강원도 대표로 출전하였다.

전국 광역시와 도 대표로 출전한 15개 극단이 각자 자기 고장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혼심의 힘을 다해 겨루었는데 10월 9일 극단 굴렁쇠는 13번째 순서로 소리문화의 전당 연지홀에서 공연을 하게 되었다.

이근삼작, 장규호 연출의 “아카시아 흰 꽃은 바람에 날리고”라는 작품으로 무대에 올렸지만 지난해부터 면밀한 극 분석과 치밀한 구성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기에 전체적으로 대과없이 성공적인 공연으로 마쳐졌고 연지홀을 가득 매운 관객들로부터는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후에 심사위원들의 호평으로는 평범한 한국의 대중가요를 B.G.M으로 사용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금번 대회에서 극단 굴렁쇠는 타도에 비해서 열악한 재정 지원, 등장 인물과 작품스케일 부분에서 대작이 아니며, 태풍으로 인한 무대 셋트 유실, 무대복구를 위한 연습부족 등 여러 가지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단체 은상이라는 자랑스러운 수상 실적을 거두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또한 본 대회에서 극단 대표 김귀선이 개인 연기상을 수상하였는데 2000년 울산에서 개최된 제18회 대회에서도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전국연극제에서만

개인한데 3회씩이나 연기상을 시상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만큼 연기력 수준은 전국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

이로서 속초연극은 91년 전국연극제 대통령상인 최우수상, 96년 문체부 장관상인 우수상 등 강원연극을 선도함은 물론 속초와 강원도를 연극예술로 선양하는 첨병임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단체상 은상에게는 부상 500만원, 연기상에게는 200만원의 부상과 함께 한국연극협회이사장 상장이 주어졌다.

아울러 전국연극제는 대한민국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연극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편중된 시각과 수도권 중심의 연극인들에게만 모든 언론매체가 집중되어 그들만이 최고의 배우며 극단이며 그들만이 한국연극의 전부인양 인식된 점도 사실이다. 하지만 전국연극제의 이같은 수상과 활동실적은 한국의 어떠한 무대에서도 결코 뒤지지 않는 실력을 가졌다는 점을 밝혀두고 싶다.

향토연극인과 극단 굴렁쇠의 전국연극제에서의 활약은 속초의 자산이며, 자랑이고 이 같은 자랑거리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애정으로 아끼고 보살펴야 지역의 향토 연극예술의 발전과 더나아가 지역종합예술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될 것이다.

글 / 박종성 / 속초예술사무국장

# 음 교 소 공

우리들의 문화가족  
**갓·마·당**

갓마당 10주년 기념 갈을정기공연

2002 무대지원사업 국립



우리 속초가 낳은 국제적인 품목페 '갓마당'은  
전문 전통예술인들로서 명실공히 거듭 태어났다.

지난해 강원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전문 예술법인단체 지정 심사에서 '갓마당'을  
이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첫번째 지정 예술 단체로 '강릉제비리미술인촌',  
'춘천마임축제위원회', '춘천미술관'과 같이 승인 되었다.

우리는 아직까지 이들의 활동에 격려와 갈채를 많이 주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혼불로 일궈 놓은 젊은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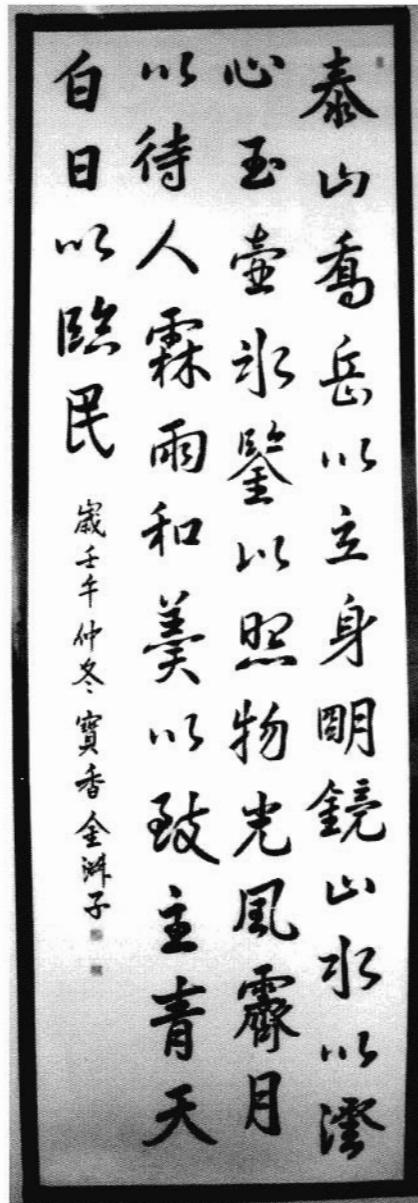
하루빨리 전문예술문화 단체로서 그 맥을 잇는 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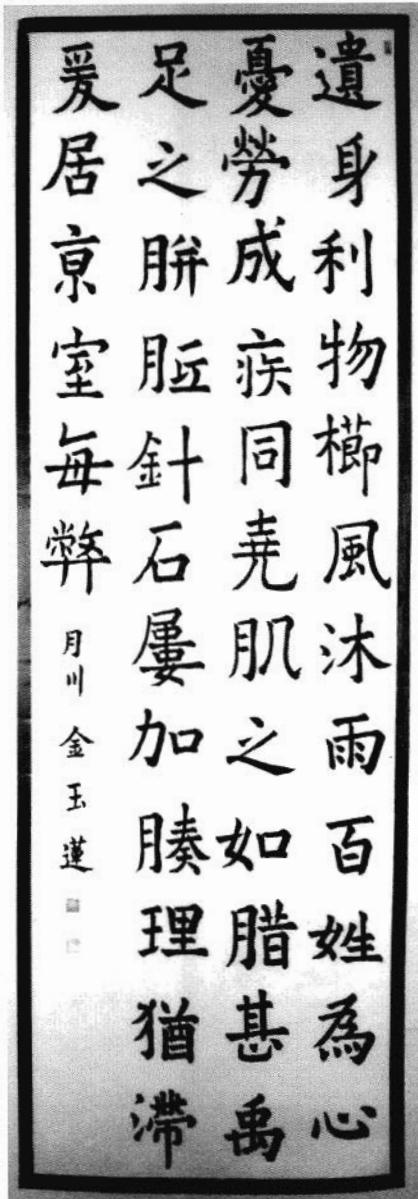
▲▲▲ 墨香 / 속초문화원



보향 / 김숙자



▲▲▲ 墨香 / 속초문화원



월천 / 김옥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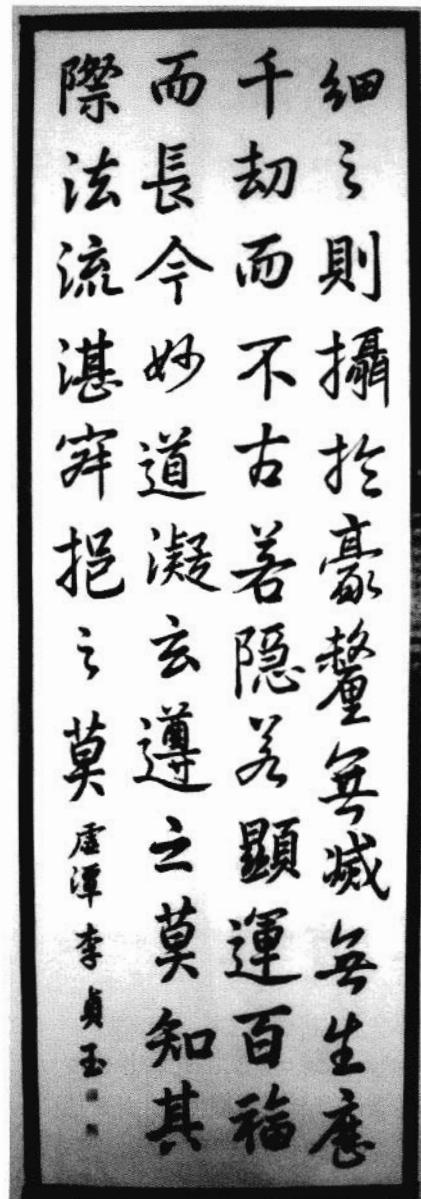




墨香 / 속초문화원



허남 / 이정학



▲▲ 墨香 / 속초문화원

帝高陽之苗裔兮朕皇考曰伯庸掲揭貞  
于孟陬兮惟康寅再呂降皇覽揆余于初  
度兮肇錫余呂嘉名余曰正則兮字余曰  
靈均紛吾既宥此內美兮又重之以脩能  
扈江離與辟芷兮紉秋蘭

李林 鄭海曄

충정 / 정해순



▲▲ 墨香 / 속초서우회



호정 / 박학성

月落鳥啼霜滿天江  
楓漁火對愁眠姑蘇  
城外寒山寺夜半鐘  
聲到客船

書張繼先生楓橋詩  
湖亭朴鶴聲

開幕蹤跡我海東共參世界美民同  
極史歷史輝令享體育交游通國隆  
天下健兒眾采集嘉錄廣技量爭雄  
赤旗高喊震疆土太極徑軍真善忠

壬午立冬紀世莫亞跳珠大會石井黃在權并題



석정 / 황재권





墨香 / 속초서우회



야정 / 전재남

獨坐悲年語人移床靜時嶺  
雲過庵肖峰雪映於枝歲早  
溪常涸冬寒竹尙衰虛邪遇  
宿膾宜復探春詩

野庭全在南  
國 · 韶

▲▲▲ 墨香 / 속초서우회

露白風清夜省出燈火明  
床頭能杜律枕下入蘇城  
天海通心氣藝窓引性情  
染紅如墨景詩涵聽望鶯

壬午年秋夜讀古自作詩裕堂林滿根



육당 / 임만근





# 석봉도자기미술관

SEOKBONG CERAMIC MUSEUM  
[www.Dogong.net](http://www.Dogong.net)

등록번호 : 문관부등록 제110호 (97. 10. 2)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교동 668-57  
☎ (033) 638-7711, FAX (033) 638-7712

◆ 자연이 아름다운 속초 청초호수內  
엑스포공원에 석봉도자기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본 미술관은 문화재급 옛 시대별 명품  
들과 세계적인 도예가들의 도자기 예술  
품들이 전시되어 보는 이에게 감동을  
안겨줍니다.

석봉도자기미술관은 1997년 11월 문  
화관광부 등록(제110호)로 지정받은  
미술관이며 경기도 테마박물관(제97-4  
호) 지정 도자기 전문 미술관입니다.

석봉미술관은 역사관, 모형관, 설악관,  
미래관, 테마관, 체험관과 가마실, 연구실  
등이 있고 시청각교육을 할 수 있는 강당과  
휴게실이 있으며 대형버스들이 손쉽게 주차  
할 수 있는 2,000평 규모의 무료 주차장 등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 관람소요시간 : 약 50분 - 120분 소요
- 관람료 : 성인 : 3,000원 (단체 2,500원)  
청소년 : 2,000원 (단체 1,500원)  
어린이 : 1,000원 (단체 700원)

## ◆ 소장자료 (총 1171 점)

### ◆ 관람안내

- 개관시간 : 9:00 - 18:00
- 휴관일 : 시즌 - 무휴  
(5월, 6월, 7월, 8월, 10월)  
비시즌 - 매주 월요일  
매년 1월 구정을 전후로  
1개월 휴관

- 청자류 : 청자상감당초문자완  
(고려, 12세기) 등 450점
- 백자류 : 백자십장생화병 등 350점
- 도벽류 : 백자백두산도벽 등 48점
- 대명류 : 백자대명 추(秋) 등 22점
- 현대자기류 : 적(積) 등 87점
- 분청류 : 분청 모란문 항아리 등 12점
- 기타 : 토우인형 등 202점

## ◆ 현장체험학습

석봉도자기미술관에서는 미술관 방문객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도자기 만들기)을 열어 체험을 통한 도예문화 저변확대를 이루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본 도자기 체험교실은 먼저 석봉미술관 견학 후 작업 현장에서 어떻게 도자기가 만들어지는지를 배우고 약 100여평에 달하는 실습실에서 직접 청자토(흙)를 이용하여 전문 큐레이터들의 도움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수(手)작업으로 도자기를 만들어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약 3시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완성된 작품은 가마에서 구어 완성하며 작품 배달까지 약 15일에서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 - 체험교실 이용료 -

단체 - 1인당 10,000원 (30인 이상)

개인 - 1인당 15,000원 ( 2인 이상)

\* 입장료 포함 가격



## ◆ 문화학교 개설

본 미술관에서는 도예실습문화학교을 개설하여 청소년, 일반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문가를 초빙하여 도자기에 대한 강의와 더불어 도자 실습을 통하여 몸으로 체험하는 강좌가 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강좌수/ 강좌대상/ 강좌내용/ 홍보방법  
1) 강좌수 : 년 4회 및 단체별 수시 모집  
2) 장 소 : 석봉도자기미술관  
3) 강좌내용 : (각 기수 당 8회 교육)  
    1회차) 개강식, 특 강 : 도예입문  
    2회차) 특 강 : 도자기에 대한 이해  
    3회차) 도자기 실습  
    4회차) 도자기 실습  
    5회차) 도자기 실습  
    6회차) 도자기 실습  
    7회차) 초벌구이 (유약)  
    8회차) 재벌구이, 완성, 수료식  
○ 강사의 구성 : 5 명(초빙:1명, 부강사:4명)

\* 그밖에 미술관 한편에 자리한 휴게실에서는 수공예 분청 찻잔을 구입하여 차와 원두커피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본 미술관 사이트 [www.dogong.net](http://www.dogong.net)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속초문화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직 위	성 명	주 소	전 화 번 호		비 고
			근 무 처	자 택	
원 장	최용문 崔龍文	속초시 동명동 250-5 5/4	632-1231	633-3233	
부원장	이인철 李仁鐵	교동 동부APT 102-1306		633-2177	속초지구합북도민회 회장
	노광복 盧光福	중앙동 468-142	632-8907	632-9014	장안슈퍼대표
이 사	고재양 高在陽	교동 780-60 15/3		633-4931	교사(전)
	김광수 金光洙	도문동 1628-12 1/2	635-3366	635-3377	속초자동차학원원장
	김길정 金吉貞	조양동 721-2 13/2	635-1878	633-4756	강원도의회의원
	김병학 金炳學	중앙동 503-44	632-6400	631-7425	속초요리학원원장
	김상복 金相福	교동 동부APT 107-701	633-7733	633-8512	(주)금강케이블넷 대표
	김종규 金鍾圭	동명동 72 2/4		633-4472	가락 강원도종친회 회장
	김창구 金昌九	교동 럭키설악타운2차101-1106	638-0277	632-8275	LG화재 백상토탈 대표
	박상복 朴相福	교동 627-130 20/2	633-0629	632-3888	속초의료보협대표이사(전)
	박영도 朴永道	조양동 성우APT 202-807		638-4913	향토사연구위원
	어재석 魚在奭	중앙동 468-67	632-6659	633-2069	속초시의회과장(전)
	오윤근 吳允根	교동 656-5 13/2	632-5357	633-8817	청운독서실대표
	윤숙자 尹淑子	교동 627-42 19/5	633-4014	633-1414	설악유치원원장
	이병선 李秉宣	교동 동부APT 107-1906	638-7005	638-6386	강원도의회의원
	이영호 李永鎬	청학동 483-20	632-9244	632-9244	유성여관 대표
	임호성 林鎬成	노학동 159 1/2		633-2178	속초시의회의장(전)
	전복식 全福植	교동 삼환APT 108-1004	636-7030	631-7130	대우장 회장
	정래섭 鄭來燮	조양동 부영APT 302-501	636-1945	633-3149	설악관광(주)문화재단이사
감 사	최경순 崔敬順	중앙동 496-55 1/4	633-3668	632-6590	화신상회대표
	최현식 崔顯植	조양동 부영APT 303-604		633-2632	강원도 문화재 전문위원
	허춘권 許春權	교동 908-10 두산교육센타	635-5767	019-376-2002	두산교육센터 원장
	박정기 朴政基	도문동 177-1 4-5	636-7025	636-8738	연회동대표
	정연태 鄭然泰	동명동 104-2 3/1		633-2364	교육행정자문위원
사무국	한정규 韓晶圭	교동 966-12	632-1231	635-5933	사무국장, 국편사료조사위원
	장은선 張銀善	교동 만천빌라 204호	632-1231	636-4344	간사
	최봉하 崔捧河	금호동 설악연립 다-201	635-8827	631-5298	향토사료전시관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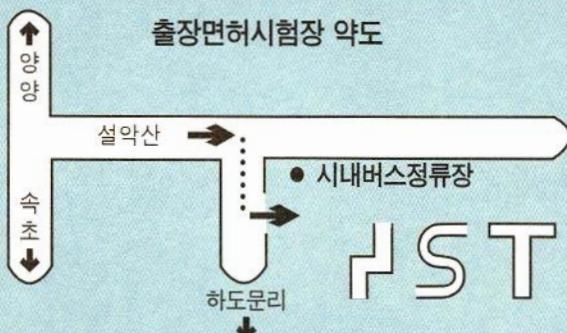
통학은 셔틀버스로 모십니다

강원도 경찰청 지정

## 속초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출장면허시험장 약도



속초시 도문동 (하도문리) 1628-14

응시구비서류 : 응시원서(속초의료원, 인심의원, 보건소)

고성, 양양군은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시험장소 : 속초시 도문동(하도문리) 1628-14

속초자동차운전전문학원

문의 및 연락처 : 속초경찰서 민원실 TEL. 633-3333

속초자동차운전전문학원 TEL. 635-3366, 3377, 3388, 3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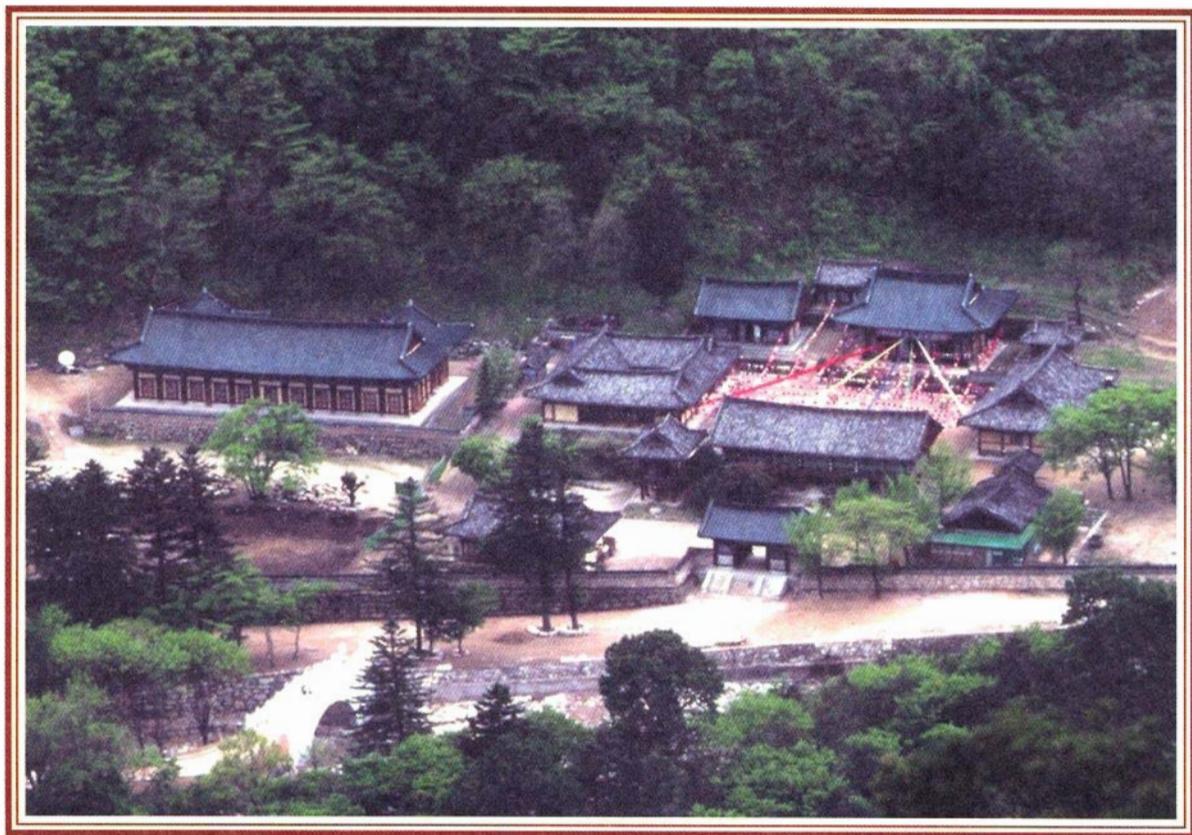


학원장 金光洙

매주 기능검정, 도로주행 검정시험 실시

# 雪巒山新興寺

대한불교조계종 제3교구본사 속초시 설악동 170번지  
전화 : 033)636-7044



新興寺는 新羅 眞德女王 6年 (652) 慈藏律師께서 創建하여 香城寺라 이름하였다.

그 후 화재로 소실된 것을 조선 인조 22年 (1644)에 新興寺라 개명하였다.

新興寺에는 創建 당시 주조한 대종과 조선 순조께서 하사하신 청동시루, 극락보전

(指定文化財 14號), 경판 (指定文化財 15號), 보제루 (指定文化財 104號) 및

香城寺址 三層石塔 (寶物 제443號)이 보존되어 있다.